



12

198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7. 12호

(루게 482)



◆◆◆◆◆◆◆◆◆◆

차 례

◆◆◆◆◆◆◆◆◆◆

꽃은 계속 피라고.....	4
삽 하나, 낫 하나	5
끝없는 행복의 층계로.....	5
철따라 오는 그 봄이라면.....	6
녀전사는 군복을 벗지 않으시였네.....	7
해산선우에서.....	7
력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8
내 한생 놓지 않을 총.....	16
언제나 그리움속에	16
통일의 리념 꽃피리	17
충성의 한길에 영생하는 형상.....	18
녀전사 수놓은 무궁화 열세송이	23
회령사람	24
밀영의 봄맞이	25
산촌의 새벽에	26
인간의 수양을 론함(외 1 편).....	27
소나무	28
법칙	29
활주로.....	39

봄시위	40
불타는 백양나무 외 2 편	49
친근한 마음	49
홍성이는 출근길	50
비오는 날	50
숲속의 재부	51
농민의 웃음	60
눈보라치던 날	61
평양하늘(외 1 편)	63
아침에	63
노을이 피어나는 바다	64
기적소리 들으며	66
우리 당이 광복거리에 짓는 집	67
포구의 기쁨	67
붉은별(외 1 편)	68
어머니에게	68
시의 산문화를 극복하고 운률을 살리기 위한 몇 가지 문제	69
고향의 미래를 두고	73
안식을 잃은 밤	74
출항전 아침시간	75
병사의 땀	75
《조선문학》과 독자	76
판문점, 여기서는	78
고향의 하늘가에서(외 1 편)	79
하늘이여 너는 무엇이던가	79
농민의 궁지	80

꽃은 계속 피라고

김송남

지나는 길손
쉬여가라 불러들이는듯
노래하며 기대는 돌고돌아
영예군인들의 즐거운 일터는
설레이는 록음속에 등실 떠있네

아롱다롱
염화비닐제품도 꽃밭
기대앞에
웃는 얼굴들도 꽃밭
아, 머리우엔 밝은 해빛 쏟아지네

전화의 날에 흘린 붉은 피로
이 땅에 피운 꽃
계속 피우라고
몹소 먼길을 찾아오셨던
아버이수령님

따라서는 발걸음이 불편할세라
부추겨주시고
앞세워주시며
디디고 오르신 사랑의 계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리히도 높고

곁에 앉히시고 한장
앞줄에 부르시여 또 한장
기념사진 찍어주시던 그 숲 그늘이

오늘도 추억속에 끝없이 설레이네

차마 못떠나시던 그 발걸음
부족한게 무엇인가 물어주시고
눈물에 젖는 손등을 다시 쓸어주시며
당조직에서 잘 돌봐주자고
간곡한 당부를 남기시던 수령님

떠나던 차는
다시 다시 멈추어서고
가시던 길 되돌아서시여
흐느끼는 어깨들을 오래오래 껴안아주시던
그 사랑은 은혜의 무궁한 하늘
그 사랑은 은혜의 영원한 해빛...

싸움의 날에 입은
상처의 아픔에는 윤적 없어도
사랑에 울고
기쁨에 울던
세상 큰 행복이 여기에 있어

아, 꽃이 피네
꽃은 계속 피네
쏟아내는 제품도 꽃밭
행복한 얼굴들도 꽃밭
세월을 넘어 더 붉게붉게
혁명의 꽃들이 여기에 만발하네!

삽 하나, 낫 하나

오필천

누구를 기다려
놓여있나
군당휴계실
한구석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삽 하나, 낫 하나

삽모서리에 묻혀있는 흙
새벽이슬 젖어있는 낫자루에
실농군의 마음이 엮여있는
이 수수한 농쟁기의 주인은 누구인가

조용히 귀기울이니
옆방에서 울리는 목소리
김매기 농사일 놓고
토론이 시작된 군당회의

이어지는 토론속에 석십한 목소리
그 목소리 분명쿠나 삽의 주인
군으로 회의 올 때면
삽 메고 허리에 낫 차고
앞내벌 두렁길 뚝아오군하는
서원마을 관리위원장

우리 수령님
첫번째, 두번째 오셨을 때도
삽 메고 낫 차고
두렁길 밟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수령님
세번째로 오셨을 때는
그의 옆구리를 다정히 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50대의 그를 만나신 자리에선
자신의 안경을 벗어 밝은 눈을 주시고
60대의 그를 만나신 자리에선
20년 관리위원장을 더 하라고
젊음을 되찾아주신 그 사랑

그 젊음 되찾은 혈기인가
이제 보라
저 회의장을 나서면
삽 메고 낫 차고
이십리 두렁길 밟으며
그는 농장으로 가리

돌도리구멍 찾아 흙매질도 하고
자동물고도 가늠해주며
콩포기 사이사이
머리든 새초며 샘물
낫으로 말끔히 깎아도 주고...

한생을 벌에서
땅을 살지우고
한생을 농사로
수령님을 받들어온
70대의 청춘 관리위원장

아, 깨끗한 그 마음
그 충성 다 말해주는
여기
군당휴계실의
삽 하나, 낫 하나...

끝없는 행복의 층계로

염득복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행복의 숨결 숨배여있어
그저 기쁨만이 차오르는
나의 정든 집

내 그 언제
이런 삶을 누려왔던가
행복에 겨워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꿈결처럼 떠오르는 초막 한채

해종일 가대기를 끌며
 피멍이 들도록 화전을 일궈도
 지친 몸 드러누울곳 따로 없었다
 진대나무 의지해 세워놓았던
 작은 초막 하나뿐

살래야 더는 살수 없어
 정든고장 버리고 떠돌며
 어데 가도 그 어데로 가도
 내 삶의 거주지는 없었어라

광복의 새아침은
 나도 몰래 밝아왔어라
 나의 아담한 기와집을 안고
 내 영원히 안겨살 조국을 안고

조국광복이라는
 그 꿈같은 환희로움이
 나의 작은 가슴에 깃든 그날부터
 나에게게는 비로소 정해졌어라
 내 삶의 거주지가

행복에 넘쳐
 기쁨에 넘쳐

그날의 작은 기와집으로부터
 층높은 거리의 창가에 내 서던 날에도
 내 미치 몰랐어라
 내 삶의 거주지가
 이처럼 행복의 절정으로
 자꾸만 옮겨질줄을...

우리 수령님
 새 집에서 또 새 집으로
 나날이 더 좋은 낙원의 층계위로
 인민을 높이높이 안아올려 세워주니

내 또다시 가슴설레이며
 바라보는 행복의 높은 층계여
 아, 조국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끄는
 저 사랑의 거리 광복거리로
 나의 주소가 또다시 정해지는 오늘
 나에겐 생각되여라

은혜로운 조국이 있어
 평범한 근로자 내 삶의 거주지가
 끝없는 행복의 층계로만
 옮겨진다는것을...

철따라 오는 그 봄이라면

박함집

철따라 오는 그 봄이라면
 가는 세월에 흘러보냈으리
 나도 몰래 마음속에 깃들어
 계절도 없는 봄, 삶의 이 봄

아, 은혜로운 향도의 별이 솟아
 가슴속에 망울 터친 사랑의 절기여!
 네 숨결속엔 무엇이 깃들었기에
 봄마중 가는 이 몸에, 이 마음에
 그리도 싱싱한 젊음을 주느냐

따사론 영광의 끝은 어디기에
 빛도 없고 이름도 없던
 내 가슴속 창문까지 비쳐드느냐
 그리도 정겨이
 그리도 살뜰히

내 딛고선 땅처럼
 우리 마시는 공기처럼
 봄이여, 너는 언제나 내곁에 있어

때로는 보배로운 훈향으로
 행복에 취한 나를 흔들여 깨워도 주고

폐부를 박차고 나온 생의 숨결인양
 막혔던 슬기의 샘도 터쳐놓아라

너는 그 류다른 정기를 안고
 오더라, 내 일하던 막장에
 그러면... 막아선 암반앞에서도
 때아닌 마음의 무쇠동발은 일어서고

나이에는 돌기돌기 단풍이 질어가도
 마음의 계절은 사철 푸르라고
 그 언덕에 삶의 씨앗을 묻어주고
 그 무궁한 미래에 운명을 이어준
 아, 한없이 고마운 봄, 이 봄

철따라 오는 그 봄이라면
 이 몸도 계절에 실려갔으리
 나도 몰래 마음속에 깃들어
 영생의 크나큰 기쁨을 준 봄, 이 봄

아아, 위대하도다 그 봄은
 인류 속망의 상상봉에
 친애하는 그이를 높이 받들어모신
 내 삶의 영원한 봄이여라

가사

녀전사는 군복을 벗지 않으시었네

김 철

백살구꽃 만발한 오산덕 기슭에
군복입고 서계시는 항일의 녀전사
초연은 가서진지 오래건만은
산에서 입은 옷 벗지 않으시었네

사령부의 초병 되어 지새운 새벽처럼
군복입고 서계시는 항일의 녀전사

붉게 핀 꽃속에 미소를 지으시며
사연깊은 옷차림 정히 단장하셨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그 모습 변함없는 항일의 녀전사
혁명의 준엄한 길 끝나지 않아
백두산의 봄빛을 고이 간직하셨네

혜산선우에서

김정철

높뛰는 모두의 숨결을 안고
고원을 달리는 차바퀴소리
백두산 답사의 길을 열어간
그날의 렬차로부터
이 몇번째 렬차로 되느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타셨던 렬차로부터
수없는 렬차들이 내앞에 갔어도
마음은 그 렬차를 타고 가는듯
저 차창가엔
그날처럼 그이 앉아계시는듯

앞에는 백두산
항일의 총소리 자장가로 들으시며
걸음마다 익히신 정든 집 트랙
허나 그날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신 길이
그 트랙으로 가신 길이었던가

앞에는 백두산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은 귀틀집
한포기 풀, 한그루 진대나무에도
성스러운 자욱이 아로새겨진
수령님의 전구

자욱자욱 선렬들의 피어린 그 길이
잡초속에 묻히고마느냐
오, 준엄한 년대에 그것은
우리 혁명을
백두의 냇으로 이어가시는 길

그때문에 울울한 밀림은
잊지 못할 사연들을 안고 달려와도
멀리 백두산을 우러르며
근엄한 생각에서
깨시지 못하시던 지도자동지

진정 어디로나 끌고가는
우리의 렬차로 되어서는 안되기에
백두의 피줄을 이어가는 길
오로지 이 길우에
우리 혁명의 명맥이 달려있기에

그이께서는 단호히 선포하시였다
달리는 될수 없는 우리의 뿌리
하늘땅이 뒤번저도
혁명이 나아갈 불변의 궤도로
백두의 이 길을

오, 생각도 깊어라 혜산선
이 땅우에
영광의 어제와 오늘을 이어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길
혜산선, 혜산선

이제 또 몇번째 렬차로 되랴
내 아들이 타고갈 그 렬차는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인민은 이 길을 가고가리라
백두산으로, 백두산으로

력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김봉철

1

상냥한 웃음이 얼굴 피부에서 신묘하게 바글바글 피어나던 포목상 늙은이는 더는 참을수 없다는 듯 칠판에서 백먹글을 지우듯 삼시에 얼굴에서 웃음을 지워버리고 천을 재던 자를 천통구리우에 집어던지는 것이었다.

《이거 보시구레 체네, 벌써 한식경이 넘게 필마다 다 헤집어놓으니, 해종일 체니하구만 장사 하라우? 순모특등품도 싫대, 홍콩락타지두 싫대, 이거야 옥황상제님도 마다하지 않을 천을 도리질 하니 내 참...》

문영이는 흰 얼굴을 감빛처럼 붉히며 죄스러운 듯 머리를 가볍게 숙이며 사죄했다. 그러나 천을 고르는 그의 손은 다시 새 천필을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오늘 못고르면 래일두 모래두 마음에 드는 천을 찾을 때까지 오겠어요.》

《아파 이 체니 봐라. 얼굴은 해사한데 배심은 한가위놀이 상씨름군갈소구려. 흐흐... 자, 어서 고르시유. 그 천은 흑곤색이지만 해빛을 받으면 자주색 이슬빛이 내돋히는 천이라우. 이건 또 어쩔소. 다람쥐털빛이지. 귀부인이 외투를 해입으시면 풍채 한결 고상하게 돋구어주고 처녀들이 입으면 날렵한 건강미를 은근히 풍기게 해주는 천이라우.》

문영이는 천장사로인의 수다스러운 사설을 듣는 등마는 등 또 다른 천필을 헤쳤다.

칠혹같이 까만 모직의 두천이었다. 얼핏 보기엔 수수한 것 같지만 보드랍고 따뜻한 새까만 솜털이 보얗게 박힌 탐탁하고 품위있는 천이었다. 사치하지는 않지만 검소하고 값이 가보이는 천이었다.

그제야 문영의 얼굴엔 방그레 고운 미소가 어린다.

《...이거예요. 이걸 끊어주세요.》

《허허, 이 체니 파시 볼줄 아는군. 물고기를 고르는 걸 보면 사람의 욕심을 알수 있고 천을 고르는 걸 보면 사람의 취미를 알수 있는 법이거든...》

하고는 익숙한 솜씨로 천필을 쭉 끌어 재기 시작한다. 손때에 절은 긴 자와 묘하게 꺾었다 폈다 하는 늙은이의 팔이 춤을 추듯 움직이는가 싶더니 어느사이 천 짙는 소리가 되알지게 울리고 벌써 신문지에 싼 천이 문영이의 앞에 놓여있었다.

문영의 가슴은 파란 마가울 하늘에 가볍게 떠 있는 흰구름처럼 무등 흥떠서 자신도 주체할 수가 없게 입가에선 즐거운 웃음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소란스럽고 흥겨운 가루개 가게방거리는 이마를 마주댄 점포차일들이 때를 만난 듯 기세 좋게 펄럭거리고 다양각색의 가게방들이 준비하게

어앉았다.

문영이는 자기의 손과 옷설을 잡아끄는 장사군 아낙네들의 살을 베먹일 듯한 목청도 못알아듣는 듯 봄비는 사람들 틈으로 서둘러 걸었다.

(아버지, 이 딸은 오늘에야 아버지의 분부를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문영은 달경전에 갈숲에 엉킨 거미줄이 걸음마다 얼굴에 감겨붙은 38선을 넘어 북녘땅에 왔던 것이다.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때부터 동자질로 가시물에 손 마를 날이 없었던 문영이는 어느날 밤 전에없이 신중해진 아버지앞에 앉아있었다.

《애야, 더는 이 어지러운 땅에 너를 이대로 두어둘 수가 없구나. 북으로 가져라. 작년 10월에 모란봉공설운동장에 가서 개선연설을 하시는 장군님을 만나뵈었을 때 장군님께서는 너를 공부시켜 주겠으니 빨리 보내라고 하시는 걸 바쁘신 장군님 집무에 방해가 될까봐 굳이 사양했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보니 장군님 뜻대로 너를 보내야 할가보다. 김정숙녀사께서도 그날 내 손을 꼭 잡으시고 불쌍한 문영이를 자신께서 어머니대신 잘 돌봐주시겠다고 하셨다.... 어서 가져라. 내 걱정은 말구...》

언제나 표표한 아버지의 눈빛이었어도 이날만은 팔앞에서 젖어드는 눈길을 숨길 수가 없었다. 아니,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것이 문영의 가슴을 더욱 찢는 것 같이 아프게 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 동자질은 누가 하구 아버지께서 쓰시는 원고는 누가 옮겨쓰나요.》

문영은 아버지 품에 와락 안겨 몸부림쳤다.

력사학자인 아버지는 서울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바야흐로 험악해지는 세상을 직시하며 곳곳이 교단에 서있는 엄한분이시였다.

문영은 장군님 품으로 찾아간다는 기쁨에 앞서 늙으신 아버지를 지옥같은 세상에 홀로 두아가는 그 애절한 마음이 더욱욱 아팠다.

그이튿날 아버지는 낡은 서가에서 오랜 책들과 사전들을 여러권 꺼내서 문영의 보침에 꾸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북에 가면 먼저 이걸 팔아 김정숙녀사의 옷감을 하나 장만해서 드러라. 작년 가을에 가보니 명주두루마기를 입고갔던 내가 죄스럽더라. 많은 사람들 중에 김정숙녀사처럼 값죽은 옷을 입은 분이 없더구나...》

서울에서 녀고를 다니던 문영은 보는 것 듣는 것이 새롭고 놀랍기만 했다.

장군님께서는 문영이를 외국에 류학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시며 두말 못하게 댁에 눌러앉게 하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갖 태여날 녀성동맹조직을

위하여 잠시도 틈이 없으시었다. 가끔 짬을 내시여 정원의 채마전에 나가계실 때도 문영이에게는 그 어떤 일감도 주려고 하시지 않았다.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온 육신을 쓰다듬어주시듯하는 이 고마움앞에서 문영이는 남쪽하늘을 이윽도록 바라보며 눈물에 젖어 속삭일때가 자주 있었다.

《아버지, 북악산마루에서 엄마를 찾으며 홀로 울던 이 문영이가 지금은 온 세상을 받아안고 기쁨에 옵니다.》

이것은 처녀의 진심이였다.

이 기쁨과 행복에 대한 보상으로서 외투천 하나로 갇는다는것은 애당초 말이 안되지만 가난한 교수의 딸로서는 이 순간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워 입에서는 노래가락마져 흥얼흥얼 나가는것이였다.

《게 문영동무가 아니요?》

문득 뒤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문영이는 사람들이 눈어지럽게 봄비는속에서 자기를 부른 목소리의 입자를 찾았다. 얼굴에 반가운 웃음을 활짝 담은 김선화가 저쪽에서 그 성격 그대로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있었다.

《선화동지!》

문영이는 한가슴에 안고있기에는 너무도 즐거운 이 순간의 마음을 함께 나눌 언니처럼 다정한 사람을 만나 어린애처럼 깔깔 웃으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김선화는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항일의 성전에서도 함께 싸워온 녀투사였다.

언제나 활달하고 인정이 많고 부드러운 30대의 녀성이였다.

《아니 문영이, 여길 어떻게 다 왔나?》

《선화동지. 제가 뭘 샀는지 맞춰봐요.》

문영이는 장난군총각에처럼 천꾸레미를 등뒤로 감추며 선화를 뻔히 쳐다본다.

《굴췌... 뭘가? ... 그런데 정숙동무가 문영이를 집에서 내놓았다는게 더 이상하구만...》

《아이참, 정말 어머님께 대주지 마세요 네? 오후에 곡산공장에 나가셨어요. 장마당 옛값이 비싸지니까 아이들이 사랑을 못먹는다고 장군님께서 걱정하셨다고 하시면서...》

《그저 하루도 스스로 설짬을 만들지 않으니까...그래 뭘 샀나.》

문영이는 천을 샀다고 선뜻 말하기가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천보다 몇배나 더 비싼 천도 있었으나 그것은 돈이 모자라서 애초에 만져볼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그는 바재이듯 잠시 선화의 눈길을 조심히 살펴보다가 주짓거리며 등뒤에서 천을 찢 신문싸개를 내놓았다.

《외투천을 한감 샀어요... 어머님께 해드리려구...급년 겨울에도 또 그 군복외투를 입으시게 할 수야 없지 않나요.》

선화는 신문지를 헤치고 외투천을 조용히 쓸어만진다. 문영은 선화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것을 놀란 눈길로 굽어보았다.

《...문영이, 고마워... 고마워...》

천성이 부드럽고 감정이 예민한 선화는 그 큰 눈에 눈물을 가득히 담고 문영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준다.

《정숙동무의 그 군복외투는 41년에 한건데 산에서 입던것이 돼서 이제 털이 다 빠졌지... 작년 겨울에 새 외투를 하나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디 말을 들어야지... 그래두 문영이의 말은 들을 거야.》

그들은 봄비는 가루개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내려왔다.

해방이란 이 두 글자에 담긴 무한대한 환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학자도 미리 예견할수 없었을것이다.

벽찬 구호들, 웃음, 만세소리, 노래... 거리는 그가 정치가든 철학가든 방직공이든 엇장사든 이 하나의 거세찬 호흡에 말려들어 벽적 뚫고있었다.

소학교 어린애들로부터 그가 물감장사든 목사든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두사람만 모여도 시국정세에 대한 론담이 벌어지곤했다.

《할아버지야 세상도 많이 살으셨으니 인재도 수레 보셨을테지요.》

저쪽편 한지에 리발소를 차린 차일밀에 텃수룩한 사람들이 웅기중기 앉아서 담배질들을 하며 떠들어대고있었다.

《보다뿐이겠나. 전봉준이요 홍범도요 그분네들이 제 명대로 살았으면 이 해방맛을 볼수도 있었는데...》

채수염을 흔드는 70고령의 로인은 점잖게 대통에 잎담배를 채워넣고는 눈가에 잔주름을 지으며 느슨하게 웃었다.

선화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문영이의 옆구리를 살그머니 찌르며 귀속말로 속삭인다.

《문영이, 우리도 좀 듣고 가자요. 요샌, 저런 제강없는 강연이 얼마나 흥취를 돋구는지 몰라요.》

문영이는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걸 겨우 참고 사람들 등뒤로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유독 산뜻하게 차려입은 리발사가 더벅머리총각의 머리를 잘 먹지 않는 리발기로 뜯으며 로인을 부추긴다.

《할아버지, 좋은 얘기 하나 또 하시우. 그럼 내 그 수염을 잘 가꿔드리리다. 차, 이 동무 머리를 자꾸 사타구니에 틀어박으면 내가 기계질을 어떻게 하라우?》

제쪽에서 지청구를 놓으며 리발사는 잔뜩 얼굴을 찡그리고 의자우에 앉아있는 총각을 빗치 않는 눈으로 흘겨본다.

《흥, 해방이 좋긴 좋다. 웅기장사 정령감네 아

들이 <하이칼라머리>만 깎아내라는구만.》

악의없는 룡담과 웃음으로 떠들썩 거린다.

로인이 잔기침을 몇번 하더니 입을 연다.

《...옛장수들이 화승대를 꺾어버리고 잠든지도 어언 많은 세월이 흘렀수다... 현대 난 어제 그런 장수보다 몇갑절 더 희한한 진짜 장수를 만나봤수다.》

《예?》

모두가 한순간 눈들이 화등잔처럼 커져서 로인 앞으로 바짝 다가앉는다. 리발사도 기계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로인쪽으로 아예 다가앉아 말처럼에 끼여든다.

《아니 누군데요?》

《좀 가만들 있게나... 일인즉은 너장순데...》

《원참, 실없는 소리두 다 하십네다.》

맥이 풀린듯 리발사가 다시 거울앞에 돌아와서 스펙스적 면도칼을 가족띠에 갈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도 싱겁게 입맛을 다시며 시물시물 웃는다.

《허허, 이사람들 봐라, 바로 그분이 김장군의 수하부하중에 명포수로 소문이 자자한 너장수야. 우리같은거야 왜놈순사줄병놈한테도 절절 기였는데 10대 소년때부터 장군님 술하에서 총을 메고, 황군대병앞에서도 호발부동이라, 머리카락 한오리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뢰라 번개라 장백땅 동남북서를 쨍쨍 울리던 장수란말일세, 활촉 하나에 왜놈 열을 꿰었다는분이야.》

《하하 령감님두, 때가 어느때이길래 활촉이겠어요. 총알이겠지요.》

《흠... 님자 무식하이, 장수의 손에 든 연덩어리는 활촉과 같은거야. 총알이야 한알에 한놈이지만 너장수의 총알은 활촉처럼 놈들을 두름으로 쨍단말일세.》

《예- 그야 물론 옳은 말씀입지요. 하하...》

이야기는 어느새 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서로 부추겨주고 보태주는 바람에 흥가락이 사뭇 고조에 오르는것이였다.

문영이는 그것이 두말없이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첫마디부터 알아차렸다.

문영이는 김정숙어머님 가까이 있으면서 한번도 어머님을 너장수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웃으실 때조차 소리없이 웃으시는 부드럽고 사려깊은 녀성, 사랑과 일만을 아시는 어머님이시였다. 그런데도 로인의 그런 말은 모두가 진실로써 들을때마다 공감되는것이 이상했다.

로인은 김정숙동지께서 공장과 시골에도 다니시며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시고 장군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지어 어느 학교에 찾아가시여서는 한 장난꾸러기의 바지를 꿰매주셨다고 했다.

로인의 긴 이야기에 감심하듯 리발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얼굴로 한마디 한다.

《참 장수는 장수지만 역시 어머님이시거든요. 보시우, 혈벗은 아이들앞에서 눈물도 지으시구.

공장에 가서는 노동자들하고 노래두 부르시구 허참... 이제는 고대광실에서 장백산로독을 풀으신들 누가 뭐라겠소.》

《글쎄올시다.》

로인은 천천히 얼굴을 들어 좌중을 둘러보며 자기 말을 잇는다.

《이슬밭에서 쪽잠을 자고 눈구덩이속에서 꽃시절을 보내신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해방된 오늘날에 와서 금방석에 앉혀 한뼉 편안하게 해드리구 싶수다.》

문영은 선화결에 붙어서서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그 할아버지의 말이 옳다. 현대 어머님은 단 한순간도 손에서 일감을 놓는 때가 없는것이다.

저 사람들은 금방석에 모시여 한생 편안하게 해드리고싶다고 하는데 어머님께는 너무도 많은 일이 있는것이다.

문영은 저 사람들앞에서 소리치고싶었다.

《여러분! 어머님은 쉬지 못하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머님께는 일이 없는 시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댁으로 달려가 어머님의 손에 호미가 쥐여져있으면 호미를 뺏고 펜이 쥐여져있으면 그것도 뺏을것이다.

문영은 외투천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어머님은 인민의 말을 다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도 저런 말만은 안들으시지요.... 내가 꼭 들으시게 하겠어요...)

2

문영이는 마치 원족을 가는 어린 처녀애처럼 몹시 서두르며 아침도 설치고 거울앞에서 옷매무시를 살렸다. 제사공장으로 가시는 어머님을 따라 난생처음으로 공장구경을 가는것이였다.

더구나 기쁜것은 오늘아침 첫눈이 내리고 거기에 싸늘한 바람까지 불었다. 며칠전에 정성껏 해드린 바로 그 외투를 어머님께서 분명히 오늘은 입고가실것이였다.

때마침 선화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제사공장에 함께 가게 된것이였다.

이때 건넌방에서 검소하게 차비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조용한 걸음으로 나오시였다.

《자 문영이, 가볼가? 선화동무도 벌써 온것 같은데...》

문영이는 거울속에 비끼신 어머님의 자태를 재빨리 일별하고는 뽀로통해서 고개를 숙인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도 바라던 소원은 무너졌다. 어머님께서 새 외투가 아니라 전해에 입으시던 낡은 군복 외투를 입으시고 서계시는것이였다.

《문영이, 왜 그래 응?》

어머님께서는 문영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신다.

《왜, 어디 아프냐?》

《어머님, 너무하세요. 새 외투는 어찌하시고 이 낡은 외투를 입으시나요. 그 외투가 어머님 마음에 안드시나요, 네?》

문영이는 때를 쓰는 어린애처럼 어머님의 팔굽을 잡고 흔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으신채 그저 문영이의 어깨에 목수건을 바로 걸쳐주시며 얼굴에 미소를 지으실뿐이다.

《...문영이 말이 옳군요. 정숙동무, 왜 하필이면 이런 날에 낡은 외투를 입고 가겠어요. 회의도 지도하겠는데...》

언제 방에 들어섰는지 선화도 심드렁해서 문영이를 두둔했다.

《자... 어서 가자요. 문영이... 새 외투는 후날에 입자구...》

하시고는 어머님께서 앞서서 문밖을 나서시었다. 문영이와 선화는 어찌는수 없이 어머님의 뒤를 따라 정원길에 나섰다.

아침길은 차거웠으나 시원하고 맑았다. 린색한 초겨울은 포근한 첫눈을 많이 주지 않았다. 잎사귀없는 나무가지들에 꽃잎처럼 살짝 피어난 눈꽃이 그 어떤 류다른 봄날을 련상시켰다.

문영이는 어머님의 뒤편에 좀 떨어져 걸으면서 종시 울적한 마음을 지워버릴수가 없었다. 군복 외투천에 까만 물을 들어서 형태를 조금 고친 어머님의 외투가 문영의 동공을 아프게 자극했다.

그의 귀가엔 문득 리발소차일미에서 하던 그 할아버지의 말소리가 쟁쟁히 울려오는것이 었다.

《...금방석에 앉혀 한늬 편안하게 해드리구싶수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를것이다. 금방석에 앉으서 호강해야 할 어머님께서 이 아침 낡은 외투를 입으시고 제사공장으로 가고있다는것을.

《문영이, 뭘 그리 깊이 생각하나.》

근심이 비긴듯한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문영은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 쟁걸음으로 어머님 곁에 다가갔다.

어디서 만났는지 손수레를 끌고가던 열일여덟 살난 처녀애가 어머님곁에 웅송그리고 서있었다. 손수레에는 두개의 묵직한 쌀포대가 실려있었다.

《어린것이 얼마나 힘들겠니... 집이 어디냐, 응?》

김정숙어머님의 부드러운 물음이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집은 저 중성리 남산 밑에 있어요.》

《멀구나, 자 우리두 그쪽으로 가는데 같이 끌고가자.》

어머님께서는 손수레앞채를 잡으시고 걷기 시작하신다.

《아니예요. 일없습니다. 원래 달마다 타야 하는 배급인데 몇달분을 합치다나니 좀 많아졌어요.

자주 다니는 길이 돼서 힘들지 않습니다.》

처녀애가 사정하듯 손수레채를 도로 잡으려 했으나 어머님께서는 말없이 그냥 끌고가신다.

선화도 김정숙동지 곁에서 수레채를 쥐고 따라 걷는다.

문영은 아직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한채 수레뒤에서 쌀포대를 밀며 걸었다.

《...그래 처녀네 집엔 부모들이 계시냐?》

《...저...》

어머님의 곁에서 걷는 처녀는 뒤말을 얼버무리고 묵묵히 걷기만 한다.

《그럼 부모가 안계시면 집에 누가 계시냐...》

《그 집은... 저 황부국장댁입니다.》

《황부국장?》

어머님께서는 놀라신듯 처녀를 다시 여겨보시며 물으신다.

《농산국에 계시는 황부국장말이냐?》

《네.》

선화가 김정숙동지 쪽을 의아한 눈길로 돌아본다.

《아니 황부국장동무야 저런 딸이 있을만큼 나이든 사람이 아닌것 같은데...》

《...그런게 아니구 황부국장댁에서 절 불쌍히 여겨서 키워줍니다. 마음씨들이 얼마나 무던한지 모릅니다. 하루세끼 이밥을 먹구 고기두 먹구... 이 고무신두 부국장댁에서 사준거랍니다.》

처녀는 김정숙어머님의 따뜻한 정에 언제 주눅이 들었던가싶게 명랑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전 해방되기전날까지 일본놈집에서 부엌일을 했어요. 매두 맞구... 그런데 해방이 얼마나 좋은가요.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도 갔댔어요. 부국장댁에서 제밥까지 해주어서... 고마운분들이예요.》

천진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처녀의 얼굴을 지켜보시는 어머님의 눈에서는 금시에 눈물이 쏟아질듯한 깊은 슬픔이 어려있었다. 문영이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 처녀는 또 어머님을 괴롭히고있구나...)

《...해방이 너를 기쁘게 했단말이지...》

어머님의 목소리는 갈려있었다.

한동안 어머님께서는 말없이 걸어가셨다. 손수레고무바퀴가 얇게 깔린 눈길우를 구르는 애처로운 소리만이 들릴뿐이였다.

फल목을 몇개 돌아가니 문득 울망줄망한 초라한 집들의 뒤편에 덩실한 2층양옥집이 나섰다. 빨간 벽돌로 둘러막은 울타리가 높직이 양옥집을 감싸돌았고 널직한 정원에는 갖가지 화초들이 봄이면 꽃구름을 피웠을 화초밭이 호화롭게 꾸려있었다. 그리고 은행나무, 대추나무들이 울타리안쪽에 등성듬성 가지를 내뻗치고있었다.

《저 집이에요.》

수레채를 쥐신 어머님께서는 대문안까지 수레를 끌고 들어가셨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뽀얗게 분을 바른 애 젊은 부인이 나왔다.

《영실아, 이제 오냐? 아니 넌 그제 힘이 들어서 낮모를분들한테 조력을 받았냐?》

젊은 부인의 새침한 목소리다.

《저... 그렇게 아니구...》

처녀가 어쩔바를 몰라 말을 더듬거렸다.

부국장부인은 김정숙동지를 그제야 알아보았는지 놀란듯 표표했던 얼굴이 금시 연연해졌다.

《아니, 이걸 어찌나... 너사께서... 정말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떠는 너인은 김정숙동지와 선화의 손을 마주잡고 방에 들어가자고 끌었다.

《일없어요. 이제부터 절 보고 녀사라고 부르지 말구 정숙동무라구 해주세요. 그제 더 친근하니까요. 황부국장동지두 회의에서 몇번 만났었는데 아주머니도 낮이 설지는 았구만요.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장옥란입니다. 앞으로 많이 보살펴주세요.》

옥란의 손을 잡고 선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슬픈 그늘이 가시지지 았고있었다.

《어디 가시려구 그러는것 같은데 우린 그만 실패하겠어요.》

어머님께서 장옥란의 손을 다시 잡아주신다.

《아니, 가기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제 집에서... 들어가서 좀 쉬고가세요....》

어머님께서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는듯하시더니 얼굴에 다정한 미소를 담으시고 저쪽에 심드렁하니 서있는 선화쪽을 돌아본다.

《선화동무, 옥란동무두 우리함께 공장에 가는게 어때요. 옥란동무, 우린 지금 제사공장에 가는길입니다. 함께 가지 않겠어요?》

옥란의 눈이 금시에 반짝하고 빛났다.

《그래요.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무로해서 무얼 할가 하구 생각하던중인데 마침이군요.》

문영은 어쩐지 깨름직하였다. 원죽가는듯한 즐겁던 마음이 순식간에 마음속에서 날아나버리는 것이었다.

《그럼 천천히 차비하고 나오세요. 우린 저 큰 거리에 나가 기다리겠어요.》

그집 대문을 나서자 선화가 참지 못하고 김정숙동지께 한마디 한다.

《아니 정숙동무, 무엇때문에 저런 옛날 부자집 마님같은 녀자를 데리구 간다구 그래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지 았은채 선화의 손을 꼭 잡으시며 타이르듯 말씀하신다.

《선화동무... 같이 가는게 좋을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조용하고 침통하신 눈길로 다시 그 양옥집을 돌아보시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신다.

《영실이는 해방덕에 잘 산다고 했지요.... 나는 오늘 았은걸 생각했어요.... 그러구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았은가요. 선화동무, 우린 그전에 불쌍한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가지 못했지요. 헌데 지금은 왜 그냥 지나가자고 하는가요. 그제저 옥란동무가 불쌍하지 았은가요? 남편이 로동운동을 좀 하다가 감옥생활을 한 값으루 평양에서두 드문 2층양옥집에서 몸종까지 두고 사는 처녀성을 그냥 놔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원간 인민은 저 양옥집을 쓴외보듯할거예요. 물론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까지말이에요....》

문영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토록 애달픈 아픔으로 갈리는것을 처음 보았다.

그들이 공장에 닿았을 때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공장지배인을 비롯한 관리일꾼들이 정문에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공장구내에 들어서자 힘찬 표이며 울긋불긋한 벽보며 오가는 사람들까지 생기가 왕성하고 피가 끓는것이 첫눈에 았렸다.

문영은 처음 았는 독특한 누에고치 익는 냄새며 뽀얀 김이 서린 물김냄새에 어리둥절하였다.

문영이 나이포래의 처녀들이 더운물에서 누에고치를 추어내는데 얼마나 숙련했는지 손놀림이며 온몸의 움직임이 마치 로동을 하는것이 아니라 음악에 맞추어 한결같이 움직이는 예술적 룰동같았다.

어머님께서는 처녀들의 곁에서 이윽도록 일손을 지켜보시더니 문득 자신께서 한 처녀애곁에 서시여 더운물에 손을 잠그시고 고치를 추어내는 일을 시작하시는것이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물이 뜨겁습니다.》

지배인이 기겁하여 만류했으나 어머님께서는 말없이 일손을 다그치시는것이였다. 눈썰미가 얼마나 빠르신지 잠시사이에 처녀들 못지 았게 그 손놀림에 아무런 군색이 없으시였다.

어머님의 얼굴엔 전에없이 즐거운 미소가 어리였다.

문영이도 어머님처럼 더운물에 손을 담그려고 했으나 겁이 나서 종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다른 한쪽에선 선화 역시 처녀들과 함께 건진 고치실을 타래에 감기 위한 작업을 도와주고있었다.

한쪽에 오도카니 서있는 장옥란은 지나치게 사치하게 입고온 옷때문에 몸가짐이 불편해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는 더운김속에 어렴풋이 보이는 어머니의 뒤통수를 감히 찬찬히 지켜볼수 없는듯 아무런 의미없이 창문밖을 내다보곤 한다.

이윽하여 실참에 어머님께서는 제사공처녀들에게 에워싸여 무슨 이야기를 하신 끝에 처녀들이 한참 웃어 댕다.

문영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빼앗기는것 같은 시샘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어머님께서는 제사공처녀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며 속삭이듯 말씀하시었다.

《...더운물에 손들이 이렇게 험해졌군요. ... 나라가 갓 해방돼서 할 일이 많다보니 동무들의 손에까지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어요. 용서해요. 뭐니뭐니해도 동무들의 손이 보배손인데...》

《일없습니다. 왜놈이 없는 세상에서 더운물에 손 담그고 일하는것쯤이야 뭐랍니까?》

처녀들은 김정숙동지의 손을 맞잡고 어리광을 부리듯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아니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모두 머리를 써서 기술을 발전시키면 해결할수 있어요.... 그러구 저 지배인동지...》

김정숙동지께서는 처녀들 뒤편에서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는 철부지처녀들을 민망스럽게 둘러보곤 하는 지배인쪽을 돌아보며 은근한 목소리로 말씀을 건넨다.

《아까 공장에 들어오며 보니 로동자들의 합숙은 공장구내에 있고 사무실은 공장밖에 있더군요. 왜놈 공장주가 그렇게 한것 같은데 기계소리때문에 밤일을 하고 들어온 처녀들이 어디 잠이나 포근히 자겠어요?... 공장사무실과 합숙을 바꾸는게 어떻겠습니까. 사무실이야 기계소리가 나는 작업장곁에 있는게 더 좋지 않습니까?》

문득 둘러섰던 제사공처녀들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술한 간부들이 다녀갔어도 단 한번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 오직 그들을 친딸로 보았기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손수 더운물에 손을 잠그시었고 처녀들의 잠자리 하나를 두고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는것이였다. 그것이 고마와서 처녀들은 울었다.

문영이도 가슴이 찢릿하고 자기 사랑을 다 빼앗기는것 같아서 시샘까지 느꼈던 자신이 얼마나 치졸했던가를 얼굴 붉히며 돌이켜보았다.

문영은 공장정문을 나서며 어찌하여 어머니께서 자기를 공장에 데리고 오셨는지 그 심중을 비로소 깨달은것 같았다. 책에서는 배울수 없는 그 무엇인가 귀중한것을 받아안은듯싶었다. 더우기 오래지 않아 외국류학을 떠나야 하는 그로서는 오늘의 이 체험이 있어서는 안될 조국의 향기로 은연중 가슴에 깊이 새겨짐을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중성리 큰길거리에서 장옥란은 주뒹거리며 김정숙동지의 손을 조심히 잡고 도간도간 끊기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정숙동지... 전... 오늘 부끄러웠어요...》
어머니께서는 그저 다정히 웃으시며 옥란의 손을 마주잡아주신다.

《제 마음을 리해해주셨다면 고맙군요.》

문영은 어머니의 모습에서 인간이 쉽게 지닐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인간적 미의 향취를 다시 심장깊이 받아안으며 고개를 깊이 숙이였다.

그는 문득 자기가 사온 천으로 지어드린 외투를 끝내 어머니께서 입으시지 않을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뇌리를 스쳐지나가는것을 놀랍게 감득하며 어머니의 고결한 모습을 다시 우러러보았다.

3

문영이가 외국으로 떠나게 될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 당장 조국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엇보다 김정숙어머니의 그 못잇을 정으로 해서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만졌다.

근 1년가까이 어머니 슬하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한번도 위해드리지 못한 자신이 한스러웠다.

언제나 침착하고 여유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얼마나 많은 일과 근심이 어머니께 있는가를 사람들은 다는 알지 못한다. 어머니를 만나뵈온 사람마다 즐겁고 친근하신 미소와 조용하면서도 힘을 주시는 말씀의 억양과 뜨겁게 잡아주시는 손길, 이것만을 가슴에 새기고 가기때문이다. 그러나 문영이는 어머니의 시름을 알고있었으며 어머니의 수고를 알고있었다. 어머니께서 만사람들에게 줄 기쁨때문에 자신을 얼마나 혹사하시는가를 자기 눈으로 한두번만 보아온것이 아니였다.

이즈음 어머니께서는 몸살이 나시여 노상 신열이 있는 몸으로 안팎일을 맡없이 처리하시고 집에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 녀성일군들이며 애국미를 가지고 온 농민들 그리고 남조선에서 온 민주인사들을 만나주시는 일때문에 몹시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고계셨다.

그런데 그 많은 손님들이 댁에서 때식을 하다가 나니 어떤 때는 문영이로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민망할 정도로 어머니의 식찬이 너무도 빈약하여 안타깝기가 그지없었다.

그래서 어느날 어머니께서 계시지 않을 때 찾아온 선화에게 그런 이야기를 비쳤는데 그날 저녁으로 선화가 자동차에 쌀을 싣고왔던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응당한것이였다.

그 일을 알게 된 어머니께서는 그처럼 사랑해마지 않던 선화를 조용히 앞에 앉히시고 준절히 이야기하시는것이였다.

문영이는 그자리를 피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할지 안절부절하고있었다.

《선화동무, 이러면 안됩니다. 그분들은 장군님을 찾아 우리 집에 온 귀중한 손님들인데 국가쌀로 그들을 대접했다는것을 알면 그들이 정숙이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장군님께서 얼마나 섭섭해하시겠나요. 문영이야 그저 나를 생각해서 걱정끝에 그런 청을 할수도 있었겠지만 선화동무야 이럴수 없지 않아요...》

문영이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엄격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가... 어머님을 위해 드린다는게 오히려...)

문영이는 고개를 숙이었다. 숨도 제대로 쉴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다.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던 선화가 고개를 쳐들고 김정숙동지의 손을 꼭 잡는다.

《정숙동무, 정숙동무의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정숙동무의 얼굴이 요즘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10여년이상 초근목피로 끼니를 에우고 엄동설한에 살이 드러나는 천조박으로 몸을 덥혀야 했지요. ... 그래 해방된 오늘에 와서까지 정숙동무는 왜 제몸을 예나 제나 돌보지 않습니까... 일전에 문영이하구 가루개에 갔을 때두 한 로인장이 말합디다. 정숙동무와 같은 분들을 금방석에 앉혀 한뼉 편안하게 해드리고싶다고... 왜 자신을 그토록 아끼지 않습니까?》

선화의 커다란 눈엔 금시 떨어질듯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다.

《...너무합니다. 정숙동무...》

선화는 종시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하였다.

문영이도 그만 터지려는 오열을 참을수가 없어 입술을 꼭 깨물고 돌아앉았다.

(선화동지의 말이 열번 백번 옳다. 어머님께서 자신을 너무도 아끼지 않는다.)

이윽토록 어머님께서선 선화의 손에 자신의 손을 맡긴채 앉아계셨다.

한동안 조용하던 방안에 어머님의 갈리신듯한 목소리가 다시 울리었다.

《선화동무,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가 동지들의 피값으로 호강하고 세도를 부리면 저 동북방야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숙동무랑, 오중홍동지랑 그 많은 전우들이 뭐라구 하겠어요. 선화동무, 정말 우리가 그 무슨 값을 받자구 산에서 고생했나요. 고래등같은 양옥집에서 살자구 눈구덩이속에서 갇고 산해진미로 풍채거리자구 풀뿌리를 캐서 끓여먹었던가요. 인민은 우리에게 금방석을 깔아주자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럴수록 맨 땅에 앉아야 하며 조밥을 먹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선 잠시 말쑼을 끊으셨다가 다시 이으신다.

《선화동무, 울지 마세요. 고생속에서 뼈가 굵고 고생속에서 인생을 시작한 우린데 김정숙이 백두산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문영은 김정숙어머님 앞에 다가앉았으나 뒤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선 문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담으시는것이였다.

《문영이, 문영의 마음을 다 알아요. 하지만 인민이 호강하지 못하는데 우리 혼자 호강하면 우리는 인민에게 따돌림을 받아요. 인민의 눈은 제

일 현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하지, 인민은 조밥에 된장을 먹고 무명옷을 입고있는데 우리는 흰쌀밥에 고기반찬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새조선 만세를 부르자고 하면 그들이 부를것 같어요? 우리는 인민들과 한집안식구처럼 한밥상에 마주앉은 사람들예요. 죽을 먹어도 한상에서 같이 먹고 고기를 먹어도 한상에서 같이 먹어야 집안이 화목해요...선화동무, 전 어렸을 때 우리 마을 로인들이 하늘다음엔 땅이고 땅다음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전 그중에서 첫번째가 하늘도 땅도 아니고 인민이라고 봐요. 인민을 잃어버린다는건 하늘도 땅도 잃어버리는거예요.》

문영은 눈물에 젖은 눈을 들어 어머님의 얼굴을 다시 숭엄히 우러러보았다. 티하나 없이 순결무구한 그 성품이 너무도 고결하고 눈부시여서 감히 어머님의 얼굴을 마주볼수가 없었다.

문영은 수만년 지나간 력사와 그리고 수만년 앞날의 력사속에서만 사는 아버지여도 결코 자기 딸을 어떤분에게 보냈는지 다는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그저 친어머님처럼 사랑해주리라는 아버지의 그 소박한 념원, 그것은 너무도 평범하고 단순한것이다. 어머니란 그 돌도 없는 훌륭한 말로써도 감히 김정숙동지를 부르기에는 그 말이 삽시에 빛을 잃어버리는것이였다.

그날밤 문영은 온밤 잠들수가 없었다.

머칠이 지나갔다.

드디어 문영이 먼길을 떠날 시각이 왔던것이다. 그날은 류달리 맑고 따뜻한 날이였다. 바야흐로 다가오는 봄의 숨결이 대지에서가 아니라 먼하늘에서 피는 노을빛에서인지 아니면 문득 처마밑으로 날아드는 새들의 지저귐에서인지 그 향취가 연연히 풍겨지는 그런 날이였다.

문영은 짐을 꾸리고 어디엔가 잠시 나가신 어머님을 기다리고있는데 어머님께서 즐거운 미소를 얼굴에 가득히 담으시고 정원에 들어서시였다.

어머님 뒤편에는 뜻밖에도 그날 손수레를 힘겹게 밀던 영실이가 서있었다.

그동안 한결 고와지고 몸도 균형이 잡히고 얼굴에 질었던 시름도 말끔히 가셔졌다.

《어머님... 아니 영실동무가 어떻게...》

문영은 영실이가 동생처럼 친근감이 복받쳐 정원으로 달려나갔다.

《문영이, 먼길을 떠나는 문영이를 바래여주자구 우리 녀성로동계급인 영실이가 왔구만, 참, 문영인 아직 모르겠지, 영실이는 체사공장 기능공 학교에 들어갔어...》

《그렇습니까. 야 영실동무, 정말 잘했어요. 부럽군요.》

문영은 진심으로 기뻐다.

《...문영언니, 제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겠나요. 어머님께서...》

영실은 눈물이 가랑가랑 맺힌 눈을 들어 문영이를 쳐다보며 방긋이 웃었다.

영실은 부국장대부인인 옥란이가 그날 김정숙 동지를 모시고 제사공장을 다녀온후 집도 검소한 집으로 옮겼고 자기도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사연을 이야기했다.

방에 들어서신 어머님께서는 두 처녀의 손을 끌어 랑옆에 앉히시고 한없이 행복한 미소를 얼굴에 담고 문영이와 영실이를 대견해하시는 눈길로 번갈아보신다. 하시고는 문영이의 어깨를 정겹게 끌어안으시며 속삭이듯 말씀을 꺼내신다.

《문영이, 얼마나 좋으냐, 영실이는 오래지 않아 제사공이 되고 문영이는 녀성과학자가 돼서 돌아오고...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했다. 물론 문영이도 찬성하리라 믿고말이다... 그 외투가 있지. 그게 아마 영실에게 꼭 맞을것 같구나. 문영이가 외국에 멀리 가면서 조국의 녀성로동자에게 한가지 선물을 남겨두는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회상으로 되겠느냐... 문영이, 내 말을 리해하지?》

문영이는 어머님의 그 따뜻한 억양에 금시 눈곱이 뜨거워올랐으나 입가엔 고운 미소가 어린다.

《어머님, 그렇게 해주세요. 어머님이 기쁘시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한가지 약속하실건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 어머님의 외투를 사가지고 오겠어요. 그때는 꼭 어머님께서 입으셔야 해요. ... 약속하시지요?》

어머님께서는 즐겁게 웃으시였다.

《그래, 약속하자, 꼭 약속하자!》

하시고 어머님께서는 건넌방에 들어가시여 한 팔엔 그 외투를 걸치고 다른 손엔 문영이도 잘 아는 단벌밖에 없는 어머님의 검은색 모직양복을 들고나오시는것이 었다.

《자, 이 외투를 입어봐라, 영실아, 문영언니가 네게 주는거다.》

《어마나... 어머님, 문영언니...》

영실은 어쩔줄 몰라 주뭇거린다. 어머님께서는 어린 딸에게 하듯이 영실에게 외투를 입혀주신다.

문영이도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님의 손을 도우며 외투를 입는 영실의 옷걸을 바로 쳐준다.

잠시후 어머님께서는 말없이 문영의 트렁크를 여시고 한쪽에 포개여놓았던 양복을 넣는것이였다.

《아니 어머님, 그건 뭘니까?》

문영이가 질겁하여 어머님의 손을 끌어안듯 잡았다.

《문영이, 가만있어요. 길차비해주는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건 처녀의 품성이 아니랍니다.》

짐짓 엄하게 그루를 박는 어머님의 말씀이였다.

문영은 어머님의 팔에 그냥 매달렸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단벌 나들이옷을 제게 주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입으란말입니까. 제가 철부지어린앤가요. 전 이 옷을 못입습니다. 저때문에 어머님이 이처럼 마음 쓰실줄 알았으면 저의 아버지는 애당초 저를 어머님 곁에 보내지 않으셨을거예요. 미국놈 양풍에 딸의 심신에 때가 묻을가봐 어머님 곁에 보내주었는데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철없이 걱정만 끼치는걸 알면 저의 아버지 저를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문영이는 어머님 품에 와락 안겼다.

《문영이, 그런 말 말아요. 먼길 떠나는 문영에게 새옷 한벌 해주지 못하는 내 마음인들 좋겠나요. 이 옷이라도 가지고 떠나면 좀 위안이 되겠는지...》

《아! 어머님!...》

문영은 종시 어머님 옷걸을 적시며 울음을 터치고야말았다.

《자, 그만해라.... 어서,》

어머님의 목소리도 가라앉았다.

역으로 달리는 자동차는 경쾌하게 눈이 깔린 포장길로 달리고있었다.

어머님께서는 랑쪽에 두 처녀를 끌어안듯 앉히고 행복하게 웃고계셨다.

문영이는 그 따뜻한 체온을 온 육신의 세포로 감득하며 오래도록 어머님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문영이는 문득 멀리 있는 아버지를 그려보며 마음속으로 애타게 물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런 고결한 어머님의 사랑을 력사에 어떻게 쓰시렵니까? 네? 아버지, 대답해주세요. 그 어떤 충격적인 사변도 놀라운 변혁도, 어머님의 따뜻한 눈길과 부드러운 이 손길보다 더 위대할수가 있단말인가요.)

문영이는 어머님의 그 숭고하고 고결한 모습이 하나의 세계이며 우주이며 영원이란것을 먼길을 떠나는 이 짧은 순간에 비로소 심장으로 깨닫게됨을 강렬하게 느끼며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을 꼭 잡았다.

내 한생 놓지 않을 총

리찬영

총

간밤도 백두산 고향집 트랙의 교요를 지키고
투사들 방금 내려놓은듯
대원실 벽에 세워져있는
보병총

백두산 고향집 첫 보초병들이
그이의 첫 미소를 지켜
그이의 첫 자욱을 지켜
웅위의 더운 가슴우에 잡았던 총

흰눈 내리던 밤
별들이 웃는 그 새벽
넘겨주고 넘겨주며
불타는 맹세로 잡았던 총
오늘에로 이어진 그 맹세 끓는 가슴우에
또다시 없어지는 총

마음속으로 그날의 찬이슬

조용히 쏘아보노라면
저 총을 메고 하루밤만이라도
아, 여기서
서보고만싶어지는 마음이어

조선의 밝은 미래와 오늘의 기쁨을
안아 지키는 행복에
긴 긴 밀림의 한밤을 다 새웠어도
그날의 친위전사들의 마음
그 얼마나 뜨거웠을까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어
영원히 넘겨줄 총
그날의 백두산 밀영 보초병들
그다음 교대에 들어서는 마음으로
내 심장의 어깨우에도 없고 가노라
한없이 무겁게
한없이 영광스럽게...

언제나 그리움속에

문성락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꽃속에 모시고싶고
열매맺는 가을이 오면
향기속에 모시고싶어

간절한 이 마음
봄 가을 꽃피우는데
언제나 그리움속에
때없이 조용히 어리어오는
존귀하신 그 영상이여

눈보라 헤쳐 안고오신
이 좋은 날
복된 삶은 모두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그리도 일찍 우리결을 떠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단 한번만이라도
우리 소원대로 모시고
단 한번만이라도
오늘의 행복 나누실수 있었다면
우러르는 마음 이다지도 아프지 않을것을

아, 언제나 그리움속에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세월과 더불어 못견디게 파고드는
간절한 마음

깊은 밤 한밤중에 울려오는
북행렬차의 기적소리 들을 때에도
못가신 귀향길이
우리 가슴속에 노래로 남아있어
해방된 그날 그러 잠 못이루고

수도의 화려한 거리
 꽃무늬 아름다운
 녀인들의 옷차림을 볼 때에도
 검정치마에 흰저고리-
 수수한 그 모습 생각하고

눈보라 울부짖는 깊은 밤
 따뜻한 온수방에 잠자리 펼 때면
 어머니 우리 위해
 우리 위해 내여주신 자리같이
 내 가슴 후터워오나니

아, 해방된 그날에조차
 우리 어이하어

군복입으신 김정숙동지께
 새옷 한벌 지어드리지 못했던가

살아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
 행복이 넘쳐날수록
 더더욱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그날에 이루지 못한 소원안고
 위대한 수령님 높이 받드신
 숭고한 그 뜻 그 념원
 대를 이어 꽃피우는길에
 향도성 심장으로 받들어모시리!

통일의 리념 꽃피리

마그다 라모스 로아르데 (베루)

위대한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언제나 다름없는 당신의 고상한 리념은
 만사람들속에 하나의 조선만을
 간직하게 하여주었습니다
 조선력사를 찬란히 빛내여주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당신은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해방의 은인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당신은 일제를 쓸어놓힌것처럼
 미제를 몰아내실것입니다
 조국통일의 길에서

위대한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당신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계십니다

주체사상을 등대로 천리마의 속도로
 조선사람자체의 힘과 의지로
 자력갱생하는 나라를

위대한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새 전쟁의 불을 지르며
 《두개조선》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와 그 피뢰들은 멸망하고
 통일의 날은 밝아올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가증스러운 군사분계선도
 서로 다른 두 제도도 더는 없는 나라
 같은 리념과 목적을 가진 하나의 나라로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입니다

아름다운 조선에
 하나의 기발만이 펴날것입니다
 통일된 강산에 자립할 민족의 생활은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할것입니다

충성의 한길에 영생하는 형상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에 대하여-

최인경

오늘 우리 인민은 다함없는 존경과 경모의 정을 안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탄생 7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김정숙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의 참된 전형이시며 우리 인민이 영원히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충성의 구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주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오늘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형상에 바쳐진 다양한 형태의 문학작품을 수많은 창작함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응분의 해답을 주고있으며 주체문학의 대화원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있다.

영화문학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친위전사》, 《압록강을 넘나들며》, 《미래를 꽃피운 사랑》, 《기다려다오》, 《한 녀공작원》, 단편소설집 《불멸의 영상》, 시집 《우러러 따르는 김정숙어머님》, 장시 《영원히 빛나라 충성의 해발이여》, 가사 《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님》, 장막희곡 《해발》 그리고 음악무용서사시극 《두만강반에서의 한해 여름》 등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창조에서 우리 문학이 거둔 귀중한 성과작들이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1-5부, 천세봉, 박유학, 리종렬 작)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활동과 불멸의 업적을 대서사시적 화폭에 담아 형상한 높은 사상예술적성파로 하여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혁명의 길에 나서시게 되는 1932년 봄 연길현 부암마을에서의 혁명활동시기로부터 1939년 5월까지 7년남짓한 뜻깊은 력사적 시기의 혁명활동을 방대한 화폭에 담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이 의의깊은 화폭을 통하여 작품은 꼭절많은 운명의 주인공인 분임이가 김정숙동지께 제기한 인간문제, 사람은 이 세상에 뭘하러 태어났는가

하는 인간생활의 근본문제를 사상주제적 과제로 내세우고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뭘하러 태어났는가. 이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 다시말하여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분임이에게 사람은 사람답게 살자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대답을 주신다. 이것은 자신의 뼈저린 체험을 통하여 얻게 되신 귀중한 생활의 진리였으며 작품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사상예술적 해답이기도 하다.

소설은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참다운 삶의 길을 찾고 그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성다해나가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공산주의인간학이 내세워야 할 이 근본적인 문제에 심오한 사상예술적 해답을 주고있으며 나아가서는 충성의 한길에 빛나는 삶만이 참다운 혁명가의 가장 고결한 삶이라는 의의깊은 사상적 알맹이를 훌륭히 해명하고있다. 인간의 참된 삶이 사람답게 사는데 있다면 참으로 사람다운 삶은 사람에게 목숨보다 귀중한 정치적 생명을 준 위대한 수령의 은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생을 다바쳐 살며 싸우는 충성의 한길에 있다. 이처럼 자주적인 인간문제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 혁명적 수령관에 대한 문제를 작품의 종자로 심어놓고 영원한 충성의 구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그것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는 여기에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가 이룩한 귀중한 사상예술적 성과가 있으며 충실성교양의 훌륭한 교과서로 되는 근거가 있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는 충성의 한길에 영원히 빛나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창조하고있다. 소설은 김정숙동지께서 체현하신 숭고한 공산주의적 혁명정신과 고매한 품모를 전면적으로 그리면서 이 모든 품모가 바로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창조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사상예술적 성과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과 참된 혁명전사와의 관계, 위대한 사랑과 숭고한 충성의 철리를 심오하

게 밝힌데 있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는 위대한 수령과 참된 혁명전사 사이의 고결한 혁명적 동지관계, 진실한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빛나는 예술적 화폭이다.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는 아름답고 고상한 공산주의적 인간관계, 혁명적 동지애의 관계의 최고의 정수, 최고의 정화를 이룬다. 그것은 수령이 혁명전사에게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 생명을 주고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을 주기때문이며 수령을 받드는 전사의 충성이 참된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품모와 모든 인간적인 사상감정의 최고의 결정체로 되기때문이다. 원대한 뜻을 품고 혁명의 길에 나선 혁명가는 오직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에만 자기의 숭고한 목적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으며 수령은 또한 충실한 전사들이 있을 때 그 위대한 사상과 령도를 구현할수 있고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수 있다. 이것은 간고하고도 영광에 찬 조선혁명의 력사가 말해주는 가장 귀중한 혁명의 진리이다. 조선의 참된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수령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의 혁명전사로 일생을 순결하게 산 참된 혁명가들이었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와의 관계를 수령과 혁명전사간의 관계의 최고의 본보기로 그리었다.

작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충성심의 끝없는 원천이었다. 위대성을 체득함이 없이는 인간적으로 매혹될수 없고 매혹되지 않고서는 흠모하고 존경하며 충성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최상의 비범성과 위대성을 그 인격속에 천품으로 체현하시고 만사람의 마음을 매혹시키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조선의 혁명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알기전에 수령의 위대성을 알고 수령을 알았기에 혁명에 나선 사람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은 조선혁명가들이 시련에 찬 혁명의 길에서 변심없이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영원히 받들어나갈수 있게 한 충성심의 원천으로, 바탕으로 되고있다.

여기에 바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최대의 영예와 행복이 있으며 가장 큰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이 있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조선공산주의자의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누구보다도 가슴뜨겁게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한 혁명전사의 참된 구감이사라는것을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친히 키우신 도친

리부녀회의 핵심인 춘옥이가 자기는 형님과 약속을 하고 형님한테 정을 붙이고 혁명을 하는데 형님은 누구하고 약속을 하고 어디에 정을 붙이고 혁명을 하게 되였는가하고 하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다.

《봉녀아지미, 유격대원들은 모두 장군님을 믿고 장군님께 의탁하여 혁명을 하는거예요. 누군 누구겠어요. 장군님이시지. 난 혁명을 알기전에 장군님부터 알았어요. 유격대원들은 장군님께 정을 붙이고 그다음 혁명에 정을 붙인 사람들이예요. 혁명이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다는 몰라도 장군님이 어떤분이신지는 잘 알아요.》

김정숙동지의 이 말씀에는 그이께서 삶의 신념으로 간직하신것이 바로 혁명은 곧 **김일성**장군님 이시라는 철석같은 믿음이였다는 깊은 뜻이 뚜렷이 담겨져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혁명의 길에 세워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주시여 조선공산주의자의 빛나는 구감으로 이끌어주신 한없이 위대하고 은혜로운 품이라는것을 일관하여 보여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김정숙동지께서 체현하신 끝없는 충성심의 영원하고 역센 뿌리가 있는것이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 창조에서 이룩한 귀중한 사상예술적 성과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인공의 형상 창조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는 고유한 구성을 가지고있는데 있다.

작품은 우선 주인공형상에 집중할수 있는 독특한 구성체계를 가지고있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는 제1부 《유격구의 기수》, 제2부 《사령부로 가는 길》, 제3부 《광복의 해발》, 제4부 《그리운 조국산천》, 제5부 《진달래》 등 독립적인 제목을 가진 장편소설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다부작 소설이다. 작품을 이루고있는 5편의 장편소설들은 독립적인 종자를 가지고 각이한 력사적 시기를 반영하고있으나 그 모든 생활과 인간관계들이 일관하게 주인공의 형상을 중심으로 하여 펼쳐지고 맺어지면서 하나의 전일적인 형상체계를 이루고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화폭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수령과 혁명전사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주인공으로 하면서도 그이의 모든 활동선을 수령의 령도선으로 일관시켰으며 수령의 령도를 구현하기 위한 혁명전사의 투쟁선으로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였다. 이리하여 작품은 구성의 측면에서도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작품으로 훌륭히 완성될수 있었다. 이것은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의 형상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며 합법칙적인 구성조직이었다.

사건조직에서 수령의 령도선을 기본으로 하고 인간관계설정에서 수령과 혁명전사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는 구성의 특성은 우선 작품을 이루고있는 매개의 장편소설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주인공의 투쟁선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있는데서 뚜렷이 볼수 있다. 주로 장편소설들의 첫머리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와 접견과 접견에서 받아안게 되는 강령적인 말씀은 작품에서 전개되고있는 주인공의 모든 활동, 사색과 행동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레컨대 작품의 3부와 4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진군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천리와 신갈파에서 정치공작활동을 벌릴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을 관철해나가는 김정숙동지의 활동선을 일관시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구성조직을 통하여 작품은 형상전반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으로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혁명전사의 투쟁선으로 일관시켰다.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주인공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고있는 구성의 특성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와 상봉장면들에 극을 집중시키면서 감정을 끊임없이 양양시켜나가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정숙동지를 접견하시는 장면이 많이는 설정되고있지 않지만 이 장면들은 예외없이 축적되어온 감정이 폭발되면서 사랑과 충성의 감정이 극적으로 엇갈리어 교차되는 감명깊은 극적 장면들로 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도천리와 신파지구에서의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떠나시게 되는 장면이 그러하다. 언제 한번 든든히 입히지도 마음편히 쉬우지도 못하고 내내 어려운 일만 맡겨오시다가 또다시 적후천리 눈보라속으로 전사를 떠나보내시게 되는 장군님의 아프신 마음, 온통 눈가루가 푸실푸실 떨어지는 전사의 옷과 고드름이 달라붙은 전사의 신발, 이 언발, 언땀으로 적후의 수백리길을 헤쳐가야 할 전사의 앞길을 생각하시는 장군님의 통절하신 그 마음...

실로 눈앞에는 수백리 눈보라속을 뚫고온 전사가 있고 적후에는 백색테로의 광란속에서 갈길몰라 조직의 지도를 기다리는 전사들과 인민들이 있는것이다. 순간 장군님의 가슴은 통절한 아픔으로 조여들었으며 가혹하게 들썩워지는 세례앞에 소리쳐 항변하고싶은 격동이 솟구치시였다. 한편 이러한 장군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안으신 김정숙동지의 한량 없으신 그 마음, 어떻게 마련되어온 우리 혁명인가, 어떻게 받들고 모셔야 할 우리 장군님이신가. 어떻게 하면 어렵고 복잡한 임무를 감당하여 장군님의 기대와 신임에 어긋나

지 않게 해낼수 있으며 그이의 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수 있을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충성의 맹세를 다지시어 하루밤의 휴식마저 미루시고 장군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와 같이 웃는 얼굴로 아우성치는 눈보라속으로 떠나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이것은 진정 위대한 사랑과 한없는 충성이 엇갈리고 하나의 정점에서 합쳐지는 극의 극치이다. 이것은 오직 가장 위대한 인간인 수령과 수령의 참된 전사간에만 있을수 있는 숭고한 극의 세계인것이다. 작품은 이처럼 수령과 전사와의 상봉의 모든 장면들을 극적으로 설정하고 바로 이 극적 장면들에서 감정을 절정으로 고조시키고있다. 삼도만에서의 력사적인 첫상봉의 장면이 그러하며 마안산과 동강에서의 상봉장면이 또한 그러하다. 그중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정숙동지께 오빠의 비보를 전하시며 그 슬픔을 금치 못해하시는 장면은 가장 감명깊은 극의 절정을 이루고있다. 작품은 이 잊을수 없는 극적 장면들에서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의 숭고한 충성의 감정을 눈물겹게 개방해보이고있다. 잊을수 없는 삼도만에서의 위대한 수령님과 첫상봉을 언제나 가슴깊이 되새겨보시며 그날의 장군님의 그리운 영상을 그리시는 김정숙동지.

특히는 적들에게 감금되시였을 때 수십번도 더 자신의 인생행로를 총화하시며 장군님의 품을 그리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숭엄하기 그지없다.

사람이 혁명을 하다가 죽는것이야 슬플것도 피로울것도 없는것이지만 아침저녁 손꼽아기다려주실 장군님 앞에 전사의 비보를 전해드릴것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을 금할길이 없어하시며 자신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것은 곧 장군님이시라고 생각하시는 김정숙동지의 그 뜨거운 충성의 마음...

이 감동적인 화폭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혁명전사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정서적으로 감명깊게,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있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는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한결같이 주인공의 형상을 돌구는데 일관하게 복종되고있다. 여기에 또한 작품의 구성상 특색이 있다.

장편소설에는 근 백여명에 가까운 인물들이 등장하고있으며 그들모두는 다 자기의 고유한 형상의 묘를 가지고 뚜렷이 개성화되어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물들은 한결같이 주인공의 형상을 살리는데 복종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우선 작품의 모든 인물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눈부신 혁명활동과 숭고한 품모를 뚜렷이 부각할수 있도록 설정되고있는데서 볼수 있다.

우선 오중흡동지를 비롯하여 리동학, 박두성, 최진, 마영남, 장철구, 최정덕, 박수정, 서영순 등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들과 대원들의 형상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부각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있다. 리금준이 혁명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난의 행군을 중지할것을 사령관동지께 제기드리자고 했을 때 사령관동지께서 일단 결심하신 문제인데 뒤에서 그런론의를 할수 있는가고 그것을 단호히 막아나서신 김정숙동지의 립장을 적극 지지해서 그것을 자신이 막아나서는 오중흡동지, 사령부에 쌀이 떨어저도 김정숙동지께로 달려오고 말끔히 손질해놓은 썬터를 보고도 그것이 그이께서 하신 일임을 대뜸 알아맞추는 사령부의 나 어린 전령병 마영남이, 김정숙동지께서 두고 가신 머리칼깎창을 장군님의 신발에 깔아드리며 어째서 장군님께서 김정숙동무를 먼곳으로만 보내시는가고 오열을 터뜨려 장군님께 언제나 잊을수 없는 너대원에 대한 그렇듯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킨 장철구어머니...

참으로 그들모두는 감격없이, 눈물없이, 잊을수 없는 뜨거운 사연을 안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드러내보여주고있다. 그들의 형상이 아니었다면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김정숙동지의 그 깨끗한 충성심이 이처럼 감명깊게 밝혀지는 못하였을것이다. 그런가 하면 작품에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보다 부녀회원을 비롯한 녀성과 지하공작원들이 많이 등장하고있는것은 또한 주로 유격근거지와 적구에서의 정치공작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김정숙동지의 활동선과 관련되는 인물설정이다. 잊을수 없는 도천리의 조직원들인 강성태와 권용산 그리고 신파매복장의 주창범이, 김산문이들은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을 안고있으며 김정숙동지의 따사로온 손길아래 혁명에 나선 춘옥이, 국금이, 복녀, 금실이, 쌍별이, 방숙이들은 얼마나 깊은 인상을 안겨주는가. 지하공작원들과 부녀회원들의 형상은 능숙하고 세련된 지하공작원이시며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정숙동지의 비범한 품모를 전면적으로 생동하게 형상하는데서 비상히 중요한 역할을 놓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형상하는데서 꼭질에 찬 운명의 주인공들인 분임이, 음전이, 금실이, 지세경이, 채향옥이, 한성옥이, 지세천이 그리고 리금준의 형상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찾는다. 마음에 없는 시집을 갈수도 없고 안갈수도 없어 죽음의 길을 택하였던 분임이, 하여 사람은 이 세상에 뭘하러 태어났는가하는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처음으로 김정숙동지께 던져준 분임이...

그들은 정녕 꼭질많은 운명의 주인공들이였으며 혁명과 반혁명의 갈림길에서 헤매던 불쌍한

인생들이였다. 품어주는 품이 없고 이끌어주는 손길이 아니었다면 분임이는 이미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것이며 음전이와 채향옥은 반혁명에로 떠밀리우고 지세천은 한생을 다하도록 정처없이 황량한 들길을 방황했을것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모두를 따듯이 품어주시고 엄하게 타이르시며 위기일발의 순간에도, 준엄한 혁명의 심판장에서도 한몸을 내대고 그들을 지켜내시여 끝까지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것이다.

작품에는 또한 정대환, 리풍우, 정지천, 태주삼과 같은 민족주의자, 독립운동자,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복잡한 인물들이 등장하고있다. 완고하고 고루한 민족주의사상, 일생의 신념으로 삼아온 그들의 종교의식과 반공사상이 무너져가는 과정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길로 이끄신 김정숙동지의 한없는 도량과 아량, 출중한 혁명가적 품모를 빛나게 돈구어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지어 적의 형상까지도 주인공의 형상을 살리는데 복종시키고있다. 이 형상들은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적파의 투쟁에서의 무비의 용감성과 립기응변의 기지를 생동하게 보여준다.

지어 소설에서는 형상의 뭉이 가장 크고 중요한 혁명일가분들의 경우에조차 그 의의는 그 형상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보다 빛나게 부각하는데 기여하고있다. 일가분들과의 교감이 없이는 김정숙동지께서 지고계시는 그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그토록 감명깊게 그해보이지 못하였을것이며 그이께서 어떻게 슬픔의 바다, 피눈물의 바다를 헤치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게 되었으며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기시게 되었는가를 것처럼 생활적으로 절절하게 밝혀내지 못하였을것이다.

작품에 등장하고있는 인물형상들이 주인공형상에 복종되고있는것은 또한 많은 경우 각이하고 다양한 그들의 시점을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조명해보이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그들의 시점에 비친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그 개성들이 각이한것처럼 다면적이지만 그 모든 각이하고 다양한 시점은 한결같이 그이의 숭고한 품모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초점에 집약되고있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주인공형상의 성공을 담보한 구성의 묘리와 특색이 있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창조에서 이룩한 귀중한 사상에예술적 성과는 끝으로 작품의 철학적 깊이와 형상의 예술적 감동성을 미학적으로 담보한 생동하고 진실한 묘사에 있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는 형상전반을 일관하

고있는 소박하고 진실한 묘사 특히는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 인물의 내면세계를 철학적으로 파고드는 심리묘사와 생동하고 정서적인 서경묘사 등으로 하여 주인공의 형상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담보하고있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생활을 세부화하여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인간과 그 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으며 형상의 철학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이 소설의 세부묘사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우선 작품의 종자와 주인공의 성격을 뚜렷이 살리는데 묘사를 집중시키고있는것이다.

샘터, 머리칼신발갈창, 담배쌈지에 수놓은 진달래꽃에 대한 세부 등은 감정을 조직하고 극을 조성하며 나아가서는 주인공의 형상을 부각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형상적 기능을 놓고있다. 작품의 제2부 《사령부로 가는 길》에서 두번 그려지고 제5부 《진달래》에서 다시 두번 반복되고있는 샘터에 대한 세부는 작품의 전과정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을 지성을 다해 위해드리시려는 김정숙동지의 샘물처럼 맑고 티없이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참으로 진실하고 감명깊게 이야기해주고있다. 충성의 그 마음처럼 깨끗하고 정갈하게 손질된 맑은 샘물, 손질하고 또 손질하고 살피고 또 살피고 지성이 모자라고 미흡한데가 있는것만 같으시여 못내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그 고결한 정신세계에로의 육박, 방불하게 생동하고 금선처럼 섬세하게 묘사된 다심한 심중세계...

이 모든것으로 하여 이 작은 세부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세부로 되였다.

이 작은 세부에는 장군님의 작식에 쓰는 샘물에는 티검볼 하나 있어서는 안될 일로 여기시는 김정숙동지의 맑고 깨끗한 충성심,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호위를 첫자리에 놓고 사색하고 행동하시는 참된 친위전사의 숭고한 모습이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끼듯이 집약되어있다.

작품의 세부묘사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또한 생활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는 가장 전형적인 생활세부를 골라잡고 그것을 깊이 파고들으로써 그 바탕에 깔려있는 생활의 본질과의 의의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생활적으로 풍부하게 밝혀내고있는것이다.

지주 민태설과 박대동의 계급적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담배에 대한 세부, 조선인민의 고달픈 생활을 한눈에 생동하게 보여주는 운곡판산마을의 굴뚝에 대한 세부, 적의 추악상을 그대로 발가보여주는 김석원의 말에 대한 세부 등이 그러하다.

...곧추 올리뻔은 통나무굴뚝, 엇비스듬히 세운 네모난 널굴뚝, 밑굽이 빠진 독을 엮어놓은것, 집

앞에 세운것, 집뒤에 세운것, 가마니를 둘둘 말아 세워놓은것...

하나도 같은것이라고는 없는 온전치 못한 굴뚝들, 어설픈 저녁연기가 그물그물 피어오르는 그 굴뚝들, 그것은 그대로 운곡판판사람들의 고달픈 살림살이였고 불바다속에서 신음하는 조선인민의 수난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축도였다.

작품의 세부묘사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것이 인물들의 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놓고있는것이다.

작품에는 강성태가 권용산에게 부탁한 목침에 대한 세부, 칠봉로인의 돼지, 닭, 개에 대한 세부 등 인물들에게 고유한 개성적 특징을 보여주는 세부들이 적지 않다.

작품은 다음으로 풍부하고 세련된 심리묘사로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공산주의자는 누구보다도 고상한 사상과 풍부한 감정을 가진 참된 인간들이다. 그들의 숭고한 내면세계에 대한 탐구와 해명을 떠나서 형상의 성과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형상방법이 바로 심리묘사이다.

소설은 우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여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해나가는 김정숙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내면세계를 심리묘사 특히는 내면독백을 통하여 깊이있게 펼쳐 보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었던 잊을수 없는 그날의 첫상봉을 몇번이고 되새겨그리시며 충성의 맹세를 다시시는 김정숙동지의 내면독백과 숭고한 세계, 새삶을 찾은 분임이의 행복에 넘친 모습을 두고 한사람의 슬픔만이 아닌 수없는 사람들의 슬픔을 끝없이 체험하게 되실 장군님의 그 숭고한 세계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뜨거워하시는 그이의 내면독백,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력사의 고장 무송의 거리를 거니시며 정든 옛집앞에 걸음을 멈추신 장군님의 그 수많은 추억과 슬픔에 대하여 눈물을 머금고 하시는 끝없는 생각, 공작지로 떠나보내시며 장군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몇번이고 되새기시며 장군님의 명령을 받은 전사가 살아있고 그의 심장이 뛰고있는 한 장군님의 명령은 추호도 어길수 없으며 드팀없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그이의 속다짐 그리고 감방에 갇힌 몸이 되시여서도 수십번도 더 자신의 인생행로를 더듬어보시며 자신께 있어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혁명은 곧 장군님이시고 조국이며 자신의 소박한 생활 그 자체이기도 하다는 가슴뜨거운 생각을 하시는 김정숙동지의 더없이 숭고한 모습이 심리묘사의 심오성을 잘 보여준다.

김정숙동지의 형상 창조에서 심리묘사와 내면독백이 많이 활용되고있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다는 드러내보일수 없고 그 누구도 그 끝을 다 알

수 없는 그이의 한없이 숭고한 내면세계를 제한 없이 펼쳐보여준다. 내면독백은 하나와 같이 뜨겁고 절절하며 극적이다. 여기에 그 어떤 묘사수법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철학적 깊이가 있는 것이다.

소설은 또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세계와의 교감속에서 형상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감동적인것으로 되게 하고있으며 극으로 충만시키고 있다.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세계,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그 세계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고매한 내면세계와의 극적인 교감은 작품전반을 가장 신성하고 고상한 인간의 사상감정인 사람과 충성의 감정으로 차넘치게 하고있으며 감정을 양양에로 이끌어가면서 극을 낳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삼도만에서의 잊을수 없는 첫상봉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 많지는 않으나 언제나 감격적이었던 위대한 수령님과 상봉의 나날에 주고받으신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과 고결한 충정!

실로 작품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더더욱 가슴뜨거워지는 이 숭고한 세계, 위대한 사랑과 고결한 충정이 끝없이 오고가며 엇갈리고 하나로 합쳐지는 한없는 세계를 파고들어 펼쳐보임으로써 형상전반을 끝없는 감명과 극으로 충만되게 하였다.

소설은 또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수많은 인물들과의 인간관계속에서 그들에 대한 그

이의 사상과 감정, 사색의 세계를 다양하고 폭넓게 펼쳐보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인민에 대한, 동지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충만된 김정숙동지의 끝없이 숭고한 인간의 세계를 깊이있게 밝혀내고 있다.

작품은 다음으로 생동하고 정서적인 서경묘사의 솜씨를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생명과도 같은 생동성과 서정성을 보장하는데서도 웅당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작품의 제1부의 첫머리에서 보게 되는 무시무시하고 음산한 밤에 대한 정경묘사,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밝고 명랑한 도천리마을의 아침정경에 대한 묘사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진군하는 길에서 한가슴에 받아안게 된 사랑하는 조국의 모습에 대한 감동적인 화폭들이 그러하다. 생기발랄한 운동감, 서경과 인간정서와의 유기적 통일, 생동성과 진실성이 서경묘사의 특징으로 되고있다.

소설의 서경묘사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거기에 깃든 뜨거운 애국심이다. 그러한것은 특히 못견딜 그리움과 애끓는 사랑의 정으로 그려진 조국산천에 대한 서경묘사에 뚜렷이 반영되었다.

이 모든 사상예술적 성과로 하여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는 충성의 한길에 영원히 빛나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형상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 화폭으로 되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충성의 한길로 이끄는 참된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가사

녀전사 수놓은 무궁화 열세송이

윤영탁

송이송이 꽃수건에 고이 피워서
녀전사 수놓은 무궁화 열세송이
청실홍실 오리마다 녀원을 담아
금수강산 삼천리 지도로 새기셨네

사령부의 불빛을 우러러 한송이
숙영지의 달빛속에 다시 한송이

꿈결에도 그려보신 광복의 봄빛
녀전사는 송이마다 고이 담았네

항일전의 긴긴나날 품속에 안고
혈전만리 헤쳐오신 무궁화 열세송이
녀전사의 그 녀원 길이 전하며
우리 가슴 깊은곳에 뿌리 내렸네

회령사람

장선희

해마다 12월이 오면 나의 마음은 자꾸만 회령으로 달려간다. 내가 나서자란곳이고 일가친척들이 기다려서만이 아니다.

유서깊은 오산덕 기슭에서 해빛같은 미소를 짓고계시는 김정숙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서였다.

정답게 주얼거리며 흐르는 회령천의 물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그이의 인자하신 품에 안기는것 같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는 뜻깊은 환희에 잠기는것이다.

나는 평양에서부터 소중히 품고 온 꽃송이에 조카애들이 하나하나 고른 꽃송이를 합쳐들고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았다.

오각별 빛나는 항일모를 단정히 쓰시고 금시 꽃밭속에서 일어나오시여 우리를 반겨맞아주실 뜻깊은 김정숙동지의 영상을 우러르노라니 그이의 빛나는 한생이 화면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참으로 김정숙동지께서 걸으신 한생은 우리 모든 혁명전사들이 따라가야 할 참되고 성스러운 삶의 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지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숭고한 마음을 안고 대돌에 놓인 꽃다발을 다시 경건히 바로잡은 나는 오산덕을 향해 물결처럼 흘러오는 회령사람들의 대오를 류다른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윽고 나는 조카의 손을 잡고 사진기렌즈앞에 다가섰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나는 그 뜻깊은 자리에서 병사시절의 《고향친구》를 만나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제대된후 그는 언제건설장으로 나는 대학으로 떠났던것이다.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새 초소에 가서도 회령사람의 영예를 빛내이자더니 정말 그의 앞가슴에는 훈장과 메달들이 수두룩했다.

우리는 새삼스러운 감회를 안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신문을 보니 동무들이 발전소를 조업했더구만. ...축하하네.》

나는 그의 손을 다시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는 이젠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겠는가고 건의했다.

《난 오늘 간석지건설장으로 떠나네.》

그의 말에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넨 언제건설장에서 편지까지 하지 않았나. 위훈을 세우고나서 고향에 돌아가서 늙은 부모를 모시겠다구...》

그는 웃으며 조용히 도리머리를 했다.

《부모들이 오히려 집으로 오는걸 반대하더군.》

《그-래? 외아들인 자네를 내보낸지도 오랜데두 ... 보통들이 아니구만.》

《이 회령땅에서 살아오신 부모가 아닌가.》

《!!...》

나는 말문이 막혔다. 회령이라는 이 두 글자에 형언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스며있기때문이었다. 더우기 나를 감동시킨것은 그를 간석지로 가도록 권하면서 한 부모들의 진정이었다.

《젊어서 일할수 있는 나이에 더 일을 많이 해서 나라를 받들어야지 남들이 다 당이 부르는 대건설장으로 떠나는데 너만은 부모를 모시겠다고 집으로 와서야 되겠니? 애야, 넌 언제 어디서나 회령사람이라는걸 잊지 말아라. 어려서부터 김정숙동지의 생가를 이웃하고 자란 네가 아니냐, 소년단입단맹세도 김정숙동지의 생가앞에서 했구, 초소로 떠날 때두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겠다고 결의하지 않았니.》

문득 나의 눈앞에는 력사의 그날, 김정숙동지께서 지나가신 회령의 갈림길이 떠올랐다.

김정숙동지께서 회령을 지척에 두시고 고무산 세멘트공장으로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한없는 격정을 불러일으키며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흘러든다.

《지금 장군님께서 새 조국 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끼니도 휴식도 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장군님을 뵈기전에 고향땅부터 찾겠습니까.》

나는 여기 일을 하루속히 끝내고 평양으로 가서 장군님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강도 일제와의 피어린 싸움을 벌리던 그 기나긴 나날 하루 한시도 잊어본적 없으신 회령땅,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을 혁명의 길에서 잃으시고 일가친척들의 생사여부도 알길 없건만 장군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친위전사의 의무를 변함없이 지켜가신 김정숙동지,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새 조국 건설의 중중첩첩한 난관을 혁명적 수령관의 모범으로 몸소 헤치시며 티끌만한 사심도 없이 걸으신 그 길...

바로 그 길을 따라 나의 친구도 오늘 간석지전설장으로 떠난다.

어찌 그뿐이라, 이 나라의 수천수만의 아들딸들이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를 따라배우며 충성의 한길로 가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정녕 자신의 일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사소한 드림도 모르는 김정숙동지의 그 숭고한 충성심이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속에 뿌리내려 그것이 삶의 초석으로, 기적과 위훈을 낳게 하는 원천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아, 우리 인민의 삶의 길에 언제나 밝은 빛을 뿌려주시며 혁명전사의 본분을 일깨워주시는 김정숙동지! 그이께서 바라시는대로 우리는 해와 달이 다하도록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것이며 대를 이어 충성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리라.

우리들-회령의 아들딸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맹세를 다지며 오산덕을 내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듯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짓고계시였다.

밀영의 봄맞이

한정규

끝짜기엔 물소리 주절주절
밀림엔 새싹이 파릇파릇
밀영의 이른아침
너전사는 남먼저 산나물 캐시네
바구니 가득 봄향기 가득

파아란 참취
빨간 고비...
눈속에서 풀뿌리 캐시던 그 언덕에
얼음 까고 행전을 빨던 그 내가에
봄빛은 잎잎에 어렸네
너전사의 봄맞이 기쁨의 봄맞이

새봄의 첫나물 정히 꺾어서
새벽의 첫 이슬에 정히 씻어서
장군님 진지상을 차려올리면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바구니 가득 지성도 가득

사령부창가에 성에 불리면
밤새 우등불 피워 녹여드리고
장군님 설령을 넘으실 때면
앞서가며 숫눈길 헤쳐드리시던
그 마음에 꽃은 피는가
너전사의 봄맞이 광복의 봄맞이

아, 김정숙동지
장군님 위하시는 이 첫 봄맞이로
너나 없이 가야 할
고향의 봄을 마중하시네
바구니 가득 봄빛도 가득

강산은 빼앗겼어도
빼앗기지 않은 봄
장군님 기쁨으로 꽃필 조선의 봄은
해마다 백두밀영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네
너전사의 봄맞이 조선의 봄맞이

산촌의 새벽에

리덕진

아직은 날 밝기전
새벽도 산촌의 이른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을 털며
다락발을 오르는 소조원처녀야

이 새벽도 이랑우에 물결치는
강냉이 이삭들이 보고싶어서냐
남먼저 새벽길을 걷는것이
하루일과로 익혀진 너의 그 자옥우에
또 하루 새날이 밝아오누나

너의 눈가에 어리는 맑은 미소
이 새벽 산촌의 해빛속에 어려
무르익은 이삭들이
금빛으로 고우나

수고한다고
농장원들 진정 넘친 인사말에
얼굴부터 붉히는 너
새벽바람에 하늘거리는
색날은 꽃수건밑에
너의 고운 눈은 말이 없어도

저기 네가 앞장서 끌어올린 굴포의 물
주절대며 끝없이 속삭이누나
층계층계 산허리를 휘감은
새로 일군 다락발이랑들이 이야기하누나

한해를 하루처럼
아침 해돋이를 벌에서 먼저 맞고
저녁노을을 마지막으로 밝는
너의 마음속 그 진정을
네가 걸어온 그 나날들을...

해마다 농사를 더 잘 지어보자고

발머리에 울리던 쟁쟁한 그 목소리
다정하고 따뜻한 일깨움으로
사람들 가슴마다
향토애의 숨결도 더해주고

오가는 포전에 잡지 못한 몇대의 풀이
그리도 가슴에 맺혀
또다시 이랑을 매여가던 너의 그 모습
가슴들에 꺼질줄 모르는
열정의 불로 새겨준 처녀

농장의 주인이란 그 말의 참 뜻을
사람들 가슴마다 깊이 심어준
불같은 선동원, 새 노래의 선창자
3대혁명소조원

너는 정녕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이 땅우에 생활의 기쁨으로 펼쳐가는
당의 참된 딸

너는 정녕
농장원모두의 심장을
주체의 한숨결로 꿰게 하는
3대혁명의 전위

아, 저기 온 산촌이
네가 추켜든 세폭의 붉은기 날리며
설레이며 일어선다
너의 모습을 안고
너의 사랑
너의 열정
너의 꿈을 싣고
풍년가율이 설레이는구나

인간의 수양을 논함 외 1 편

오영재

밤새워 읽은 책으로만
그것이 쌓여지는것이 아니더라
그 어떤 현명한 교사의 가르침으로
그것이 이룩되는것도 아니더라
인간의 수양은

그것은
남먼저 나서며 적시는 손
남보다 더 많이 묻히는 기쁨과 흠
바른길을 걷기 위해 스스로 택한
험한 진창길이 쌓아주더라

기쁘면 기뻐서
아프면 아파서 잠 못 이루는
밤과 밤들이 쌓아주더라
가슴 미여지는 상실의 고뇌
의지와 인내를 시험하며 넘는
힘겨운 언덕과 고비
믿음과 배반의 사무친 교훈들이 쌓아주더라

인생의 수업은

졸업식이 없고
순간마다 시험의 연속
그 시험은 량심과 시간이 채점하거니

실패에 낙망하지 말고
성공에 도취하지 말라
행운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는 절망이 아님을
생활은 일깨워주고있지 않는가

쉽게 얻는 영예
사리와 공명을 바람이 없이
근면한 노력과 수양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곳
앓고 서야할곳을 바로 찾게 될
그러한 때만이
그러한 때만이
마땅히 쌓아야 할
인간의 수양, 인격의 높이에서
참다운 충성의 꽃도 피워갈수 있으리

-품자환상담시-

비도덕인을 데려가는 집

이것은
어느 한 공장에서 있는
한 젊은 현장기사가 체험한 일

하나의 중대한 연구과제를 안고
3년...
풀리지 않는 매듭을 안고
고심하며 또 3년...

제 힘으로 이제 더 풀수 없어
그만 손뎁이 풀리고말았을 때
마침 현장에 내려왔던
모교의 관록있는 한 교수
성심으로 제자를 도와
드디어 성공의 열쇠를 쥐여주었네

공장에 경사가 생겼네
온 나라의 과학계에까지

과문은 크게 일어
취재수첩을 펼쳐들고
촬영기를 번쩍이며
날마다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네

성공에 도취된 그 현장기사
그만 그를 도와준 교수마저 밀어던지고말았네
공정하게 교수의 공로를 말하기에는
차레진 영예가 너무나 황홀한것이였기에

사진과 함께
신문에 그 이름이 크게 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보내오는 열렬한 축하에
손이 아프기까지 한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네

...정갈한 은발에
근엄한 눈길을 지닌 한 로인이

문득 그앞에 나타났으니
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량심의 상징》이라고 했네

불현듯 자기몸이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며
《량심의 상징》을 따라
어느 문앞에 이르니
문패에 쓴 검은 글자가 눈에 띄었네
《비도덕인들의 집》

이 세상의 한줄기 빛도 흘러들지 않는 집
거기엔 있었네
퇴물을 바친 사람, 받은 사람
나라에 올리는 통계보고에
공을 하나 더 친 공명주의자
웃사람에게 마구 대들고
너성을 심히 모욕한 젊은이들
식당의 뒤방만 체면없이 출입한 사람들
등등...

둔중한 음향을 울리며
문이 닫기는 소리에
그날 밤의 꿈은
다행이도 여기서 깨었네

백발로인의 방문은
다음날 밤에도 있었고
그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꿈속에 《출근》하여

또다시 끌어내갈 때
그는 막 울고싶었네
모든것을 솔직히 자백하고싶었네

낮익은 문이 또 열리고
거기에 있는 《동료》들의 눈길이 그에게
쏟리는데
그에는 아랑곳없이
머리를 마루에 박은채
무릎꿇고 앉아있는 한사람이 있었네

그만 놀라움에 소리칠번했으니
그는 분명 자기를 도와준
모교의 그 교수였네
그도 무슨 죄를 범했기에
이런 집에 끌려왔단말인가

못박힌듯 방안에 선채
의아함에 두리번거리는데
량심의 상징인 그 할아버지의 말이
반울림하는듯한 웅글한 목소리로 울려했네

-명심해 들으라, 그 사람은
수천명의 훌륭한 제자를 키워낸 이름높은
교수였지만
그중에 한사람
몸쓸 제자가 끼워있는 그것으로 하여
그도 너와 함께 《죄인》이 되었다

소나무

리진화

푸른 아지 드리우고
눈속에 묻혔어도
네 그리 곳곳이
눈바람 막아섰음은

아마도
다가올 따뜻한 봄날
네 아지에 찾아들
새들의 노래소리 반겨 기다리는것이리

김매던 농장의 젊은이들
사랑을 속삭이며
네 기슭에서 땀들일
그날을 네 간절히 바라라는것이리

정다운 아이들
네 허리잡고 감돌며

술레잡이 할 고향의 언덕에
한껏 향기로 유정함을 더해줄 날
네 다 안고있기때문이리

그때문이리 소나무야
봄날의 노래
여름의 정서
가을의 향기
네 다 안고있기에
눈바람 설한풍 웃으며 이겨내리

나도야 너처럼
조국이 가닿을 미래의 언덕에
마음 두고 살리라
보다 젊어질 래일을 안고
오늘에 살리라

법칙

-한 로탄부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제2회)

정창윤

모범탄부의 영예게시판에 자주 나붙곤하던 리현모가 대학에 입학하여 떠나게 되었다.

하늘 푸르고 바람 맑은 날이었다. 탄광 사로청조직은 《중탱크》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혁신공의 리현모를 대학에 추천한것이다.

소대전원이 정거장에 나가서 현모를 바래왔다. 일이년사이에 몰라보게 번진 현모였다. 키는 더 커지고 가슴도 어깨도 쇠덩이처럼 단단하게 퍼졌다. 돌발에 굴리던 가시발에 굴리던 깨질데나 찢어질데 하나 있을상싶지 않게 근육투성이 체격이었다.

영양제식당의 식모인 나의 처 우일너는 현모를 보내며 울었다. 현모도 울었다. 그동안 오랍동생을 돌봐주듯한 일너고 누님처럼 따르던 현모였다.

《소대에서 일을 잘한것처럼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

일너는 기차가 떠날 때까지 현모곁에 붙어있었다.

《넌려 말라요.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일너는 따라가며 울었다.

《뭐나 필요한것이 있으면 지체 말고 알려라. 방학때면 꼭꼭 와야 하구.》

《매일 누님을 생각했었어요. 방학때면 꼭 오구요.》

사실 대학에 다니던 전기간 현모는 방학철을 우리에게로 와서 보냈다.

해마다 달라져서 오군하는 현모였다. 상급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방학기간에 와있으면서 하루도 휴식의 날이 없었다. 굴진이나 채탄막장에 들어가 붙어있으면서 예전처럼 일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다. 그리고 나에게 《충고》까지 하는것이였다.

《형님도 통신학부에 입학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중대장으로서 (그때는 내가 굴진중대장을 하다가 채탄중대장으로 옮겨앉아 일할 때였다.)선진적인 작업조직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라 탄광들이 지금처럼 굴진하고 지금처럼 채탄할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락후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형님은 고속도굴진이라는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암벽돌파에서 중심적 타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채취

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과학자들속에서 연구되고있는지 압니까? 배워야 합니다. 형님은 지금 탄광에서 첫손꼽는 중대장이지만 앞으로는 밀리우는 처지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지식이 없으니깐요.

앞으로는 로력이 아니라 기계가 일을 합니다. 형님처럼 냅다 밀면서 주먹힘을 믿던 시절은 끝장나고있습니다.》

《...》

현모의 말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지만 나를 기쁘게도 해주었다.

《형님의 가슴속엔 위대한 수령님과 고마운 당에 대한 충성심외에 다른거란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저는 잘 압니다. 머리속엔 석탄을 많이 켤 생각뿐이구요.

그렇지만 인젠 그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과학적인 계산에 기초한 과학적인 방법이 탐구되어야 보다 많은 탄을 캐낼수 있습니다.》

현모는 방학철이 끝나서 돌아갔지만 나는 우울한 기분이었다. 이 우울이 무엇때문인지 잘 아는 일너도 나를 대학으로 떠밀었다.

《현모 말이 옳아요. 당신도 통신학부에 다니자요.》

그해부터 나는 통신학부 우리 탄광 분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현모는 졸업학년이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와있었다.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전성교라는 학급동무와 함께 왔었다. 암전한 대학생이었다. 현모와는 살색으로부터 말투도 달랐고 행동거지도 판판다른 사람이였다. 현모가 중탱크라면 성교는 색칠에 때하나 묻지 않은 승용차같은 사람이였다. 탄광에서 자란 현모처럼 막장을 제집처럼 자유롭게 들락거리지 못하였다. 도시에서 자란 이 청년은 실습로동을 매우 서툴게 하였다. 막장로동을 신비하게 생각하는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무엇때문에 이런 청년이 한생을 채탄막장이나 굴진막장과 련결시켜야 할 채굴공학을 전문하게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일이었다.

《저 사람은 도련님갈네.》

나는 현모에게 그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그건 형님이 걸만 보고 하는 소립니다. 성교는 무섭게 파고들면서 무슨 일이나 끝

장을 보고야마는 성입니다.》

실습 중간기에 와서는 성교가 나에게 다른 영상으로 비쳐지기 시작하였다.

초기엔 동발목의 얇은대加里 하나 맵시나게 따내지 못하던 사람이 도끼질과 톱질을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다시 볼 정도였다. 자기 손으로 동발을 말쿠어서 자기 손으로 세운 다음 그 동발이 집을 받아서 찌부러들거나 형태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관찰을 계속하였고 거기서 얻어진 자기 결론 또한 확신성있게 적어넣었다. 어느날 그가 자기 실습일지에 적어놓은것을 가지고 현모와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교환하는것을 들은바 있다.

성교 ... 실습기간 나에겐 아주 명백한 견해가 생겼어. 그건 무연탄 채굴에서는 동발을 혁신함이 없이는 세기적 랍후를 면할수 없다는걸세.

현모 ... 동무는 실습기간에 명백히 알게 되었지만 나는 벌써 이 탄광에서 채굴공으로 있을 때부터 그것을 알게 되었네. 무연탄 분야에서는 세기적 현상이지.

성교 ... 이 세상엔 동발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이 수없이 많지 않나?

현모 ... 많지. 하지만 그들은 죽는 순간에 잘못 선택한 과제로 하여 자신들의 일생이 령으로 끝난데 대하여 통탄들 하지.

성교 ... 그런줄 알면서도 동무는 동발연구에 한생을 바치기로 결심했구만.

현모 ... 그걸 동무가 어떻게 알아? 아직 난 그 결심을 누구에게도 공개한바 없는데.

성교 ... 우연한 기회에 동무의 실습일지 여백에 쓴 <나의 결심>을 읽었지.

현모 ... 뜻은 그렇지만 성공의 날을 보겠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나의 온 넋을 바쳐 동발을 연구하겠네. 일생의 전부를.

그후 현모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나와 로친네는 물론이고 그를 알고있는 탄광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었다. 그러나 현모는 과학원 연구소에 떨어졌다는 섭섭한 소식이 전해왔다. 그대신 도련님처럼 얌전한 전성교가 우리에게로 배치되어왔다. 성교는 현장기사라는 쉽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는데서부터 탄광생활을 시작하여 오늘의 탄광기사장이라는 높고 무거운 직책을 맡는데까지 이르렀다. 이 기간 성교의 성격에서는 도련님같은 흔적이란 찾아보기 어려울 만치 사라지고 년간 백만톤을 너머 다루는 기업소의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일군다운 당당한 풍모를 지니게 되었다.

현재 성교는 석탄전선의 1선 지휘관들중 손꼽는 사람들중의 한사람으로서 조직력에서나 지도능력에서나 이름이 아주 높다.

갈람하던 몸매, 해맑은 얼굴, 생각 많고 알고싶

은것이 많아 책들을 끝없이 읽으며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묻곤하던 그런 실습생 전성교는 인제 없다. 필요할 때엔 사람들을 돌격으로 내몰면서 큰소리로 울렀다메기도 하고 탁상을 두드리며 격조높은 연설도 장시간 할줄 아는 그런 전성교가 현재는 있을뿐이다.

하지만 그와 한낱한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원 연구소의 연구사로 된 리현모의 그후 발전이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무엇인가 끝없이 탐구하고있다고는 하지만 실패만 거듭한다는것이였다. 대학졸업후 초기엔 문안편지도 오고갔지만 지금은 그조차 없었다. 팬찮은 집에 장가들어서 먹고사는 문제같은데는 근심걱정이 없고 성공한 창조물들은 이렇다할것이 없지만 꾸준한 연구와 책더미속에서 학문탐구를 열정적으로 하고있어 지식의 호수처럼 인정받고있다고 하였다. 현모의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란 이런 일 저런 일로 덕향탄광에 오르내리며 출장용무를 보는 중앙급이나 과학계통의 사람들이였다. 그들중엔 대학생때 내밀에서 실습의 한때를 보낸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갔으며 3년이 흘러갔다. 또다시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나와 로친네는 현모가 그 무슨 보람있는 창조물들을 만들어 내리라는 확실한 기대와 믿음 속에 살면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런 소식은 오지 못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것이 어떤건지 알수는 없지만 《4각형동발》이니 《이동식동발》이니 하는것들을 연구해냈지만 실효성이 없어 파철더미에 던져버리고말았다는것이다.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섭섭하였다.

섭섭하였을뿐아니라 그를 도와주지 못하는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다른거라면 몰라도 동발연구이고보면 나도 도와줄 힘이 있을상싶어 한두번 현모에게 편지를 써보내었다.

《자네가 실패만 거듭한다니 가슴이 무척 아프네. 연구소에만 박혀있지 말고 우리에게로 와서 연구를 하게. 그러지 않아도 여기엔 많은 과학자들이 와서 연구사업들을 하고있네. 자네가 와서 동발연구를 하면 나와 내 로친네는 자네의 손발이 돼주겠네.》

그때 회답은 제때에 왔다.

《고맙습니다. 형님, 누님도 무사하겠지요? 때가 되면 저자신 그리로 가서 형님의 도움을 받아 연구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처지로서는 현지에 나날 자신의 준비가 되어있지 못합니다.》

또 몇년이 지났지만 현모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해에 나는 중앙에서 열린 전국 석탄관계부문 일군들의 회의에 올라가는 우리 탄광대표단들중 한사람이 되어 평양으로 가게 되였

다.

회의를 필하고 떠나는 날 밤차를 타게 되어 낮 시간에 틈을 좁 얻게 되었다. 그래서 현모를 찾아갔었다. 나로서는 난생처음 가보는 과학원 연구소였다. 현모는 들전바대로 책무지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방안에 앉아있었다. 현모의 책상우엔 여러 나라 글로 된 책들과 잡지들과 기술신문들이 널려있었는데 그 출판물들엔 별의별 모양을 한 동발들과 채탄기계들이 찍혀진 색사진들이 눈에 부실 지경으로 펼쳐져있었다.

내가 그 동발들과 채탄기들과 굴진기들을 정신 없이 들여다보자 현모는 웃으며 말하였다.

《이건 다 우리 나라 무연탄 탄광들의 실정엔 맞지 않는것들입니다.》

《그럼 우리 실정에 맞는 동발들이나 기계들은 어데 있나?》

《우리들자신이 만들어내야지요.》

순간 나를 만난 반가운 기색이 피어있던 현모의 얼굴은 침울한 빛으로 바뀌어졌다.

《그래 자네 연구사업은 잘되나?》

《...》

현모는 대답을 피하였다. 그리고는 잠시 창밖 쪽에 시선을 던졌다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다.

《갑시다. 형님, 우리 집에 가서 점심을 먹읍시다.》

현모네 집은 락원거리에 있었다. 아빠트의 5층이었는데 마침 현모의 처는 휴가중이어서 집에 있었다. 어느 중앙기관에서 처장인가 국장인가 한다는 현모의 처는 내가 누구라는것을 알게 되자 성의껏 식탁을 차렸다. 나와 현모가 식탁에 마주앉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 점잖고 떼절이 밝으며 잘 생긴 부인은 얼마쯤 떨어진곳에 앉아서 두사람사이에 오가는 말들을 귀담아들었다.

《들러보는 소문으로 보나 오늘 와서 내 눈으로 보나 자네 일이 시원치 않은것 같네. 보파리를 싸들고 내려오라구. 우리한테 와있으면서 동발을 연구해보자구. 자네 그동안 많은 학문을 쌓았을 것이니 인젠 갱속에 들어가 살면서 동발을 연구해낼수 있지 않을까?》

나는 벌써 마흔다섯살이나 되어 이마에 주름이 간 현모의 얼굴을 서글픈 눈으로 건너다보았다.

《부끄럽습니다. 형님, 연구사가 되어 동발을 연구한지도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무엇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으니...》

《꼭 그런것도 아니네. 자네가 아직도 동발연구를 계속하고있다는것만 해도 대단한결세.》

나는 현모를 위로하고싶은 마음도 마음이지만 그가 수많은 학자들이 일생을 바쳐 연구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새로운 동발연구를 계속하고있는 현모에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칭찬을 해주고싶었

다.

《실은 몇번이나 연구분야를 옮길 생각도 해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하지만 당앞에 닳을 들 수 없을것 같아서 그런것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잠자코 앉았다가 내 국사발이 식어지면 다른 국사발로 바꾸어들여오곤하던 현모의 처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말끝에 한마디 참견하였다.

《이러다가는 학위 한번 가져볼것 같지 못해요. 동발연구를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손을 떼엿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과제들을 붙들었거든요. 다들 학위와 학직들을 얻었지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만은 오늘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올린다고 해서 남편의 출세나 원하는 녀성으로는 이해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말은 공연한 로파심이였다. 이집 주부는 학위와 학직에 대하여 말하였고 승산없는 탐구의 길에서 제때에 물러난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였지만 결코 그런 부류의 사람들처럼 자기 남편이 약삭바르게 살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원망이 어조에서나마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남편이 한일 없는 자신을 두고 내앞에서 주눅이 드는것 같아서 그것을 변명해주는 마음이 엿보였을뿐이였다.

나는 이 집 주부의 그 마음이 몹시 고맙게 생각되었다. 또한 저 멀리 덕향산 골짜기에서 온 나같은령감을 친시형처럼 각듯이 레를 지켜 대해주는것이 그 못지 않게 고마왔다.

《그러니 현모인들 오죽 힘들겠소. 일도 자리나지 않는 일이 더 힘든 법이요. 갱안의 일도 남들이 물러나버린데 가서 해보면 몇갑절이나 어렵습니다. 현모의 탐구사업이 지금 그렇겠지요.》

나는 현모나 현모의 안해에게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고 이 집을 나서고싶었다.

《...》

현모는 나의 이런 심정을 들여다보고 더욱 서글퍼지는듯한 얼굴색이였다.

《아무때곤 좋으니 나같은 사람의 도움이라든 필요될 때면 찾아오든가 알려주게.》

《고맙습니다, 형님. 그러지 않아도 지쳐서 주저앉았다가도 형님 얼굴이랑 덕향사람들의 얼굴이랑 떠오르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곤합니다.》

그날밤 현모네 부부는 정거장에 나왔고 차칸에까지 올라서 기차가 떠날 때까지 함께 앉아있다가 들어갔다.

《누님이 몹시 보고싶습니다. 제가 자주 누님생각을 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아직은 동발하나 변변한걸 연구해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좋은 성적을 보일수 있는 동발을 연구해낼거라고 해주십시오. 장차 그 무슨 팬찮은 일을 해낼수 있는 일군

이 될것을 바라서 누님이 저에게 바쳤던 성의를 생각할때면 눈물이 나군합니다.》

차칸의 천정에 매달린 희미한 전등빛에 비쳐진 현모의 눈엔 진정 물기가 뿌연다.

《로친네도 과학사업이 어렵다는것쯤은 아네. 영양제식당 주방책임자로 있어. 로동계급속에서 살고있으니깐 자신도 로동계급화되였네. 당정책 학습도 잘해서 토론이나 할 때 보면 기가 딱 막히네. 로친네는 자네가 아직껏 성공하지 못한걸 섭섭하게 생각은 하네만 그보다도 동발연구가 힘들다고 쉬운곳으로 옮겨왔을가봐 걱정하네. 그런 소식만 오면 로친네는 통곡할걸세. 자네도 아는 것처럼 우리 로친네야 여기 가 붙었다 저기 가 붙었다 하는걸 제일 미워하는 사람 아닌가.》

기차가 떠나겠노라 고동을 길게 울릴 때 현모네 부부는 나하고 헤어졌다. 기차가 한동안 달린 후에도 나는 눕고싶지 않았다. 본시 나는 침대간 같은데 누워서 누구와 말 한마디 주고받음이 없이 여행하는걸 좋아하는 성미가 아니다. 이번엔 현모의 처가 나를 위해서 침대표를 산것 같아서 거절하지 않은것이다.

건너편에 앉은 손님 역시 눕지 않고 앉아있었다. 얼핏 보면 30을 갓 넘었을 녀성같지만 착실히 보면 마흔다섯쯤은 되었을것 같은 점잖은 부인이다.

앉음새로 보나 온몸에 걸친 옷가지들로 보아 본인이 대외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외교관의 부인이라는 짐작이 가게 하는 미인이다.

이 녀손님은 기차가 평양정거장에 머물러있을 때 자기 건너편 자리에 나같은 촌령감이 자리잡자 정중한 표정으로 바라보고있었는데 뒤따라 현모부부가 따라 올라서 내곁에 앉으니깐 크게 놀라는 눈치였다.

처음엔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니 그것이 실례로 된다고 생각했던지 차창밖으로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러면서도 우리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말들을 주의하여 듣는것이 완연하였다.

기차가 떠나겠노라 기적을 몇번 울리었을 때 현모부부는 내리고 나 혼자 그 손님과 마주앉게 되였다.

기차가 평양을 떠나 퍼그나 달리었을 때도 부인은 조심스럽게 몸가짐을 하고 앉아있었다.

나는 나이 많은 남자를 앞에 놓고 놀기가 거북해하는것 같아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었다.

《누워서 편안히 가십시오. 나는 본시 기차에서 눕는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यो. 그러니 개의치 말고 누우시우.》

《관심을 돌려주어 고마워요.》 맑고 채롱채롱한 방울소리같은 목소리이고 더할나위없이 세련된 레절표시를 할줄 아는 녀자다. 그러더니 웃으며 묻는것이였다.

《덕항에 계시지요?》

뜻밖이였다. 첫순간에 이 녀자가 나하고 말이 통하기를 기다리고있었다는것이 분명하게 알렸다.

《그걸 어떻게...》

서슴없이 거의나 확정적으로, 그것도 내가 누구라는것을 아주 잘 알고있는 녀자라는 느낌을 받아서 나는 얼마간 당황해지기까지 하였다.

《전 아버님이 어떤분이라는걸 잘 알고있어요.

그전날 현모동무에게서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요?!》

《...》

나는 놀라고 부인은 다소곳이 눈을 아래로 내려짚었다.

《그럼 현모를 잘 아세요?》

《저는 현모동무를 알고있지만 현모동무는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할수도 있어요.》

《함께 공부했던가요?》

《대학은 같았지만 학년은 달랐어요. 현모동무는 저의 상급생이였어요.》 내가 묻는대로 대답하는 부인은 성품이 매우 정직하고 또 소탈하였다.

《그렇지만 얼굴들은 서로 알겠는데...》

나는 정거장에서 현모가 이 부인을 전혀 몰라 보던것이 이상스러웠다.

《세월이 흘렀으니깐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군요. 제 용모도 많이 변했으니깐요.》

부인은 무엇때문인지 낯색이 붉어지기까지 하였다.

《현모가 내 이야기를 동무한테 했단말이지요?》

《저한테 한것이 아니라 전교 학생들앞에서 했어요.》

《...》

현모가 전교 학생들앞에서 내 이야기를 했더니 리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내 표정에 의혹의 빛이 나타났다.

《그해에 대학에서는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현모가 내 얘기를 했는가요?》

《아버님, 이야기를 아주 감명깊게 했어요.》

부인은 자기의 대학생시절에 그렇듯 인상깊게 새겨졌던 그 웅변대회와 거기서 상급학년의 남학생인 현모가 열렬한 목소리로 자신의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 달성하려는 희망과 포부를 말하던것을 잊지 않고있었다.

...나는 우리 나라의 탄광들에서 조상전례로 사용하고있는 제형외태 동발들을 없애고 생산성이 높은 새형의 동발들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매우 어렵고 또 어려운 목표로 되는 연구과제이지만 끝없이 탐구하고 또 탐구하겠습니다. 탐구하고 또 탐구하다가 내 대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들에게 물려주어서라도 기어 이 해내고야말겠습니다.

나를 참된 로동계급이 되는 길로 이끌어준 덕향탄광의 오성림소대장을 비롯한 많은 탄부들이 나를 대학으로 보내면서 바라는바가 그것이었고 나 또한 그들앞에서 이것을 맹세했더랬습니다. 나는 이 맹세를 영원히 배반하지 않을것입니다....

《그후 저는 교내구역에서나 기숙사복도에서 현모동무와 길어짐을 하게 될 때면 진심으로부터 말을 주고받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기앞에 것처럼 어려운 과제를 제기하고 탐구의 길에 나선 현모동무가 영웅처럼 생각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만 그랬을뿐 그런 기회는 좀처럼 얻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사이 현모동무는 대학을 졸업하였고 뒤따라 1년후엔 저도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

나는 이 점잖은 부인이 현모에 대하여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고 또 좋은 감정을 품고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가 고맙게까지 생각되었다.

《대학 졸업후에도 현모동무가 새형의 동발연구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매우 기쁜 마음이였어요. 그러다가 저는 외교관과 결혼하게 되어 유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종종 조국에 다녀갈 기회가 생기면 어째서인지 현모동무의 연구성과가 알고싶더군요. 그때마다 현모동무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탐구를 계속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가 숙여졌어요. 학생시절의 맹세를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현모동무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 사람들중의 한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나는 순간 그 부인에게 감동되어 현모의 형님 자격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세월은 그후에도 오륙년이나 흘렀다. 하지만 현모로부터는 좋은 소식 한장 날아오지 않았다.

《그 사람도 인젠 50고개에 들어서지 않나요.》

로친네가 종종 현모가 생각날 때면 슬픔이 짙게 깔린 우려를 나타내곤하였다.

《백살이면 어때? 죽는 날까지 연구하고 또 해야지.》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나역시 마음 한구석엔 현모의 얼굴이 어둡게 자리잡고있어 항상 무거웠다.

그랬던 현모가 드디어 이 세상에서 아직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고 만들어보지도 못했던 동발을 탐구하여 실험실 연구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현지시험을 하려고 한다.

나는 그것이 어떤것인지 시각을 다루어 알고싶었던지라 집에 들어서서는길로 모자도 벗지 않고 읽기 시작하였다.

먼저 펼쳐든건 현모가 탄광기사장에게 보낸 편지였다.

...나의 라선형 강성 쇠동발이 드디어 실험실조건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제는 현지에서 시험채탄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네 탄광에서 나의 시험조건을 보장해주리라 믿음이 있어 이 글을 보냅니다.

나에게 시험채탄장과 V 형강동발 100미터분을 해결해준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동발제작도 함께 해주어야 하고 시험채탄작업반도 하나 조직해주어야 할것입니다.

기사장이라는 직책이 갖고있는 권한으로 한 과학자의 연구사업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내려먹이지 못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탄광일군들에게 나의 연구사업을 방조해주는 데 동의하도록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라선동발에 대한 학계의 반응상태는 반신반의입니다. 이제 나의 현지시험이 성공함으로써 학계의 완전한 인정을 받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의 라선동발에 대한 도해집을 몇권 함께 보냅니다. 좋은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방 한복판에 올방자를 틀고앉아서 단숨에 현모의 편지를 읽고난 나는 담배를 한대 피워물고 도해집의 첫장을 번졌다.

첫 장엔 단 한줄의 설명도 없이 라선형 강성 쇠동발의 생김새만 그려져있었다. 스프링 감김새처럼 라선형을 이루면서 구불구불 뻗어나간 길다란 V 형강의 쇠동발이 립체감을 주면서 누워있었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동발이 하나의 턴벨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의 뇌가, 다름아닌 현모의 머리가 이런 동발을 생각해냈다는것으로 하여 자신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이런 형태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것이 아닐수 없었다. 나의 짧은 지식으로도 많은 환상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동발형태가 있었다는것을 알고 있다. 내가 보았던 그 환상동발들의 그림들중엔 물론 놀랄만한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환상하기를 즐기는 사람들마저도 현재의 제형동발형태로부터 수백리밖으로까지는 뻗어나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모의 동발은 오늘의 제형동발로부터 수천리밖으로 달음쳐나간것이다. 수천리밖으로...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로...

나는 두번째 장을 번졌다. 두번째장부터는 여러페이지에 걸쳐 아무런 그림도 없었다. 그대신 라선동발에 대한 설명이 썩여져있었다. 설명문은

학술적인 서술이 아니었다. 통속문으로 되어있었다. 틀림없이 현모는 이런 도해집을 여러권 만들어서 전문가들뿐아니라 비전문가들도 라선형 동발을 이해하도록 하려고 한듯하다. 목적은 라선형 동발을 완성하기 위한 현지시험을 진행하는 데서 광범한 계층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인듯싶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무연탄 캐기에서 홀애비 외태동발을 세우면서 석탄속으로 들어갔다. 작업장은 정면넓이의 막장뿐이었다.

여기서 선산들은 곡괭이질을 하였고 후산들은 삽질을 하였다. 동발은 예로부터 나무였다. 그 후에 철로도 세워보았고 세멘트로도 세워보았다. 하지만 나무도 철도 세멘트도 례외없이 짐에 눌리워 자체의 높이를 유지할수 없었다. 따라서 갱도유지기간은 매우 짧을수밖에 없었다. 나중엔 허리조차 펴수없어 기여다니다가 눈앞에 탄들이 깔려있는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물어버린채 나올수밖에 없었다. 그랬지만 이 현상은 오늘까지 유일무이한것으로 되어있다. 이 제한성은 무연탄생산에서 생산능률과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다른 형태의 동발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조상전래의 소원이기도 하였다. 이 소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서양의 연구가들과 고금에 걸친 많은 과학자들이 리상적인 동발을 만들어보려고 일생을 바쳤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다할 동발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탄캐기란 결국 탄부들이 무엇에 의지하여 어떻게 탄맥속으로 들어가며 들어가는는 어떤 방법으로 탄을 뜯어내어 어떤 방법으로 갱밖에 끌어내는가 하는것인만큼 동발은 석탄생산에서 그 시작으로 되며 과정으로 되는것이고 또 결속으로 되는것이다.

동발은 탄부들의 집이며 생명이며 채취물이고 또 생산계획이라고 말할수 있다. 즉 동발-이것은 석탄인것이다. 우리 나라는 오늘 장성하는 인민경제가 무연탄을 끝없이 요구하고있다. 그렇지만 석탄전선은 그 요구를 질량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있다. 우리의 석탄전선이 장성하는 인민경제의 요구에 힘들게 따라가고있는 요인들은 물론 많은것으로 설명할수 있다. 그러나 그중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동발혁신을 하지 못한데 있다. 채래식동발로 전진하여 한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매달려 탄을 뽑아내다가 퇴각하는 방법으로는 조국의 현대산업과 도저히 발을 맞추어낼수 없는것이다. 라선형 강성 쇠동발은 바로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고 동발이 전개된 전체 면들에서 봉괴식채탄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이 새형의 동발은 현재 채굴갱도 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기 탄폭을 다 처리하지 못하

고있는 치명적인 약점도 극복하고있다. 라선형 동발은 채굴갱도를 전 탄폭구간에 마음대로 배치할수 있을뿐아니라 그 갱도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유지할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자기 특징을 갖는것이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라선형 동발은 우리에게 채취률의 최저계선을 80%로 담보해주고 있다. 메터당 출탄량에서 현재의 2.5배~3배라는 실험실적 계산수치가 기록되었다.

라선동발과 굴진과의 호상관계를 보면 채취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굴진을 여유있게 선행시킬수 있다는것이 증명되었다. 레컨대 6만톤의 석탄을 생산하는데서 (어느 한 탄광의 연구자료에 한한 것이므로 아직 일반성을 떠는것은 아니다.) 현재의생산실적에 비추어 963메터나 되는 갱도를 절약하게 된다. 만일 라선형 동발이 도입되면 굴진을 채탄에 선행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정확히 관철될수 있다.

다음장부터는 라선동발의 한테를 독립적으로 떼내어 그 구조분해도를 그리고 약간의 설명들을 달았다. 라선동발의 한테한테는 편결되면서 탄맥의 주향방향을 따라 필요한 정도의 거리까지 전개고착되어 갱도를 유지하지만 그 한테한테는 다시 4개의 토막으로 조립된다. 그 토막토막들은 로출된 핀으로 구조물을 이루게 되어있다.

마지막 폐지에서 현모는 라선형 강성 쇠동발이 기초하고있는 학문적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오늘까지 세계는 탄층안에 들이는 동발은 다 가축성이어서 침하되거나 줄어들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라선형 강성 쇠동발은 채굴갱도를 오래동안 유지해야 하고 또 작업단면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조건에서 그 반대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었다. 즉 우리 나라 무연탄의 연약한 특성을 리용하여 동발자체가 가축되는것이 아니라 석탄자체가 가축되어 흘러나오도록 한것이다. 《현지에서의 시험으로 실내 실험결과를 재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한줄을 더 첨부하였다.

나는 마지막 폐지를 읽고는 다시 첫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하였다. 그런후 혼자서 무릎을 치면서 소리질렀다.

《그래, 그래. 그럴듯해. 이건 대단한 발명이다. 만일 현지시험에서 성공하면 그때는 현모가 우리나라의 석탄전선에 위력한 신형무기를 준것으로 된다.》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던 로친네가 내 목소리를 들었던지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인데 정신나간 사람처럼 혼자소리를 하우?》

젊은 녀자들에게 영양제식당의 주방책임자 자리를 넘겨주고 집에 들어온지 1년이 되는 로친네

다. 그때부터 집안살림에 허를 찌만큼 극성이다. 부엌세간으로부터 퇴방마루까지 기름기가 찰찰 흐르게 닥달질을 하는가 하면 돼지, 염소, 양, 개, 닭을 치노라고 언제 한번 오금을 찌고 설 때란 없었다. 그동안 우리 집 뒤마당은 그 무슨 종합 목장비슷해졌다.

년령퇴직을 한 로친네가 아직도 썩썩한 젊은것들보다 못지 않게 힘도 세고 욕심도 많았다.

하지만 빈털터리 나에게 보따리를 싸이고 와서 살림을 시작한 날부터 영양제식당의 질벽거리는 바닥에서 물질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것을 생각하여 그 《극성》을 나무람하였다.

인젠 먹을것, 입을것이 변변치 못했던 전쟁직후가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것이였다. 그래서 한마디씩 하면 오히려 제측에서 의견이 있어하였다.

《아니 령감더러 돼지를 맥이라 하우 염소새끼를 끌고다니라구 하우. 오금이 성하면야 할수 있는것 다해야 하지 않소.》

《로친네한테 있는 리기주의를 비판하는거야. 아직도 장마당에 앉아있을 때처럼 자본주의사상이 있단말이요.》

《뭐라구요? 자본주의사상... 아유 기가 막히는구려. 그제 어느 고망년때 일이라구 외우는거요. 아무리 제 로친네라구 해도 그렇게 마구 두들겨 패면 돼우?》

《됐어, 됐어. 이젠 비판 한마디 하면 열마디 반박을 하니...》

사실 로친네로 말하면 인제는 당당한 로동계급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탄광사정을 아는데서도 나보다 밝은것이 많았다. 출입이나 안면도 넓었다. 탄광생활의 한복판이나 다름없는 식당에서 치우다나니 모르는 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갱들의 막장사정도 알았고 탄광후방부서들의 공급사정도 잘 알았다. 거기에 눈치는 꽤 빨라서 내가 퇴근하여 밥상을 받는 얼굴색을 보고도 령감의 일이 요즘 잘되어가는지 어쩐지를 척척 알아맞혔다.

오늘저녁도 부엌일을 밀어놓고 올라온것이 다 그런 눈치가 있기때문이다.

《이건 무슨 편지요? 애들한테서 온거요?》

로친네가 손을 내밀더니 내가 읽어보고 방바닥에 놓은 현모의 편지를 당겨간다.

나는 담배를 한대 피워물었을뿐 모르는척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제 곧 현모가 와서 일년이고 이년이고 탄광생활을 하면서 성공하기까지 있어야 하겠기에 로친네가 그 편지내용을 알아두는것도 나쁘지 않았기때문이다.

친누이 못지 않게 현모를 생각해왔고 지금도 생각하는 로친네였다. 로친네는 현모의 편지장들에 적힌 글자들을 한자도 빼지 않고 꼼꼼히 읽고

나더니 눈물이 그렇그렇해졌다.

《제발 이번길에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세계적인 발명이야, 꼭 성공하도록 해야지.》

《령감이 발벗고 나서구려. 그 사람이야 혼자서 어떻게 해내겠소.》

《나같은게 무슨 도움을 주겠소만 심부름같은건 잘해줄 결심이요.》

《심부름만 해가지구야 되겠소. 편지를 보니깐 여러가지 부탁을 기사장한테 했던데요.》

《됐어됐어. 간참 말고 밥상이나 차리라구. 내가 래일아침 일찌감치 기사장을 만날테요.》

《단단히 잡도리를 해야 할거예요. 그전에도 보니깐 과학자란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한다고 와있다가는 빈손이 되어 돌아가지 않았소.》

《됐어됐어. 현모는 진짜 과학자란말이야.》

《그 사람이 우리 탄광을 시험지로 정하겠다고 결심할 때야 령감을 믿기때문일거예요.》

《그만 떠드오. 턱밑에 붙어들면서... 밥상이나 차리란말이요. 내가 현모를 도와줄 작전계획을 세워봐야겠소.》

로친네는 마지 못해 일어섰다. 부엌으로 나가면서 또 한마디를 한다.

《언제면 로친네를 깔보는 버릇을 고치겠는지...》

기사장 전성교는 누구보다도 현모의 라선형 강성 쇠동발이 갖는 과학적 의의와 그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있는 사람이었다. 현모로부터 현지시험지를 제공해달라는 편지를 받은후 그는 여러날동안 남몰래 그가 보낸 도해집을 연구하였다. 그리고는 갱장들과 갱기사장들과 사업하였으며 자재담당부 지배인파도 사업하였다.

시험채탄장문제, 부형강문제, 동발제작문제, 협조로력으로 무어질 작업반문제 등 현모가 와서 현지조건에서 라선동발을 들이고 시험채탄을 해볼수있는 조건들을 마련해준다는것은 간단한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외부 과학자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것만큼 기사장 권한으로 내려먹일수는 없는 일이었다. 오직 갱장이나 갱기사장 한사람한사람과의 《대내외교》, 《설복외교》를 해야 하는 문제였고 현재 우리 나라 석탄전선이 《신형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과학외교》를 해야만 풀릴수 있는 문제였다.

탄광기사장의 이러한 로력은 좋은 대답들을 받아내었다.

혁신갱의 갱장과 기사장은 특급생의 지도일군들다운 큰 통을 보여서 8번 채탄장을 내놓겠다고 하였다. 이 8번 채탄장으로 말하면 혁신갱뿐만아니라 덕항지구에서 가장 좋은 탄발이었다. 나머지 갱장들과 갱기사장들도 《신형무기》 시험에 참가할 전사들을 끝끝하고 기능이 높은 채탄공이나 굴진공들로 한명씩 내놓겠다고 약속하였다.

탄광기사장이 가장 어렵게 설득시켜야 하였던 사람은 자재담당 부지배인이었다.

《또 과학자들이 옵니까? 그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건 쥐뿔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흥정에서는 지출과 수입이라는 우리의 계산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재담당 부지배인은 과학발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무식쟁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비싼 대가를 지불했지만 허탕만 쳤지요.》

부지배인의 이런 태도를 나쁘다고 할수 없는 기사장이었다. 그가 진실을 말했기때문이다.

지난날 덕향탄광은 과학자들의 현지연구대상지로서는 더없이 좋은곳으로 평판이 돌았다. 그것은 그들의 연구성과 혜택을 남먼저 입어보자는데서부터 인적, 물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들은 시원치 않았고 작별의 분위기는 쓸쓸하였다. 그들중엔 미안한 표정을 짓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제측에서 보장조건이 나뉘었다고 투덜대면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그들이 각종 이들을 달고 와서 시험한 채탄기들과 굴진기들은 기대만 던져주었다가 실패하고말았다. 덕향탄광이 하두 큰 살림이어서 그 사람들때문에 자리가 눈에 띄게 난것도 아니지만 제주머리를 털리웠다는 뜻에서는 분한 일이었다.

《처음엔 V 형강 10톤쯤 요구하겠지요. 하지만...》

부지배인은 계속 거절자세였다.

《하지만 시작해놓고보면 계속 들어밀어주어야 한다니깐요. 제가 뭐 한두번 겪었다구요.》

탄광기사장은 이런 부지배인에게 끝까지 웃으면서 인내성있게 설복하여 마침내는 V 형강을 얻어내고야말았다.

그런데 돌과할수 없는 최후의 계선이 있었다.

그 계선이란 공무직장 김덕준제작조의 장벽이었다. 덕준은 철골물 제작에서 탄광의 제1인자이다. 탄광에서는 이 사람을 《기계손》이라고 부른다. 눈으로 한번 보았거나 손으로 한번 만져본것이면 무슨 물건이나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놓는다. 그래서 불은 별명인데 인제는 덕준이라는 본래의 이름은 사람들속에서 거의 잊어졌다.

탄광의 철골물 시험제품은 거의나 그와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탄광간부들까지 그 어떤 설비제작을 만들도록 조직한 다음 그 진행정형을 알아보다가 《기계손아바이가 만들고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으면 안심하고 돌아선다.

한번은 기능향상을 위한 청년들의 결의모임에서 공무직장의 어떤 청년이 자기의 목표는 기계손아바이의 기능수준에 도달하는것이라고 토론한바도 있다.

유감스러운것은 덕준이가 머리에 든것이 없는것이다. 손재간은 좋지만 머리에 지식이 없어서 보다 큰 일은 못하였다. 만일 이 사람에게 지식이 좀 있다면 탄광실정에 맞는 편하고 효과적인 구조물들을 많이 만들었을것이다.

덕준이로 말하면 나와 동갑인데 코흘리개 시절부터의 별거숭이 친구다. 그 사람 아버지는 탄광의 대장쟁이로서 곡괭이나 정이나 삽날들을 만들었고 우리 아버지는 굴안일을 하였다.

키는 작고 몸은 가늘고 눈도 작지만 그 눈은 언제나 반짝이고 어느 왕년부터 쓰고다니는 밤빛모자를 내쳐 쓰고다녔는데 그것이 오래되어 본바탕색같이 검었든지 회색이였든지 인제는 구별조차 못하게 되었다. 거기에 또 손재간 재세를 하노라고 우쭐거리기를 잘하였다. 배짱노릇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젊었을 때 내가 우리 탄광에 나온 대학통신학부의 분교에 함께 다니자고 권고한바가 있었는데 덕준은 한마디로 잘라버렸다.

《난 중대장이나 갱장이 되고싶지 않아.》

《이사람아, 공부야 중대장이나 갱장이 되자고 하는건가?》

《어쨌든 싫어.》

《임자머리에 지식이 들어가면 굉장히 큰 일을 할거네.》

《흥, 제 뼈다귀 놀려서 일해먹는게 제일이야. 큰일은 무슨 큰일을 나같은게 한단말인가?》

이런 덕준에게 탄광기사장은 라선동발의 제약을 부탁해본것이다. 그런데 두번다시 말해볼 여지없이 거절을 당하였다.

《난 싫수다. 그 과학자란 사람들에게 멀리워서 별의별 채탄기요 굴진기요 하는것들을 만들어주었드렸는데 결국 파철더미에 던지고말았지요.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앓기로 작정했단말입니다. 성공도 못하는걸 가지고...》

기사장은 또한번 부탁하면서 온갖 설복을 다해봤지만 끝내 덕준은 이에 응하지 않고있는중이다.

《넘려 말게. 내가 그 령감한테 약속을 받아내겠네.》

기사장은 나의 자신있는 어조때문인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교관아바이 부탁이라면 들을가요? 우선 100테 정도의 라선동발을 만들도록 합시다.》

이날 탄광기사장은 현모에게 편지를 썼다.

...회답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탄광에서는 당신의 라선동발 현지 시험지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보장하도록 관계일군들 사이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어느때나 당신의 도착을 환영할것입니다....

그 며칠후에 현모도 회답을 보내여왔다.

…기다리던 회답을 받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당신과 탄광일꾼들 사이에 매우 어렵게 합의를 보았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감사한 마음은 후에 전하기로 하고 연구소내에서 현재 관계하고있는 일들을 급하게 결속하는 차례로 떠나겠다는것을 알리는바입니다…

인제 남은 문제는 내가 덕준이를 설복하여 100레분의 라선동발을 만드는것이였다. 그래서 공무직장으로 찾아가게 되였다. 공무직장은 탄광구내치고는 기증 아늑한 감을 주는 아래구역의 산밀에 펼쳐진 평지에 자리잡고있었다.

내가 덕준령감이 일하는 기계제작실의 문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분명 덕준이가 데리고 일하는 젊은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는중이였다.

《임자는 장가들지 못해서 환장할 지경이라면서… 장가나 드는게 무슨 큰일이라구 그렇게 속이달아 그러는가말이야. 일이나 착실히 할게지.》

《누가 뭐 건달을 부렸어요.》

《건달군이 따로 있는줄 아나? 처녀들만 근방에 나타나도 정신나간놈처럼 헤-해서 두리번거리는 건 뭐가. 그건 그렇다치고 난 그 순필이란 애가 애당초 마음에 들지 않아. 오늘도 우리 직장부터 공급해야 되겠는데 탄 직장부터 공급하지 않나말이야.》

《공급원들이야 과장이 하라는대로 하는걸요.》

《그래도 그렇지. 제 새서방감이 일하는곳을 제일 귀중히 여겨야 해.》

《순필동문 자유주의가 뭔지 몰라요. 얄전한 처녀걸요.》

《시라소니같은게… 점점 한다는 소리가, 그만큼도 얄전하지 않은 처녀가 어데 있어. 우리 집로친네도 처녀시절엔 얄전했단말이야.》

령감은 진심으로 총각이 하는 소리에 울화가 터지는듯싶었다.

《그러니깐 덕준아바이도 장가들지 않았어요.》

《처녀시절의 얄전이란 가짜야 가짜. 우리 로친네가 지금은 내 목을 얼마나 아프게 비틀어대는지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릴 하나? 세상에서 첫째가는 악마로친네세. 나한텐 전부 호령질이야. 자라, 일어나라, 밥먹어라, 외출은 금지한다, 술은 한병만 마셔라, 이런 식이란말이야. 늙어서도 얄전을 잃지 않을 색시감을 골라야 해.》

《그런 색시는 없단데요.》

《왜 없어. 고르고 또 골라와야지.》

《너무 고르다가는 병신같은게 차려진대요.》

《됐네 됐어. 시라소니같은게, 임자가 군대에서 분대장노릇은 어떻게 했나?》

여기까지 들은 나는 손잡이를 잡고 들어서려고 하다 말고 또다시 두사람의 목소리가 싸우듯이 높아지므로 그냥 서있게 되였다.

《아바이는 이러쿵저러쿵 상급이 하는 일에 대

해서 시비질하는 버릇을 고쳐야 한단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다 아바인 상급에 대해서 너무 불손해요.》

《인젠 그따위 소린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살이 생겼다. 임자는 남을 가르치려들지 말고 일이나 수직수직 해.》

《저번때도 기사장이 빌다싶이하였는데 그걸 거절하면 돼요? 과학사업을 소홀히 한다는건 기술발전을 외면하는거나 같은거예요.》

《그럼 임자가 라선동발인지 원형동발인지 한결 만들어주라구.》

《됐어요, 됐어요. 아바인 학습도 하지 않아요.》

《야, 이것 봐라. 임자 눈엔 내가 락후분자로 보이는가?》

나는 좀더 있으면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다툼질이 더욱 험악해질것 같아서 문을 열고 들어섰다.

《동갑이 이사람, 안녕한가?》

나는 밖에서 옛들은 표정하나 없이 시침을 딱 때고 명랑한 기분으로 인사말을 건넸었다.

《이게 누구요. 교관령감이 여길 어떻게 왔소?》

뜻하지 않은 나의 출현은 그를 몹시 놀라게 한듯하였다. 기실 나는 최근년간 공무직장에 별로 다녀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방금전까지 젊은 사람하고 다툼질하던 기분같은건 말끔히 씻어버리고 반기는 얼굴이다.

《동갑령감이 무사한지 알고싶은 용무뿐일세.》

《말은 언제나 귀맛 좋게 하거던. 나를 꼼찍이 생각이나 하는것처럼.》

이러는 사이 덕준이와 이러쿵저러쿵하던 청년은 빠져나갈 틈이 생긴것이 다행이라는듯이 어데론가 나가버렸다.

《요즘은 바쁘게 지내나?》

《우리 일이야 늘 그렇지. 바쁠 땐 바쁘고 또 허리를 켤 때도 많네. 자, 여기 좀 앉자구.》

덕준은 쇠밥부스레기가 널린 길다란 나무의자를 끌어다가 놓고 내 손목을 잡더니 함께 앉았다. 우리앞엔 그들이 수리하려고 방금 뚜껑을 떼고 장난 감속기가 놓여있었다.

《내 동갑이한테 좋은 담배 한대 줄가?》

나는 엇그제 로친네가 누구네 집에서 얻어온건지 모를 향기로운 엽초를 넣은 주머니를 꺼내었다.

《색갈도 곱고 향기도 괜찮은거로구만.》

덕준은 큼직하게 말아서 한모금 빨아보더니 내 담배쌈지를 만져본다.

《그걸 주머니에 넣으라구. 집에 가면 난 또 있네.》

《교관네 로친네가 종합목장 지배인질을 한다면서… 쟤단말이야.》

《고기가 필요하면 어느때건 우리 집 로친네에

게 손을 내밀라구. 우리 집 로친네야 동갑이 부탁이라면야 뭐나 다 제일처럼 생각하더라니깐.»

《이것 참, 이상하다. 점점 죄어드는게. 그러지 말고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보라니깐.》

《일은 무슨 일. 얼굴이나 한번 보고가자고 지나는 길에 들렀지.》

눈치빠른 덕준이다. 머리에 든것이 없는 대신 눈썰미가 정탐군이상인 령감이다. 그러니 내가 제 얼굴이나 한번 보자구 들린것이 아니라는걸 모를리 없었다.

《그럼 내가 맞춰볼가?》

《맞춰보게.》

《기사장이 보내서 왔지. 그저 뭐라더라. 라선인지 원형인지 한 피상한 이름이 붙은 동발말일세. 그걸 만들어보라는거지.》

《허허, 그걸 어떻게 알아맞췄나?》

나는 덕준이가 귀신처럼 알아낸것이 희한해서 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것쯤이야 척척 알아맞히네. 나한텐 별의 별 수단군들이 다 와서 이것저것 만들어내라구 구슬린다네.》

《어찌됐나. 그제 다 동갑이가 하두 손재간이 좋으니깐 그러는거지.》

《손재간이 너무 좋아도 고생이야. 그런데 그 라선동발이라는게 승산이나 있는건가?》

《죽으나사나 만들어내야 할 동발일세. 석탄을 캐는데서 전혀 다른 방법을 도입할수 있게 하는 거야.》

《그렇가?》

반짝반짝 덕준의 눈이 감겼다 떴다 하더니 고개도 좌우로 한번 기웃거려본다.

《이걸 연구해낸 과학자는 동갑이도 잘 아는 사람이네.》

《그렇다?! 평양사람이라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엔 우리 탄광에 있다가 대학에 갔지. 대학졸업후 오늘까지 50이 되도록 이 하나를 연구하느라고 머리까지 희어졌네.》

덕준은 그제 누굴가하여 이번엔 실눈을 짓고 생각을 더듬더니 목소리를 높이며 일어섰다.

《짐작이 가네. 그 망나니 자식말이지. 입자속을 썩일대로 썩이던 녀석말이야. 그녀석때문에 입자가 분주소결음을 많이도 했지.》

《그후엔 나를 몹시 기쁘게 해주었네.》

《그렇지, 그렇지. 개조되어 황소처럼 일을 잘한다고 속보판에 매번 나불었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랬던 사람이 굉장한걸 연구해냈단말일세. 세계적인 발명이라고 말할수 있어. 자, 보라구. 바로 이거야.》

나는 안주머니에 넣고갔던 도해집을 꺼내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나는 열성적으로 설명하였고 덕준은 열심히 들었

다.

《우선 이런걸 100테만 만들자구. 내가 동갑이의 조력공이 되어 둘이서 하세나.》

《듣고보니 비슷한 동발이로군. 그 망나니녀석이 인젠 큰 인물, 큰 선생이 됐는걸. 그런데 그 선생이 그러놓은 이 동발대로 만들면 안되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나는 이 오랜 채간동이의 말에 우려를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남들이 속대를 짐작 못하는 기계의 바깥모양을 보고도 그 기계의 내부생김새를 짐작할뿐아니라 그 기계에 무엇이 더 있어야 하는가를 잘 알아맞히는 덕준이었다.

《짐이 가벼울 땐 몰라도 짐이 무겁게 실리면 균형이 깨질수 있네. 학자님들이야 그것까지 생각못할수 있지.》

역시 덕준인 덕준이었다. 나 자신 굴사람으로서 이것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직은 내 생각을 내비칠 때가 아니었다.

《어떤 형태로 균형이 깨진단말인가?》

《간격이 벌어지던가 맞붙어버릴 위험이 있네.》

《그럼 우리가 동발을 만들 때 그걸 방지할 꺾쇠형식의 동발집게 같은걸 해붙이자구.》

《좋네. 래일부터 입자가 내 조력공이 되라구. 그까짓 100테쯤은 마음만 먹으면 오래 걸릴것 없네. 거 참, 그 망나니가 큰 학자가 되다니...나 역시 기쁘이.》

우리는 점심종이 울릴 때 유쾌한 기분으로 헤어졌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나는 덕준이의 조력공이 되어 라선형동발을 한테한테 만들기 시작하였다.

현모가 도착하였다. 현모는 탄광의 지도일군들을 차례차례 찾아다니며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 기사장실에서 나하고 만났다.

《5년만입니다, 형님.》

현모는 내앞으로 달려나오면서 두손을 마주잡았다. 내가 평양에 갔다가 현모를 만나본 때로부터 벌써 5년이 지나간것이다.

현모는 자기의 청년시절 한때가 흘러간 탄광에 온것으로 하여 감개무량한 빛을 숨기지 못하였다. 5년전에 그를 왔을 때만 해도 현모의 머리칼엔 흰오리들이 섞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흰머리가 반쯤은 섞여있었다. 이마에 주름살도 여러줄 건너갔었다. 흰 와이샤쓰에 한송이 목란꽃이 핀 검회색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탄광의 원근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새로 보는 건물이나 구조물들을 가리키며 무엇이냐고 묻는 손짓이나 목소리는 어찌나 세련되었는지 놀랄 지경이었다.

《여기 와서 낮익은 옛 풍경들을 대하니 형님이 저때문에 속을 썩이던 일들이 어제일처럼 생각납

니다.》

현모의 미소는 자기 청춘시절의 한때가 얼마나 소란스럽게 흘러갔던가를 회상한다는것을 알도록 해주었다.

《자네 내 숙만 태워준게 아니구 나를 기쁘게도 해주었지.》

《또한번 형님의 숙을 태우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형님의 협조가 없이는 제가 이번 시험에서 성공하지 못할겁니다.》

《자네 외교일꾼들처럼 말하는구만. 인젠 로친네가 기다릴텐데 집으로 가보자구.》

《누님은 정거장에서 벌써 만났습니다. 저도 올고 누님도 올었습니다.》

《마중나가겠더니 나갔던가? 올었을거네. 자네가 우리를 영영 잊은줄 알았으니깐.》

《아무렴, 제가 형님과 누님을 잊겠습니까? 너무도 일이 잘되지 않아서 지치고 락망했다가도 형님과 누님의 얼굴이 떠오르면 힘을 얻곤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데론가 나갔던 기사장이 들어섰

다.

《숙소를 마련했는데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구만.》

기사장이 모자를 벗어 걸면서 현모를 바라보았다.

《공연한 수고를 했구만. 내려올 때부터 내 숙소는 갱안에 정하기로 결심하였지요.》

《비장한 결심을 했구만. 허지만 나야 주인인데 손님대접을 그렇게 할수 없지 않소.》

《갱밖에 나와서 자야 될 경우가 생기면 누님집을 리용하기로 하지요. 벌써 짐을 거기에 풀었는걸...》

그날밤 로친네는 자기 《목장》에서 살진 닭 두놈을 잡았다. 밤이 새도록 회포를 나누면서 우리는 잠들지 못하였다.

현모도 로친네도 나도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본 사람들이여서 이 상봉이 더욱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다음호에 계속)

활주로

한길초

내 떠날 때

순간을 놓칠세라

한껏 나를 떠받들어주는듯싶어

두 날개 쪽 펴고

단숨에 창공으로 날아오르곤하여라

내 돌아올 때

첫눈에 안겨오는 너

달려오는 아들이

돌부리에 걸칠세라

두팔 벌려 안아주는 손길같아

내 마음 놓고

땅우에 내리곤하여라

그렇더라

활주로

너는 하늘을 지켜날으는

비행사 이 아들을

받들어 내세우고

품안아 내려주는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손길!

봄시위

리현덕

군에서 열렸던 3대혁명소조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농장 소조원들은 빨리 가는 길을 택하느라고 버드내기숲의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예상밖의 일에 맞닥뜨렸다. 봄시위물이 어찌나 붙어났던지 지름길을 탈수 없게 되었다. 일행은 할수없이 큰길로 가기 위해 되돌아섰다. 그러나 한 소조원만은 가던 길을 버리지 않고 그냥 걸음을 옮기었다.

보통키의 균형잡힌 몸에 눈빛이 조용해보이는 청년이었다. 그는 발이 시린것도 모르는듯 신발을 아예 물속에 적셔버리고 질박한 땅을 피하지 않고 걸음을 옮기는데 버드내에 가득차서 흘러내리는 봄시위물을 한참씩 바라보며 서있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엔 확실히 흥분이 어려있었다. 하지만 그가 어찌하여 이렇게 갑자기 닥쳐든 봄시위물에 류다른 매력을 느끼는지 그 정확한 까닭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

리에서 내려오던 명우는 작업반마당에 첫발을 들여놓다 말고 흠칫 그자리에 서버렸다.

갑자기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것이다.

선전실앞에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방금 독보회를 마치고 나온듯싶는데 작업반장 최봉달이가 한아주머니를 닦아세우고있었다.

《...생각 좀 해보시오. 음전아주머니처럼 그래야 어떻게 일을 해먹겠소.》

40전후의 검스레한 얼굴에 며칠째 수염을 밀지 않아 훨씬 더 나이들어보이는 최봉달은 재빛토끼 털모자를 뒤로 비뚜름히 쳐켜쓰고 서서 석담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그앞에서 흰머리수건을 폭내려쓰고 꾸중을 듣고있는 체소한 몸매에 얼굴빛이 류달리 검은 녀인은 반장보다 몇년 더 우가될상싶었다.

《됐구만, 반장! 이젠 어서 일들이나 하자구.》

나이 지숙한 농장원이 보기에 좀 지나치다고 느껴졌던지 최봉달을 말렸다. 그제서야 반장은 마지못한듯 어조를 한축 낮추어 《다시 그런 조건타발을 또 해선 안되겠소. 보우, 모두 모판준비작업에 열성들을 내구있는데 중뿔나게 아주머니 하나 못하겠다구 하니 일이 됐소?》 하고 말했다.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져갔다. 명우는 추궁을 받은 그 녀인의 거동에서 웬일인지 눈길을 땔수 없었다. 뒤늦게까지 서있던 그는 아무말없이 돌아서더니 사람들을 따라 걸어갔다.

녀인이 사라진 다음에도 명우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한편 일에 몹시 다물린듯 언짢은 표정을 짓고서서 조금도 용서를 두지 않고 녀인을 추궁하던 반장의 모습도...

어제 리에서 듣기에도 봉달반장은 성실하고 누구보다 일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생각에 잠겨있던 명우는 반장이 다가오며 《에- 못해먹겠군!》 하고 한탄조로 뇌까리며 건넌눈인사에 현실로 돌아왔다.

《무슨 일때문인가요?》

명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는것과 동시에 나직한 어조로 물었다.

《뭘, 손이 아파서 포전일을 못하겠다는겁니다. 하지만 건 구실이구 속심은 쉬운 일을 하자는거지요. 좁전에두 내 그렇게 짜주었지만 농사군이 삽질을 며칠 했다구 손이 아프다니 누가 그걸 끝이들겠소? 참 골이 아파서... 들어가서 애기합시다.》

반장을 따라 선전실에 들어와 앉은뱅이책상을 사이두고 앉은 명우는 그의 말을 성심으로 들으려고 애쓰며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음전이라는 그 농장원이 힘든 일에서 켜하면 조건타발을 한다는것과 10년전부터 세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산다는것이였다. 그렇게 열성이 적은 사람이 있다나니 집단에도 좋지 않은 물이 들것 같아 걱정이라고 하소연하듯 털어놓았다.

《함께 힘을 합쳐 이끌어나갑시다. 그렇게 못할게 있습니까?》

다 듣고난 명우는 자신도 기분이 어두워왔으나 애써 밝은 얼굴로 말했다. 봉달은 확신이 안생기는지 아니면 그러루한 말은 백번도 더 듣고남은 말이라 하는지 한참이나 묵묵히 앉아있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글쎄 소조원동무가 힘을 쓰겠다니 믿읍시다만, 지내보시오. 참 말째우다.》

얼마후 명우는 그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먼저 모판준비작업장부터 가보았다. 너렁청한 들의 한 곳에는 여러명의 농장원들이 늘어서서 삽으로 버그루를 쳐나가고있었다.

《저렇게 전부 삽으로 버그루를 칩니까? 기계로 하지 않고...》

명우는 작업광경을 보다 말고 물었다.

《회전써레를 리용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요?》

명우는 뒤말을 인차 잊지 않는 봉달의 무표정한 얼굴을 지켜보다 못해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덩덤하던 봉달의 미간이 웬일인지 찌프러진다.

《고장이 잣구, 버그루도 말끔히 쳐지지 않구, 이래저래 토질이 특수한 이 지방에선 수지가 맞지 않지요. 실속있기는 그저 저렇게 하는것이상...》

순간 명우의 가슴이 허전해왔다. 성실하다던 봉달반장에게서 다른 측면을 보는것 같아서였다. 명우는 말없이 그를 따라 걷기만 했다. 쌀쌀한 바다바람이 불어와 명우의 불을 알알하게 해주었다.

작업반에 들어온 명우는 반장과 함께 그 회전 썰레를 보러 갔다. 그제까지도 더러 쓰다가 아예 들여놓고말았다는 그 기계는 련결농기계창고의 맨구석에 놓여있었다. 홀로 숨죽이고 누워있는 기계에서는 썰렁한 기운과 함께 차거운 쇠비린내가 풍겨오는것 같았다. 기계를 들여다보며 어디가 자주 고장이 나는가고 묻자 흥미가 없다는듯 저쪽 서있던 봉달은 통명스런 어조로 대답했다.

《어디어디라구 말할것 있소? 부하가 걸려 찍하면 치차들이 나가지요. 찰감탕이 많은 여기선 해박야 소용없는 놀음이라니까.》

명우는 가슴속에서 그 어떤 마지막 지탱점까지 무너져내리는듯하였다. 기계에 손을 대고있는 명우의 가슴도 싸늘하게 얼어드는것만 같았다.

2

명우는 점심식사후 일찌감치 들로 나갔다.

곳곳에서 트랙토르의 활기찬 동음이 울려왔다. 둔덕우에 세워진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가 새삼스레 명우의 눈을 끌었다. 겨울의 썰레를 어서 밀어내려는듯 제법 아늑한 해살이 쏟아져내렸다.

그래도 바람은 여전히 차거웠다. 넓은 지평선 끝에서 불어오는 늦겨울바람은 명우의 옷섶속으로 매정스레 찌르고들었다. 춥고 어수선했음을 느낀 명우는 반사적으로 숨옷깃을 꼭꼭 여몄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헤쳐진 깃때문만 아닌것 같았다.

명우의 머리속에서는 왜서인지 봉달반장에 대한 생각이 줄곧 떠나지 않고 기분을 어수선했게 해주는것이였다. 그런 기분을 애써 누르며 누구보다먼저 일을 시작하려고 걸어가던 그는 한자리에 서버렸다. 언제 나왔는지 벌써 논판에서 부지런히 일하고있는 사람을 보았기때문이였다. 좀더 가까이 다가간 명우는 그가 다름아닌 봉달반장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오전에 사람들이 일한곳에서 휴간 남아있는 버그루를 다시 말끔히 치고있었다. 사람이 오는줄도 모르고 허리를 구부정하고 온 냇을 거기에만 쏟고있었다.

명우는 한순간 뜨거운 무엇을 느끼며 그걸로 다가갔다.

《반장동지, 다리쉽도 좀 안하고 벌써 나왔습니까?》

《허... 난 또 누구라구, 다리쉽인지 뭔지 할 경황이나 있었으문 좋겠수다.》

봉달은 통명스레 받았다. 담배를 꺼내 붙여물고는 무엇이 마뜩지 않는지 풀풀 연기만 내보냈다. 그러다가 이렇게 혼자소리로 뇌였다.

《일하는 본새들이...》

명우가 내려다보니 과연 말끔히 쳐지지 않은 버그루들이 눈썰리를 자극했다. 그런데 그옆은 버그루 하나 없이 깨끗했다. 일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것이 대뜸 알렸다.

명우가 그 말을 하자 봉달은

《글쎄 내 하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관점상 문제라니까!》 하고 분격을 터뜨렸다.

명우는 《관점상 문제》라는 말이 웬일인지 뇌신경을 아프게 건드리며 머리속에 파고들었다. 생각이 깊어졌다.

미구하여 사람들이 나와 일손을 잡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기네보다 먼저 나와 일하는 반장과 소조원을 보자 량심의 가책을 느껴선지 눈에 띄게 동작들이 빨랐다.

그들에게 일을 질적으로들 하라고 한마디 소리친 봉달은 한참동안 땀흘리며 세판게 삽질을 하고나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명우는 음전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오후엔 손이 아파 못나오는 모양이라고 누가 대답했다.

순간 아침에 보았던 그의 모습이며 그에 대해 반장이 하던 말들, 지금도 녀자들이 치는 이랑과 남자들이 치는 이랑에 생기는 차이 (확실히 녀자들 뒤는 깨끗치 못하다.) ... 그 모든것들이 한동안 아리가 되어 명우의 머리속에서 복잡한 련쇄반응을 일으키는듯 뇌리가 무거워왔다.

《소조원동문 힘들지 않아요?》

결에서 일하는 녀인이 말을 건네왔다.

《전 일없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힘들겠습니다.》

《우리야 늘 하는 일인데 소조원동무가...》

《저야 그대신 짧은 남자가 아닙니까?》

《그래두 처음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가서 손을 든다우.》

《그럼, 저하구 한번 경쟁을 해볼가요?》

《어마나! 소조원동무가...》

처녀들은 이러며 저희끼리 무언가를 속살거리고 중년녀인들은 《정말이유?》 하고 친근한 눈길을 보내왔다.

《정말 아니구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모두 즐겁게 웃으며 일손들을 다그친다. 일터엔 전에 없던 새로운 공기가 흐르는듯싶었다.

명우는 저녁까지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일

했다. 어깨가 빠근해오고 어느사이 손바닥에 작은 물집이 두개나 생겼다. 이런 일을 며칠을 두고 해야 하는 농장원들의 수고가 생생히 헤아려진다.

일을 끝내고 마을로 들어온 명우는 음전아주머니네 집을 찾았다. 잎떨어진 고욤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쳐들고있는 집프락으로 들어서던 명우는 걸음을 멈추었다. 주인아주머니가 프락에서 활창대를 매고있었다.

명우가 인사를 하자 일손을 멈추며 《어떻게...》하고 반기는 그 녀인의 검게 탄 얼굴에는 인심후한 농촌아낙네들에게서 흔히 느낄수 있는 온화한 성품이 엿보였다. 오른손등엔 흰천이 감겼다. 하건만 그 손은 부지런히 활창대를 매기에 조금도 멎어있을줄 모른다.

《손이 아프시다면 좀 쉬시지요.》

명우는 그가 열이면 아홉은 방에 누웠거나 사사일을 하고있을줄 알았는데 그래도 집에서나마 농사에 보탬이 될 일을 하고있는것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후터워왔다.

《일없어요.》

그 녀자는 한마디로 나직이 대답하고 그냥 일손을 놀렸다.

《손을 어떻게 다쳤습니까?》

명우는 그의 곁에 다가가 활창대를 매며 말을 건넸다. 자기도 모르게 그 손에 또한번 눈이 갔다.

그러는 명우는 생각이 깊어졌다. 농사꾼이 삽질 며칠 하고 손이 아프다니 누가 곧이들겠냐고 하던 반장, 그 말을 그르데 없다고 받아들였던 자기, 여기서 보게 되는 천을 감은 저 손... 과연 어느쪽에 진실이 있단말인가?

명우는 수영술이 서툰 사람이 깊은 강물우에 뜬것처럼 당황해지는 자기를 발견했다. 그래 손으로 활창대를 매면서도 무슨 대답이 나올가 긴장해서 기다렸다.

그러나 녀인은 《아니 그만두어요.》라고 활뿔손에 대해서는 왜서인지 침묵을 지켰다.

해가 넘어간 밝은 쌀쌀하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그냥 일손을 놀리는 음전을 보니 그에게 동정이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명우는 부득불 말머리를 돌리지 않을수 없었다.

《아침에 있는 일때문에 너무 노엽게 생각지 마십시오. 반장동지는 버그루치는 작업을 더 빨리 해보자는 욕심에서 그랬을겁니다.》

《...》

《제가 보건대 반장동지는 농사차비를 빨리 끝내려고 무척 안달아하시더군요. 그러다나니 아주머니감정에 거슬리는 말도 더러 한것 같습니다.》

음전은 문득 일손을 멈추었다. 그리고나서 고개를 드는 그의 두눈에는 그 어떤 향의의 빛이

흐르는듯싶었다.

《소조원동무두 제가 그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삽질을 하기가 손이 아파서 그러는줄 아는 모양이군요.》

《...?》

《반장말대로 농사꾼이 삽질 며칠 했다고 자빠지면야 껌병이지요. 기계를 세워두고 쓰지 않는 반장이 미워서 난...》

명우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왔다. 목안을 지질듯 뜨거운것이 넘어갔다.

한동안 말을 못찾고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다.

남정의 손이 없는데도 유별나게 맵시있게 만들어 었은 닭장, 토끼장... 찾아올 때는 남편없이 사는 집에 어수선한 구석이 많으리라 생각했었는데 그와 정반대였다. 분조원들, 마을사람들의 햇숨같이 따뜻한 우정이 깃들어있는 집이었다. 명우의 마음속에도 한순간 부드럽고 따뜻하고 밝은 그 무엇이 흘러들었다.

그러던 명우는 담벽말코지에 망둥어 말린것이 뒤두름 될가하게 걸려있는것에 눈길이 갔다. 합숙에서 상에 놓아주던 큰망둥어와는 달리 조그마한 새끼망둥어들이다.

《저건 누가 잡아온 물고기인가요?》

순간 음전의 얼굴이 그곳으로 돌아가다 말고 수그러졌다. 활창대를 쥔 두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명우가 더 할말을 잃고있는데 책가방을 멘 사내아이가 들어섰다. 열살쯤 낫을가. 오동통한 얼굴에 감때사나와보이는 두눈이 음전이와 명우를 번갈아본다.

《너 이 집 애로구나, 학교에서 돌아오는길이나?》

호기심어린 눈으로 명우를 바라보던 아이는 대답대신 도리어 반문했다.

《아저씨 누구냐요?》

《허, 묻는건 대답 안하구? 오라. 내 소개부터 하란말이지? 난 이 마을에 온 대학생이다.》

《대학생이요? 그런데 뭐하러 왔나요?》

《배우러 왔지.》

《배우러요?》

아이는 눈이 울퉁해졌다. 대학생이 이런곳에 배우러 왔다니 무슨 말인가 하는 모양이다.

《넌 이름이 뭐냐?》

또 대답이 없다. 그대신 다시 엉뚱한 말이다.

《저건 내가 잡아온거야요. 다치면 안돼요!》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방금 물고기에 대해서 하던 명우의 말을 들었던 모양이다.

《하하, 다치지 않겠으니 걱정 말아라. 너 아마 깊은 바다에 못가구 얹은 개울에서 잡았겠지?》

아이는 해쭉 웃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봄이 되면 나두 깊은 바다에 가요. 저건 가을에 잡아온거거든요.》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가을에? 그런데 왜 얽매 걸어두었니? 몹시 귀한 모양이로구나.》

《아니야요. 여긴 망둥어가 흔해요.》

아이는 대뜸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큰 망둥어째미 하나를 문밖으로 쳐들어보인다.

《자, 보세요. 하지만 저건 제가 잡아온거라구 어머니가...》 하며 자기 어머니를 흘끔 보고는 뽀르르 방안으로 들어가 책가방을 벗어놓고 밖으로 썰 달러나간다.

(아들이 잡아온거라구 어머니가 걸어놓았다?)

불쑥 이런 의문이 들었으나 풀어낼수 없었다. 무슨 사연이 있는것만 틀림없었다.

저녁식사를 하고 가라는 주인에게 사례의 인사를 하고 일어난 명우는 손치료를 잘할것을 당부하고나서 뜰을 나왔다. 어둑어둑해오는 마을길에 나선 그는 찾아올 때에 비해서 훨씬 걸음이 가벼워졌으나 해빛 짙어진 땅의 한곳에 숨은 그늘을 보는것 같은 마음만은 덜어지지 않았다.

그 《그늘》은 담벽에 걸린 애기망둥어 같기도 하고 음전아주머니의 천을 감은 손 같기도 했다. 아니 썰렁한곳에 숨죽이고 누워있는 회전씨레인 것도 같았다.

3

이튿날아침.

농기계창고안으로 들어선 명우는 한동안 그자리에 서있었다. 구석진곳에 외롭게 누워있는 회전씨레를 다시 보는 그의 가슴은 몹시 아리었다.

명우는 서둘러 일차비를 갖추고 치차함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온기가 없는 창고안이어서 스파나를 쥔 손이 몹시 시렸으나 들판에서 일하는 농장원들이 떠오르자 더욱 부지런히 일손을 놀렸다.

얼마후에 명우는 쌍으로 붙은 여덟개의 치차중에서 두개가 이발이 부러져있음을 발견했다. 마침 들어서서 반장에게 기계화작업반에 가서 새치차를 얻어와야 하겠다고 하자 봉달은 대뜸 가보나마나하다는것이였다. 군에서 반아온 예비치차가 더없기도 하려니와 있다고 해도 주지 않을거라는것이였다. 웬일인지 낮색이 찌뿌둥하였다.

《주지 않다니요?》

명우는 리해가 되지 않았다.

《부하가 안걸리게 모래매흙땅만 골라가며 그த்து 살근살근 돌리라는건데 현장일이 그렇게 되우? 내가 두번이나 치차를 타러 가자 부기사장은 다신 오지 말라구 했지요. 건 그렇구 어제두 말했지만 찰감탕이 반나마되는 이 지방에선 수지가 맞지 않는 기계라니까 덮어두구맙시다.》

순간 명우는 그에게 무언가 하고싶은 말이 목안을 넘어오는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그시 누르고 《어떻게든 고쳐봅시다.》 한마디를 한 다음 부

러진 치차를 떼내기 시작했다....

소조원들은 벌써 깊은 잠이 든듯 숨소리들이 높다. 불을 끈 침실엔 고즈넉한 달빛이 흘러든다.

하건만 명우는 왜서인지 잠이 오지 않는다. 오늘 있는 일들이 아까부터 눈앞에 삼삼할뿐이다.

치차를 깎아올데가 없느냐고 하자 《이젠 타오다못해 깎아까지 온단말이요?》 하는듯 마뜩지 않은 눈길을 던지던 반장, 명우의 간절한 눈길과 마주치자 차마 거절할수 없는듯 풀섬에 있는 간석지 건설사업소 공무직장에 자기가 갔다오겠다고 하며 나서던 일...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갔다온 봉달의 입에서는 《헛걸음했수다. 다리공살하느라구 길을 끊어놔는데 열흘안오른 섬에 들어가 지 못하겠구만. 영-이, 켄히...》 하는 말이 꾸념조로 흘러나왔었다.

그건 누구에게 하는 꾸념이었던가? 그러나 명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한게 아니라 차마 입이 열리지 않았다. 종일 들에서 돌아가다가 찬바람을 맞으며 그곳에 갔다온 그의 흙빛 얼굴엔 뿌연 먼지가 올라있었고 피렇게 열기까지 했다. 그런 반장에게 무슨 말을 한단말인가. 그래서 속으로만 (어쩌면 좋은가? 이젠 방도가 없단말인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며 맥없이 서있었다. 그러는 명우를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던 봉달은 그래도 년장자답게 한다는 말이

《소조원동무, 너무 근심하지 마시우. 까짓 기계루 못하문 뭘랴우? 일년을 하우, 한달을 하우? 극상 잡구 보름동안 하면 뭘 모관준비작업을 며칠간 손으루 좀 한다구 큰일 나겠소. 금년엔 그렇게 해먹구 래년부터나 잘해봅시다.》 라고 했었다. 그렇게 말하는 봉달반장앞에서 말없이 섰다 말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들어가 쉬십시오.》 하고 나서 올라온 명우였다.

흘러드는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천정을 멀거리 쳐다보고있으려니 거기에 수많은 손들이 어른어른 나타났다. 누구의 손인가? 농장원들의 손이다. 삼으로 부지런히 벼그루들을 치던... 천을 감고도 부지런히 활창대를 매던...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바뀐다. 다른 사람...! 아... 명우는 저도 모르게 저릿해오는 가슴우에 손을 얹은채 까딱않고 누워있었다. 그러기를 얼마후, 명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찾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바람은 불지 않으나 짜늘한 밤공기에 달빛마저 얼어붙은것 같았다. 달도 추위에서 어서 벗어나려듯 수평선너머로 갈길을 재촉하고있었다.

명우는 곧장 한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그 어떤 분기랄지, 흥분이랄지 딱히 이름할수 없는 절박한것이 소용돌이치며 그를 행동으로 떠밀었다.

그는 한참동안 동쪽길을 걸어왔다. 얼마후 길의 쪽 끊어지고 흐르는 물이 발밑에 내 려다보였

다. 밀물이었다. 제방끝에는 다리공사에 쓰일 철근이며 세멘트로대며 자갈, 모래따위들이 무드기 쌓여있었다. 한동안 서고있던 명우는 이곳에 왔다가 돌아선 봉달반장이 떠올랐다. 봉달반장은 아무런 량심의 가책도 없이 자전거를 되돌려세웠을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돌아가도 무방하지 않는가? 아무런 시비를 할 사람도 없지 않는가?

그러나 이 물음은 명우에게 있어서 대뜸 자신에 대한 모멸감을 치밀게 했다. 무엇때문에 내가 잠자리를 건너차고 여기까지 왔던가?

명우는 물가로 내려섰다.

물에 들어선 그는 뼈와 살이 다 얼음으로 되어 버리는듯했다. 몸이 찻찻해졌다. 그는 거의 본능으로만 물을 헤쳐나갔다. 허벅다리까지 올라오는 물은 그야말로 살을 에이는것만 같았다. 이가 딱딱 소리를 냈다.

(열! 열만이 랭기를 이기고 얼음을 녹인다. 얼음을 녹여... 물로... 물은 다시 기계로... 그리하여 큰 힘으로 전환한다. 그런 열은 어디에 있는가? 태양에 있다. 태양빛을 받아 탄소를 축적한 모든 유기체속에 있다. 그리고 또... 사랑과 분노, 열정을 안고있는 인간의 심장에도 있다.

그것은 고급한 열, 누구나 심장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는것은 아니다. 근면하기 이룰데 없는 봉달반장! 그에겐 이것이 없다. 어떻게 해야 그에게 뜨거운 열을 지니게 도와줄수 있는가?...)

아늑한 저녁길을 걸으며 흘러나오는 정서가 담긴 시도 아니고 깊은 명상속에서 도출해낸 철학적인 사색도 아니었으나 그이상의 비상한 효능을 가진듯 명우의 몸에 기운이 솟게 했다. 무언지 알수 없는 뜨거운것이 가슴속으로 흐르고 또 흘렀다. 추위에 파랗게 얼어서 내려다보던 머리우의 별들도 (달은 이미 저버렸다.) 후더움을 안은듯 생기를 띠고 빛났다.

4

명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힘을 썼다. 순간 수천개의 바늘끝으로 몸을 찔러대는것 같은 느낌을 받고 다시 누워버렸다.

눈을 뜨니 동쪽산마루우에 어설픈 해가 떠올라 있다. 정신이 번쩍 든 명우는 그제야 자기가 치차를 깎으러 갔다오다가 신열때문에 버드내가의 묵은 풀밭우에 누워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밀물드는 개펄을 건느던 일이 떠올랐다. 내려다보던 별들... 공무직장에 뛰어들어가 화독부러 끌어안다 싶어하는 자기를 놀라서 보던 후야근로동자들... 사연을 알자 밤밝혀 치질반을 돌려주던 그들... 돌아오는 길에서 우스운 계기로 기계에 대한 대책안이 떠오르던 일....

어서 가 기계를 살려야겠다고 벌떡 일어나던 명우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무거워 또 누워

버렸다. 하고보니 어제밤 개펄을 건넌을 때부터 그랬던것인데 어서 치차를 깎아가야 한다는 강심으로 일하느라 그것을 몰랐던것 같다.

(여기서 놀다니!)

입술을 깨물었다. 또다시 찬바람속에서 벼그루를 치는 농장원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 얼굴들이 무언가 자기를 질책하며 눈총을 쏘는것 같았다.

이때 누구인가 다가오는 인기척소리에 그의 상념은 깨어졌다. 봉달반장이 걸어오고있었다. 가까이 걸어온 그는 의아쩍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소조원동무가 왜 여기 누워있수? 포전을 돌다가 웬 사람인가 했구만. 어디 말해서 그러는게 아니요?... 아니 정말 낮색이?...》

봉달은 일어나앉은 명우의 손을 쥐어보더니 눈을 홑떴다.

《이런! 막 불덩이구만. 이런 몸으루 내려오다니.》

《반장동지, 별일 없습니다. 오다가 좀 쉬느라고...》

명우는 한순간 자기 손을 감싸쥐고있는 봉달반장의 장알진 큰손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터워지는것을 느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다음순간 자기 손이 아니라 농장원들의 손을 이렇게 잡고 수고를 헤아려줄줄 아는 반장이 라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허전해왔다.

《그래두 나는 다음에 내려올 법이지. 일을 하 루이들에 다 하겠소? 이거... 손에 물질이 다 생겼구만!》

봉달은 명우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놀라와했다.

《반장동지, 저보다도 지금 농장원들의 수고가 이만저만 아니더군요. 찬바람속에 여러날 벼그루를 치느라 거칠어지는 그들의 손에 대면 제 손이야...》

《허허, 농사군들 손이야 거칠어지는게 응당하지요. 붓끝같이 되면 못쓰우.》

봉달은 곁에 앉더니 그 말의 정당함을 실물로 증명이나 하듯 자기의 넉가래같은 손바닥을 마주대고 썩썩 비비었다.

《아닙니다. 붓끝같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명우는 속에서 그 어떤 절절한 격류같은것이 사품치는것을 느끼며 급급히 반장의 말을 부정하였다.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러자 봉달은 이 어인 말이나는듯 눈을 치뜨며 바라보았다.

《뭘요? 붓끝같이 부드러워져야 하다니?》

리해할수 없다는, 소조원이 실언을 하지 않는다는 질책의 빛이 봉달의 검스런 얼굴에 맴돌았다.

이날 이때까지 농사군의 손은 거칠고 투박해야

하며 그것이 오히려 농민의 긍지로, 자랑으로 된다는 것을 신조로 지녀온 그였다. 그것이 지금 새파랗게 젊은 소조원에게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지는 말을 (봉달은 그렇게 인정했다.) 듣고보니 얼떨쩍한 정도가 아니라 심한 모욕감까지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그 감정을 지그시 참는듯 봉달은 얼굴을 저쪽으로 돌리고 거친 숨을 쉰다. 그러더니 이렇게 배알듯 말했다.

《난 도무지 리해가 안되오. 농장원들이 들으면 뭐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두 그들은 힘든 일에서 빠지지 못해 적하문... 오늘 일만 봐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봉달은 낮을 찡그리고 덤덤히 앉았더니 이렇게 입을 연다.

《음전이까 또 안나왔수다.》

《무슨 일이 있는게 아십니까?》

명우의 눈앞에 그 집을 찾아갔을 때 불편한 손을 가지고도 일하던 음전의 모습이 떠올랐다.

《일은 무슨 일이겠소.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 우리 애가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왔다는데 뭐 수도가 고장난걸 고치느라구 불들구있다더군. 좋은 구실이 생겼을테지요.》

명우가 어느 정도 고장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그는 심드렁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알아보나마나 물이 좀 안나오겠지요.》

명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땀뻘 바람이 개천바닥을 거쳐 불어와 명우의 옷깃속으로 찌르고들었다. 팡팡 언 버드내며 갈숲 마가일에 떠내려가다가 얼어붙은 풀검불... 왜 그런지 명우는 그 모든것들이 꼭 봉달반장의 차거운 가슴처럼 느껴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왜 일에서는 그토록 성실하고 제 몸을 아낄줄 모르는 봉달이가 이런 데서는 그렇게 두터운 얼음장이란말인가!

《반장동지!》

명우는 느닷없이 이렇게 부르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많은 뜻이 담긴 전에도없이 격렬한 빛이 명우의 눈에 번뜩이었다. 소조원의 류다른 어조에서 심상치 않은것을 느낀 봉달은 흠칫하고 얼굴을 돌렸다.

《반장동지는 그저께 저에게 열성이 적은 음전 아주머니때문에 일하기가 말썽다고 걱정했지요? 이제 보니 그건 당연한 일인것 같습니다.》

《예?》

봉달은 그제 무슨 말이냐는듯 말꼬리를 길게 끌며 눈을 크게 떴다.

《물론 반장동지의 그 손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서 일해오셨는지 저도 헤아려지고 머리가 숙어집니다. 농장원들도 존경해왔을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할줄 모르는 일군을 그전엔 몰라도 지금은 따르지도 않고 존경도 하지 않습니다.》

명우는 숨돌리지 않고 계속했다. 며칠동안 삼으로 하는 그 일이 비록 크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 될수 있으면 한가지 일이라도 다 기계로 하자

고 제기하여온 사람을 진정을 가지고 대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힘든 일에서 빠지려는 구실을 댄다고 많은 사람들앞에서 추궁까지 했으니 그의 가슴에 얼마나 아픈 상처를 내주었는가.

《제가 음전아주머니를 찾아갔을 때 그 아주머니는 손을 싸매고도 쌀쌀한 밖에서 일하고있었습니다. 그런 손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농장일에 보탬을 주려고 남모르게 노력하는 그 아주머니를 본 저는 마음이 후터워지는 한편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과연 결린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귀중히 아끼고 사랑할줄 모르는 일군들의 차거운 심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말입니다.》

명우는 말을 마치고나서 한곳을 바라보았다. 인제는 퍼그나 솟아오른 해인데도 재빛의 두터운 구름장들에 가리워져 가냘픈 별밖에 내려오지 못하고있는 동녘하늘이었다.

문득 명우의 머리속에는 그 하늘밑 어딘가에 있을 고향마을이 떠올랐다. 그 순간 명우는 어제 밤처럼 또다시 가슴이 저릿해오는바람에 저도 모르게 손을 가슴우로 가져갔다.

명우의 고향집- 동해바다가 마을에도 농사짓는 어머니가 계신다. 방학기를 맞아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어서 가서 몸성히 공부 잘하라고 등을 밀어주시던 어머니, 지금은 3대혁명소조원 아들을 둔 기쁨을 안고 더 억세게 일하고계실 어머니...

명우의 어머니도 오랜 농사군이다보니 손이 크고 아귀가 세였다. 어느해엔가 마을에 모내기지원자들이 왔는데 그들은 명우 어머니가 모를 뜨는 모습을 경탄속에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혼자서 뜨면서도 곱절이나 빨리 떠나갔던것이다.

지원자들은 모두 찬사와 감탄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농장별을 가꾸는 보배손이라느니, 저런 손이 있어 나라의 쌀독이 넘쳐난다느니 하고...

중학교 1학년생이던 명우는 무슨 일로 어머니를 찾아나갔다가 그런 말을 들었다. 명우는 좋았다. 어머니손이 자랑스러웠다. 어느날 《보배손》이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지었는데 그것을 본 담임선생은 소년단벽신문에까지 붙여주었다.

그런데 혁명소조원으로 이곳에 파견되어와 일을 시작한 명우의 가슴속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봄풀싹처럼 머리를 들었다.

어느해 이 도의 한 농장을 현지도하시다가 농장원의 장알박힌 손을 보시자 오래오래 쓰다듬어주시며 시간을 지체하셨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

아, 수령님께서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였을까? 그때 아버지수령님의 심저에 깊이깊이 흐르신것이 과연 어떤 감정이였을까?

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손을 보배손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자식마저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손에 대해 그 이께서는 그토록 가슴아프시어 현지도의 그 바쁘신 걸음도 지체하시며 농장원의 거친 손을 잡고 놓지 못하시였다. 기계화라는 이 석자밖에 안

되는 말속에 수령님의 것처럼 뜨거운 인간애와 깊은 철학이 깃들어있었음을 이제야 알다니! 명우는 쓰린 자책과 모대김으로 하여 잠들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어제밤 그때의 일이었다....

(그런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십년을 농사일에 몸바쳐온 반장은 왜 손에 대해 그렇게만 생각하는가? 누구보다 새것을 지향해나서야 할 그가... 아니, 이견 자칫하면 누구나 포로되기 쉬운 감정이다. 고향마을에 나왔던 그 지원자들도 그랬고 나도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명우는 이것이야말로 스쳐버리기 쉬운, 오늘의 전진을 방해하는 묘한 장애물이며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빼내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서 당은 우리 청년인테리들을 믿고 3대혁명전위라는 큰 믿음을 주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한것이 아닌가! 현실속에서 배우는 동시에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낯은 관습에 물젖어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라고...)

명우는 어느때없이 어깨가 무거워왔다. 일에서는 얼마나 성실하고 가식이 없는 봉달반장인가! 이런면에서는 조금도 친근감이 덜어지지 않는 봉달에게 명우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반장동지! 제가 지금껏 한 말이 몹시 피로울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노하지 말고 잘 생각해주시요. 전 사실 반장동지가 저보다 나이도 우이고 말형같은분이어서 많이 재이고재이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음울한 얼굴을 숙이고 묵묵히 앉았던 봉달은 명우의 이 말을 듣자 웬일인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리하여 무엇인가 말하려고 고개를 들었으나 입을 열지 못하고 다시 얼굴을 돌렸다. 그러고있기를 얼마후-

봉달은 명우가 《참, 반장동지!》 하고 어느때없이 유난스러운 어조로 부르는 말에 되돌아보았다.

《회전씨레에 부하 걸리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씨레살밑에 조가비만한 반침판을 고여주면... 말하자면 미끄러운 감탕판을 맨발로 발톱을 세워서 걸을 때에는 넘어지지 않지만 발톱을 세우지 않고 편편한데로만 디딜 때에는 잘 넘어지는 리치라 할가요.》

명우는 섬에 갔다올 때 감탕판에 두어번 넘어지는 덕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어쩐지 쑥스러워 이렇게 에둘렀다.

봉달은 생각해보는 표정을 지을뿐 이번에도 무슨 말이 없다. 그러다가 어서 가서 그렇게 해보자며 명우가 들고 일어나는 차차를 그제야 본 봉달은 갑자기 《아니?!...》 하는 놀란 소리를 내었다.

감탕물이 튀여오른 명우의 옷, 열이 나는 손, 차차... 이것들을 련결시켜보고 모든것을 알아차

린 봉달은 그만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5

합숙집아래목에서 뒤시간가량 땀을 빼고 일어나니 열은 좀 내린듯했다. 명우는 그렇지 않아도 온몸에 좁이 쭈시는듯했던지라 부랴부랴 밖으로 나갔다. 이미 반장에게서 과업을 받은 트랙포르 운전수가 새 차차를 갈아맞추어놓았다. 그것을 운전수와 함께 트랙포르에 달고 수리분조로... 반침판들을 만들어 달고왔을 때는 정오가 거의 된 때였다.

기계가 모관으로 들어서자 일하던 농장원들이 우 모여들었다. 그들의 기대어린 얼굴들을 본 명우는 왜서인지 갑자기 코가 매워왔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충만 얼마간 녹은 논흙이며 버그루들이 회전씨레날에 맞아 뒤범벅이 되었다. 명우는 기계가 지나간곳에서 작업의 질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러던 그는 뒤시창으로 내다보는 운전수에게 손을 들어 흔들었다. 기계가 멎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 명우를 바라보았다.

《안되겠습니까. 버그루들이 말끔히 쳐지지 않습니다.》

명우의 말이였다. 이만큼만 해도 성과인데 그냥 돌리자는 말들이 들렸다. 하지만 명우에게서는 대답이 없었다.

명우는 생각에 잠겨 서있었다. 그는 반장이 왜 이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는지 더 깊이 리해가 되었다. 농장원들의 힘든 로동에 무관심한데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 일을 질적으로 하려는 농민다운 참마음, 그것을 리해해주지 못하고 부정 일면만 크게 보지 않았는가 가책되었다.

(그래! 그런 참마음을 나도 배우며 이 기계를 완성시켜야 한다!)

명우는 결심을 새롭게 했다. 그러나 줄곧 사색을 거듭했으나 좀처럼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늦어서 합숙집에 들어온 명우는 밥맛도 없어 조금 들고 상을 물렸다.

《아니, 왜 식살 그렇게 하나?》

합숙집어머니의 근심어린 말이였다.

《많이 먹었습니다.》

명우는 적당히 대답했다.

《쫓쫓, 요새 반장까타나 담고생울 좀 하나보구만. 듣자니 그 사람이 달가와안하는 기계를 또 내다 고친다면서?》

《허허, 왜 달가와하지 않겠습니까. 기계에 결함이 있으니까 그러지요.》

《하긴 그래. 그 사람이 일 하나야 파고드는 사람이지. 일을 건성건성 하거나 께를 부리는것들 한텐 칼날이니까.》

송농을 떠다놓으며 그 어머니는 말했다. 물그릇 틀려던 명우는 순간 섬광같은것이 머리속에 번쩍하는바람에 손을 멈추었다.

(칼날... 그렇지! 반침판을 완전히 오그리지 말

고 밖으로 퍼서 칼날처럼 버리면...)

예리한 그것이 벼뿌리들을 닿는 족족 요정내는 광경이 떠올랐다. 전에 없던 환희의 물결이 온몸에 번쳐움을 느끼었다. 왜 다리쉽도 하지 않느냐는 그 어머니의 말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서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기계는 완성되었다. 질도 최상, 능률도 50명의 로력을 대신!

농장원들이 환성을 울리며 기뻐할 때 명우는 뒤로 빠져 마을로 바삐 걸어들어갔다. 벌써 해질 녘이었다.

그는 봉달반장을 만나고싶었다. 아침에 버드네가에서 헤어질 때였다. 멀거니 서있던 봉달은 명우더러 어서 올라가 치료부터 받으라고 하며 등을 떠밀었다. 명우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며 앞서서 걸자 《사람두...》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는 봉달에게 《제 걱정은 마시구 음전아주머니네 수도를 좀 가 봐주십시오.》 하자 내키지 않아하는 표정으로나마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였었다. 흠과 거름에 절고 거친 들바람에 그슬려 두터워질 대로 두터워진 그의 검스런 얼굴이 처음으로 별거우리해졌었다.

그에게 기계가 완성된 소식도 알려주고 수도 고치는 일도 어떻게 되었는지 가보고싶었다.

명우가 음전의 집 마당가에 이르니 이미 일을 다 끝낸 모양 두 장정이 곡괭이며 삽들을 메고 대문밖을 나서고있었다.

명우는 마음이 홀가분해져 나는듯 부엌으로 들어갔다. 일을 벌려놓았던 자리는 벌써 깨끗이 정돈되어있었다. 수도꼭지를 틀자 썩- 하고 맑은 물이 쏟아져나왔다.

명우는 흥쁜 마음으로 사이문을 열었다. 집주인은 보이지 않고 앉은뱅이책상앞에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봉달반장이 얼굴을 돌린다. 순간 반색을 지으면서도 왜서인지 그의 눈빛만은 별 없었다.

《수도를 고치기 수고했습니다.》

봉달은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이나는듯 아무 대답없고 바라보았다. 기계가 좋게 완성되었다고 하자 그는 한순간 기쁜 표정을 짓더니 얼마후에는 다시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간다. 그러더니 책상위에 퍼놓은채로 있는 학습장을 들어 명우앞으로 내민다.

심상치 않은것을 느낀 명우는 봉달의 곁에 가 앉으며 그것을 받아보았다. 연필로 쓴 학생작문이었다. 웃머리에 《우리 어머니》라 제목을 달고 아래와 같이 썼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가을에 잡아온 망둥어를 아직도 먹지 않고있습니다. 내가 왜 먹지 않고 걸어만 두는가고 물으니 나를 불들고 머리만 쓰다듬어주며 말은 안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난 내가 처음으로 잡아온 망둥이기때문입니다....》

명우의 가슴에 대뜸 찌릿한것이 전류처럼 흘렀다. 먼저 왔을 때 보았던 학생아기와 그 어머니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우리 어머니는 무슨 일이나 다 제가 합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하여도 이답에 커서 하라고 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좋은 어머니입니다.》

그제 수도가 고장났을 때입니다. 내가 반장에게 말하자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작업반 일도 바쁘데 이런것까지 말하겠냐고 하며 못가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고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오늘 반장아저씨가 와서 수도를 고쳐주었습니다. 나는 반장아저씨 온것이 고마와 눈물이 나왔습니다....》

명우는 다 읽고나서도 오래동안 그 작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들의 귀여운 아이만이 아닌 커다란 그 무엇이 확이 고르롭지 못한 글줄들에 숨배여있는것 같았다. 그때의 의문이 풀려진 기쁨만이 아닌 어딘가 가슴이 쿵쿵 뛰는듯한 흥분을 지그시 누르며 봉달을 바라보았다.

《방금 쓴 작문 같군요?》

봉달은 한동안 별개진 눈으로 명우를 마주보다가 마치 무거운 물건이라도 받는것처럼 학습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그우에 눈길을 내리었다. 학습장을 전 손이 보일듯말듯 펼쳤다. 이윽고 봉달은 땅이 꺼질듯 한숨을 내쉬더니 석씩하면서 갈린 어조로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방금 썼지요. 우리가 수도를 고치고있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던 용남이는 나를 보자 아무 말 않고서있더니 <우리 집에 뭐하러 왔어요?> 하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 문을 탕 닫아버리는게 아니겠소. 난 할말이 없었지요. 그 애가 왜 그러는지 두 알구... 이제 옛말을 좀 해야겠수다. 난 원래...》

봉달은 얼마간 동안을 두었다가 떠듬떠듬 이었다.

《지금처럼 목석같은놈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이 아파하구 힘들어하는걸 생각해줄줄두 알았지요. 본조장이던 난 이 집 아주머니 남편이 불치의 병으로 돌아가구 혼자서 일하게 됐을 때 닥새가 멀다하게 들러 불이 안드는 부뚜막도 본조원들과 함께 고쳐주구 용남이한테 물총이나 낚시대두만 들어주곤했지요. 근데 반장이 되구, 복잡한 일에 물리면서 점차... 내 눈엔 그저 일 하나밖에 안보이더군요. 그래서 이 집에 밭길두 끊어지구 나를 가까이 따르던 용남이와도 멀어졌지요.》

봉달은 자신에 대한 쓰디쓴 환멸인듯 긴숨을 내쉬고나서 계속하였다.

《처음에 난 그렇게 된것이 마음에 좀 짝이긴 했지만 일군예젠 뭐니뭐니 해도 일이 첫째다. 그런 인정눌음은 바쁜 사람에겐 없어두 된다. 일을 잘하는데 내 충성심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자잘부레한것하구 꺼리낌없이 결별했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자잘부레한것이 이니라 큰것이였다는걸 몰랐지요.》

봉달은 그 《큰것》을 다시 찾게 된 기쁨인듯 얼굴에 진정의 빛이 흘렀다.

《그렇게 됐군요. 인제는 반장동지도 몹시 기쁘

했습니다. 음전아주머니만 아니라 그 애와도 순결하고 소중한 그것이 다시 이어졌으니말입니다. 참, 주인아주머니 언더 갔습니까?》

명우도 숫구치는 기쁨을 느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일나갔지요. 장정이 세명이나 왔는데 자기는 있을 필요가 없다구 하며…》

《그런가요? 보나마나 그 아주머니 일손에서는 신바람이 일었을겁니다.》

얼마후 두사람은 그 집을 나섰다. 뒤에 서서 나오던 봉달이가 웬일인지 주뭉거렸다. 명우는 류달리 생각깊어보이는 그가 심상치 않아 바라만 보았다.

나지막한 꽃벽돌 담장을 량견에 끼고 그닥 높지않게 서있는 널대문이 봉달에게 그 어떤 사연이라도 있는지? 그 널대문을 한동안 보고있던 봉달은 아닐세라 추연한 낯빛을 하고 명우를 돌아보았다.

《이게 바로 그전날 내가 만들어주었던 때문이지요.》

《그렇습니까?》

명우에게는 봉달의 말이 깊은 뜻을 담고 울려왔다.

《아마 5년전일겁니다. 그때 난 애들이 쥐기 줄게 큰 손잡이 말고 작은 손잡이를 이렇게 또하나 달아주었겠지요. 근데 이젠 애들이 커서 필요없게 됐는데두 그냥 달려있구만.》

파연 대문의 나지막한 자리에 안경테만한 쇠고리가 꺾히게 달려있다. 그렇게 세심하고 인정깊던 그였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봉달은 깊은 회심이 깃든 어조로 또 입을 열었다.

《음전아주머니가 수도를 고치다가 손을 다쳤다는것두 모르구 힘든 일을 하기 싫어 꺾병을 한다구 욕박지른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심장이 식으면 눈도 비뚤어지는가봅니다. 소조원동문 모르겠지만 이 아주머니 그전날 내가 입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집집을 찾아다니며 그 소식을 알려주면서 기뻐했지요. 그뿐인줄 압니까?》

우리 분조가 군적으로 농사를 제일 잘 짓구 경험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내가 떠나던 날 밤

혀 송편을 만들어가지구 고개길까지 따라왔었지요. 그걸 받으며 후터워지던 가슴이 어제같은데, 인제는 그 후덥던 가슴이 싸들하게 식어버렸단말입니다.

이런 내가 기계화에 관심을 두었으면 얼마나 두었겠습니까. 그리구 이런 나에게 의견을 가져온 음전아주머니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온 나는 얼마나 몸쓸 인간입니까.》

봉달은 말을 그쳤다. 목안에서 꺾 하는 소리가 났다. 얼마후 그는 피로게 다시 이었다.

《이제야 난 소조원동무가 농장원들의 손이 부드러워져야 한다고 하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집니다. 소조원동무가 아니었다면 난 언제까지나…》

봉달은 심한 자책속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했다.

해가 진 서편하늘가에 저녁노을이 여느때없이 붉게 타오르고있었다. 머지 않아 봄이 달음박질쳐올 서막인 모양이었다.

×

봄시위광경은 정말 불만하였다. 겨우내 얼어붙어있던 시내며 길바닥, 논과 밭의 물도랑 할것없이 드디어 찾아오고야만 봄의 후더운 입김에 녹아 엄청나게 불어난 물은 두터운 얼음장들을 등등 떠싣고 바다로, 바다로 웅웅히 흘러내린다. 어딘가에서 혼 혼한 열풍까지 불어오는것 같다.

명우는 종일 서서 바라보아도 싫지 않을 후련하고 장쾌한 그 광경에 이끌려 좀처럼 길을 축내지 못하였다. 허나 무슨 상관이라. 저렇게 얼었던 내물이 풀려 힘찬 봄시위가 시작되듯이 봉달반장이며 음전이... 모든 농장원들의 가슴에도 약동하는 힘의 계절, 성장의 계절이 왔음에랴! 문득 농사차비에서 지난해보다 열흘이나 앞당겨졌다고 기뻐하던 봉달반장의 검스런 얼굴이며 손타때문에 그동안 일을 얼마 못한 봉창을 하겠다며 먼저번 쉬는날에도 일하러 나왔다가 승인하지 않자 아쉬워하며 들어가던 음전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명우는 자리를 뜨면 그 정다운 얼굴들을 잃기라도 할듯 오래도록 버드내 기슭에 서있었다.

불라는 백양나무 외 2 편

손승래

그대로 불이구나 길길이 솟구치누나
밤이면 별빛을
낮이면 구름을 삼키며
너 강선의 백양나무야

번개치는 전기로의 화광이
너의 일만가지에 비끼고
뜨거운 열풍은 우뢰를 몰며
너의 천만잎새에 바람을 일군다

잊지 못할 그날의 폐허우에서
수령님 몸소 첫불을 지펴주실 때
로에 심장에 번져져
조선의 본때로 타오른 너

눈가루 흩날리던 해저무는 12월
엄혹한 추위를 녹이며 불담은 더욱 커졌구나
수척하신 그 모습 우러러 참을길 없던
사나이의 진한 눈물에 화염은 더욱 거세졌구나

한달음에 대공을 꿰지르는
천리마의 역센 날음만이 아니다

속도전으로 폭풍치는 너의 거센 불길속에서
얼마나 순결히 철의 신념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그루박혔던가

태양을 우러러 항도성을 받들어
가자 혁명의 눈부신 저 언덕
니의 줄기에 첫 불노을 어리던 그때의 불굴한
기상으로-
조국은 또다시 새 진군의 돌격나팔 높이
울려퍼나니

붉은 한빛으로 더욱 물들어
영영 푸른 하늘을 못보게 된들 어떠랴
전기로는 용암처럼 끓어솟고
쇠물은 사태처럼 쏟아져내린다

무성한 잎새마다 붉게 어린
백양나무야 더욱 세차게 타오르라
온 나라를 비약의 불도가니속에 휩싸일으키라
장엄한 속도전의 앞장에서
강선은 너를, 길길이 솟구치는 너를
기발처럼 높이 추켜들었구나

친근한 마음

층수를 더 올린 합숙의 큰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어
찾아오는 손님들 그리 많은가

집집마다 곱게 울바자를 두르고
지붕엔 높이 세운 안테나
파일나무도 다섯그루 잘 가꾼
착실한 주인들

한밤중 굶은비를 아니 탓하더라
어찌다 막차로 내린 초행길에
눕집 대문을 두드려도
따뜻이 전기불을 켜주더라

진정 구별을 몰랐더라
빠스로 승용차로
중앙의 손님들 외국의 벗들
련줄 잇닿았어도

우리 몇명의 실습생들을 위해
친절히 일정을 물려준 지령원의 고마움
한것을 고스란히 포전길에 바친
관리위원장의 수고로움이여

한결같은 그 마음 무던한 인정이
한껏 이삭으로 영글어
논에 밭에 둔덕에
꺼질듯 무거이 흥치며 설레는가

한해에도 몇차례
험한 두렁길을 밟으시며
만풍년의 옥좌에 앉혀주신 사랑
머리숙여 본받을 사람은 누구인데

다는 그 은정 갇을길 없어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손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는
속깊은 사람들

아, 누리에 펼쳐는 높은 명성우에
그 겸허함을 더하여 손님들
무시로 스스로없이
너의 큰 마당에 들어서는데 아닌가

농민들과 허물없이 명석에 앉으시고
농사일 의논하시는
아버이수령님의 소탈하신 모습-
마을어구에 높이 모시고사는
이 세상 누구나가 정겹게 부르는
아 청산리 친근한 마을이여

흥성이는 출근길

무슨 희한한 소식이길래
바쁜 출근길을 멈추었는가
네거리 게시판앞에서
사람들은 점도록 눈길을 못떼누나

화려한 장식그림을 받쳐 내붙인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시험 합격자 명단-
마치 제 자식이기라도 한듯
기쁨에 넘쳐 부르는 이름들이여

한작업반 동갑내기의 셋째로구나
합숙 주방책임자의 딸도 있고
일본에서 부모없이 귀국한
기술과 설계원의 막내도 있구나

아버지 밥곽을 들고
직장에 찾아오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대학생이 되다니-
희여진 귀밑머리 풀어넘기며
느슨히 미소를 짓고

설사 얼굴을 모른들 어떠리
모두가 하나같이 공장에 부모를 둔
아침마다 정문환영때

꽃목걸이 걸어주던 그 아이들이거니

아직은 네거리 게시판에 소개되었을뿐
고향의 울박을 벗어 못났어도
어찌 알라 세상이 떠드는 학자들속에
그 이름 어엿이 불리우게 될지

온 공장의 큰 경사런듯
화려한 장식을 받쳐 내붙인 이름
대학 일학생들의 소식을 두고
마치 제일처럼 기뻐들 하며
사람마다 가슴에 깊이 새겨안는것은

아 누구를 가리고 허물하였던가
한결같이 푸르게 열린 아이들의 미래
보배처럼 귀중한 재능의 꽃
아끼고 보살피고 키워준
당의 사려깊은 살뜰한 손길에
사십없이 더 충성할 한마음뿐이여라

눈부신 아침해 손저어부르는곳
활기에 넘쳐 출근길 다우쳐가는
공장구내 가득히 차고넘친
웃음소리 기대소리 함께 어울려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누나

비오는 날

비오는 날
흙탕물에 옷더럽힌
아들을 꾸짖어놓고
무심히 창밖을 내다보니
대줄기같은 비속에서
《도하》를 앞둔 다섯명의 《병사》들이
도랑가에 었다
《대장》나오기를 기다리고있었네

어깨에는 비에 젖는
수수대의 《련대기발》
채양없는 농립모 《철갑모》 밑에선
적화구를 노려 불뿜는 다섯아이의 눈빛들...

불현듯 눈시울 뜨거워났네
장난꾸러기로만 보이던 그 아이들
역수의 비속을 헤쳐나아가는
태일의 조국의 병사로 한없이 가슴에 소중해-

방금속

숲속의 재부

박동길

1

붉은해가 서산마루에 턱을 고였다.

단풍이 곱게 핀 숲언저리에 석양이 비끼자 대지는 녹녹해오고 산촌의 가을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왔다.

잡관목들이 키를 넘는 산길을 일부러 택하여 꼬박 80리나 걸어온 림호는 산양마을어구에 들어서자 어깨에 둘러메고온 옷웃을 툭툭 털어 입었다.

며칠전까지 군상업관리소에서 창고원으로 일하다가 이곳 산림보호원으로 임명을 받은 림호는 서른전의 건장한 청년이다. 군적으로 산림면적이 제일 많은 산양리는 환갑이 지난 방필규라는 로인이 산림보호원으로 일하고있었는데 그가 년로 보장수속을 하게 되자 림호를 배치했던것이다.

림호는 이미 몸에 폭 배인 창고원직업을 선풍 내놓기가 아쉬웠지만 대신 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다니는 산림보호원일이 오히려 더 신선할수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임명을 받자마자 곧추 왔다.

림호는 마을쪽을 바라보았다.

주인을 내놓고는 그 누구도 못들어온다고 서로서론을 잡고있는듯한 울울창창한 수림으로 둘러막힌 마을은 집집마다 텔레비존안테나가 우뚝우뚝 솟았다. 그는 어느썸에 산림보호원네 집이 있을가고 가늠해보았으나 딱히 알아맞힐수 없었다.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가꾸고 돌아오는 처녀교원을 마침 만났다. 림호는 가까이 다가서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산림보호원네 집이 어디 있습니까?》

처녀교원의 입가에 반가운 미소가 어리었다.

《우리 산림보호원아바이를 찾아오십니까?》

《예.》

《그럼 우리하구 함께 가시면 됩니다.》

림호는 반갑게 맞아주는 처녀교원의 눈빛에서 이곳 산림보호원아바이가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는 감촉을 받았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처녀교원이 산림보호원아바이의 자랑을 늘어놓았다.

산림보호원아바이는 온 산판을 제집 프락처럼 다닌다느니, 해마다 농장원들의 현금수입이 높은 것도 산림보호원아바이의 역할이 크기때문이라느니, 산에서 좋은것이 생기면 학교부터 준다는 등 시집간 딸이 친정아버지를 자랑하듯했다.

림호는 마음이 즐거워졌다. 자기도 이제 산림보호원을 하면 이런 선망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

이 들었기때문이다.

처녀교원은 산림보호원네 집이 보이자 들어가면 산림보호원아바이는 없어도 어머니가 있을거라고 일러준다음 학교쪽으로 멀어져갔다. ...

жат나무숲이 우거진 산기슭에 자리잡은 방필규네집은 프락남새밭에까지 나무모를 심어놓은것으로 하여 유표하다. 더우기 양철판을 오려서 시계 문자판처럼 만들고 거기에는 큰골, 노루골, 밤골, 도라지골 등의 순서로 적어놓고 가는 골명에 따라 바늘을 돌려놓는 《행차표식판》으로 하여 산림보호원네집이라는것이 첫눈에 알렸다. 림호는 집에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들자 조심스레 프락에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오시는 손님이신지요?》

토방에 앉아서 박속을 파내고있던 안씨가(그의 이름은 안옥희였다.) 일손을 멈추고 물었다.

《제가 여기 산림보호원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안씨는 기다렸다는듯이 달려나왔다.

《어이구, 온다온다 하더니만 정말 왔구만.... 어서 들어오게.》

방필규를 통해서 새 산림보호원이 온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있던 안씨는 마치 친아들이 온듯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편안히 앉으라구. 산길을 걷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안씨가 바가지를 다시 집어들면서 말했다.

림호는 제집에 온것처럼 토방과 마주한 방문턱에 걸터앉아서 안씨가 박속을 파내는 모양을 바라보았다. 쭈뼛하면서도 향기가 풍기는 바가지는 결이 유리표면처럼 반들반들한게 보기에다 탐스러웠다. 림호가 손끝으로 뒹겨보니 딱딱소리가 나는게 여간만 잘 영글지 않았다. 다만 바가지가 찌그러진것이 흠이었다. 톱으로 잘못 켜타이였다.

《톱질을 왜 이렇게 빼뺄게 했습니까?》

《그놈의 톱이 어디 바루나가줘야지... 아무리 곧추 켜느라고 해도 그저 옆으로만 달아나더라니까, 호호...》

《아니 그럼 어머니가 켜습니까?》

《내가 켜다네.》

《아바이보구 켜달라구 할걸 그랬군요.》

안씨는 손을 해해 내저었다.

《원 그런 말은 하지두 말게. 우리 평감은 그저 산밖에 모른다네. 아 오죽하면 내가 얻어온 저 금붕어를 보더니만 <그놈 참 잘 생겼다. 눈알이 룩 빼여진게... 산에 가져다 키웠으면 좋겠군.> 이러질 않겠나... 집안 살림살이 궁냥은 영 모른

다네.》

림호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두칸짜리 넓은 방안에 옷장이며 이불장 등 구색이 맞게 갖추어져 있으나 어쩐지 허전해났다. 그래도 수천정보의 숲속재부를 다루는 사람네 집안 살림살이가 너무나도 검소해보였던것이다. 오히려 안씨의 손탁에 좌우되는 부엌세간이나 가지가 휘도록 열매주렁진 뒤뜰안의 호두나무와 그밑에서 대가리를 빼죽이 내민 백도라지가 더 큰 재산처럼 보였다.

림호는 저으기 서운해지는 마음을 누르고 안씨에게로 얼굴을 향했다.

《아바이가 여기서 산림보호원을 하신지가 오래 됩니까?》

《전후부터이니까 한 30년 넘었지.》

《그전엔 어데 있었습니까?》

《령감이 군대에서 제대되어 처음 왔을 때는 신탁수리직장에서 배수리를 했다네.》

《그런데 어떻게 산림보호원을...》

림호는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말 다 하자면 끝이 없네... 정전도 되고 해서 이젠 좀 살림을 펴고 살아볼까 해서 찾아갔더니 글썽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배수리할 나무를 찍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되돌아온 뒤에 산림보호원으로 되였다네. 내가 산골에서 못살겠다구 돌아가자구 하니까 역정을 내더군. 우린 말다툼까지 했다네. 난 여기서 못살겠으니 바다가마울로 돌아가자거니, 가겠으면 혼자서 가라거니... 허나 소용 없었네. 너자란 바늘에 꿰운 실신세다보니 입을 빼죽이 내밀고 주저앉을수밖에... 막상 살아보니 괜찮더군. 산종구 물맑구 공기좋구... 우리 아들 셋은 감기 한번 안앓구 모두 통나무같이 자랐다네. 그래서 그런지 군대나간 셋째는 제대되면 꼭 여기로만 오겠다구 한다네.》

안씨는 셋째가 제대되어 와서 장가들면 첫살림에 보태여주려고 바가지를 굳혔는데 그만 찌그림 바가지가 되었으니 새 며느리가 좀 서운해할것 같다고 말했다.

림호도 아쉬웠다. 아무리 산판일이 바쁘기로서니 바가지 하나 켜줄 시간이 없단말인가. 누가 지켜서서 보는곳도 아니요 이따금 경영소 일꾼들이나 들리곤하는 이런데서 하루이틀쯤 집일을 한다고 숲속일이 망가지는것은 더더욱 아닐것이다.

《셋째가 제대되기전에 가구를 한조 마련해놓아야겠군요.》

《글썽- 령감이 상품주문을 해놓았겠는지...》

《아니 이 술한 나무를 가지고있는분이 구태여 군에까지 주문할 필요가 있어요? 제 마음에 드는 나무를 골라서 알뜰하게 만들어야지...》

림호의 말이 채 끝나기전에 안씨는 손을 뻗어내저었다.

《아이구 말두 말게. 우리 령감같은 꼭자가 제손으로 가구를 만들 나무를 골라? 아이구, 30년동안 같이 살면서 부엌선반감 하나 산에서 가져오

는걸 못봤네.》

안씨의 말은 림호의 가슴을 벌스레 켕기게 했다.

상업관리소 창고원을 하는 어간에 상품을 주문한 일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없다. 집안에는 고급가구가 그들먹이 들어찼고 요전날에는 고사촌 조카사위한테까지 세간살이 일식을 갖추어준 림호였다.

림호는 얼굴을 슬며시 외로 틀었다. 뜨끈뜨끈해오는 제 얼굴을 안씨가 볼것 같아서였다.

다행히도 안씨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섰다.

《아이구 내가 정신이 나갔군, 얼른 저녁준비할 생각은 앓구...》

안씨가 부엌으로 내려섰다. 림호는 긴 숨을 후-내쉬고 밖으로 나왔다.

어느덧 날이 저문 바깥은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했다. 이 산골에선 제가 제일이라는듯이 어깨를 추어올린 우중충한 산봉우리들과 군데군데 뻗여져나온 바위메부리들이 어둠속에 우뚝이 룬박을 드러내고있었다. 어데선가 밤새의 울음소리가

《뽕조르릉》 들려온다. 림호는 바위위에 올라앉은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보이는건 산뿐이요 들리는건 구배사나운 산골 물소리뿐인 이 한적한 산골에서 30여년을 하루와 같이 산림보호원으로 일해온 방필규아바이...

말 못하는 나무와 바위, 게다가 산림보호원이란 돌도 아니고 혼자서 하는 일이니 보는 사람 없고 말해주는 사람 더더욱 없을것이다. 그렇지만 제집 토방돌우에 놓인 바가지 한통 결줄 모르고 늦도록 산에서 돌아오지 않으니 어느덧 림호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의 심정이 되어 버렸다.

(왜 아직 안오실까? 나이 많은 로인이 밤길을 헛들지나 않았을가?)

이때 어둠을 살피며 집쪽을 향해 마주오는 사람이 얼핏 보였다.

어느새 안씨가 마주 달려나왔다.

《원 오늘이야 좀 일찍 올것이지 왜 이제야 오시우. 누가 왔는지 아시우?》

《누가 왔소?》

《온다던 산림보호원이 왔수다.》

《그래?》

방필규아바이가 배낭을 벗어놓더니 방문을 벌컥 열었다. 방안에 있을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림호가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했다.

《아바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필규아바이는 방안에서 비쳐나오는 전등불빛을 받아 환하게 드러난 림호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이게 누군가? 낮에 지당강가에서 만났던 젊은이가 아닌가?》

《?》

림호도 인차 알아보았다.

림호는 해지기전에 목적지에 가닿으리라고 작정하고 부지런히 걸었다. 풍류산고개를 단숨에 넘어섰다. 이제 지당강을 건너서 왜갈바위쪽으로 얼마쯤 더 올라가다가 북쪽방향인 고슴도치골쪽으로 꺾어서 봉수령 기슭을 돌아서면 산양리이다.

림호는 강으로 건너간 다리를 찾느라고 앞을 보았다.

흰바위와 여울목을 굴러내리는 강물줄기는 락타의 등처럼 툭 뻗어져나간 바위앞에서 큰소를 이루었다가 다시 절벽을 뛰어내려서는 마치 다리쉽이나 하듯이 유유히 흘러가는데 버들가지가 늘어진 강기슭에는 웬 로인이 앉아서 가래알을 씻고있었다. 로인의 옆에는 잘 영군 가래알이 한배낭쯤 모아져있었는데 그는 다래끼에 조금씩 담아서 물속에 넣고 살랑살랑 흔든다. 그러면 가래알들이 다르록 다르록 소리를 내며 깨끗이 씻겨졌다.

림호는 산골사람들의 생활의 한도막을 보는듯했다. 그쪽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다리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림호는 주춤 멈춰섰다. 로인이 강아래쪽으로 침범침범 내리뛰었기 때문이다. 림호는 큰 물고기가 튀어나온게라고 짐작이 갔다. 그는 돌맹이를 집어들고 뛰어갔다. 물속에 침범당 들어섰다.

《어데 있습니까?》

로인이 흠칫 놀라서 말했다.

《아니, 거 신발이랑 옷이랑?...》

림호는 상관없다는듯 물밑만 두리번두리번 살피었다.

《자네 뭘 찾나?》

《물...고기...》

《허허, 고기는 무슨 고기...》

로인은 손에 찾아쥐었던 가래알을 다래끼속에 소중히 집어넣었다.

《?》

림호는 어이가 없었다. 신발을 벗어놓고 바지가랭이를 쥐여짜며 불평비슷한 말을 했다.

《그러니까 가래 한알때문에...》

로인이 무슨 소릴 하느냐는듯이 말했다.

《왜 가래 한알이 작아보이나?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이라구...》

《재산이요?》

기가 막혔다. 그렇게 재산을 깡그리 주어모으면 재산난가리우에 올라앉을 령감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나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꺾었다.

로인도 자기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림호의 신발을 집어들더니 물기를 탁탁 털었다.

《괜찮습니다. 인주십시오.》

그러나말거나 로인은 신발안의 물기를 말끔히

가서낸 다음에야 돌려주었다.

《자넨 대체 어느 직장에 다니나?》

로인은 날과람있고 혈기왕성한 청년이 마름을 든다는듯이 물었다.

《에... 그저...》

림호는 어름어름 대답했다. 이제 금방 임명을 받고 가면서 산림보호원이라고 말하기도 딱하고 이미 내놓은 상업관리소 창고장이라고 대답하기도 멋적었기 때문이다.

로인도 더 캐어묻지 않았다. 다만 기왕사 앓았던김에 좀 쉬어가라고 권할뿐이었다.

림호는 그럴 시간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로인이 《가만 좀 있게.》 하더니 배낭아구리를 열고 서너웅큼쯤 주어넣었던 밤을 몽땅 털어서 림호의 배낭에 넣어주었다.

《보아하니 갈길이 바쁜 사람같은데 내가 길을 지체시켜서 안됐네. 가면서 먹게. 올해두 산에 밤이 잘 열렸어.》

《고맙습니다, 로인님.》

림호는 로인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잔주름만 그득한 로인의 모습은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한 얼굴이었다. 꼭 다문 입모습만이 아무나 가질수 없는 그 어떤 숭고한 뜻을 품고있는듯했다. ...

낮에 일이 떠오른 림호는 방필규아바이가 지고온 배낭부터 보았다. 깨끗이 씻은 가래알이 한배낭 들어있었다.

《이건 뭇하려고 이렇게 정성스레 씻었습니까?》

《래년에 종자 할거네....》

림호는 방필규아바이의 일숨씨가 여간만 간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2

림호는 방필규아바이를 따라 산림보호구를 인계받기 위해 산으로 갔다.

방필규아바이는 집을 나서면서 배낭안에다 톱, 낫, 괭이 그리고 복잡한 등고선과 식물분포상태가 표시된 산림 립상도와 조림일지 등 필요한 문건들과 함께 점심밥까지 챙겨넣어가지고 떠났다.

림호는 제가 지고가겠다고 했으나 방필규아바이는 산림보호원을 하면서 늘 배낭을 지고다녀버렸더니 이젠 등에 배낭이 없으면 무엇을 잃어버린것 같이 허전하다고 우기는바람에 빈몸으로 따라섰다.

나무잎사귀들이 내뿜는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림호는 원족을 가는 어린애처럼 마음이 즐거웠다. 활개를 휘휘 저으며 방필규아바이의 앞에서 걸었다.

동구길을 벗어나 물도랑을 건너뛰어 발뚧길로 한참 걷다가 산기슭에 당도한 림호는 부식토가 두텁게 깔린 평퍼짐한 공지앞에 이르러서는 우뚝 멈춰섰다,

《야! 땅이 참 좋구나! 발목이 다 푹푹 빠지는구나. 쿵, 강녕이? 아니 감자를 심었으면 좋겠군. 아바이! 매년에 여기에다 감자를 심었다가 나누어 먹읍시다. 팽이로 푹푹 파چه끼구... 종자는 내가 구해오지요. 한 서너말... 아니 아예 한가마니쯤 심읍시다. 아바이, 이 땅 구경 좀 하세요...영?》

림호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방필규아바이가 곁에 없었다. 여적 혼자서 말을 했다는 생각이든 그는 싱겁게 입맛을 다시었다.

(방금 따라오겠는데 어델 갔어....)

오던쪽을 살펴보니 방필규아바이가 풀숲에서 무엇을 얻어 들고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부지런히 가보았다. 길이가 한뼘남짓한 이빨나무모가 보였다.

《아직도 이렇게 락후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니까... 어제 나무를 심으러 온 사람들한테 나무모를 세여주면서 그만큼 당부했는데도 이렇게 흘려버리다니. 쫓...아마 제집 터밭에 심을 감자종자였다면 이러질 않았을거네...》

방필규아바이는 배낭에서 팽이를 꺼내 들고 방금 림호가 서있던 공지쪽으로 가더니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뒤편 허부적거리고 심어도 되겠건만 그는 무릎정쟁이 길이만큼이나 깊이 파고 걸충의 부식토를 반이나 채워넣었다. 그러고도 무엇이 부족한지 머리를 뒤편 기웃거리고 나서 배낭을 풀어헤쳤다. 점심밥판이 들어있는 비닐주머니를 꺼내서 림호에게 주며 물을 떠오라고 했다.

벌써 아득히 멀어진 물도랑쪽을 바라보면서 언제 저길 갔다오나 하고 망설이던 림호는 독촉하는 듯한 방필규아바이의 눈길과 마주치자 부리나케 뛰어가서 물을 담아가지고 왔다.

방필규아바이는 물 한주머니를 다 쏟아놓고서야 흡족하다는 듯 나무모를 심었다.

《하루밤 바람을 맞았으니 뿌리가 말랐어. 물을 주지 않고 심었다간 아예 죽어버리고말걸세.》

방필규아바이는 묘목주위를 발로 푹푹 밟아주고 나서 말했다.

《자 이젠 기동감이 될 때까지 자네가 책임져야 하네.》 인제한다는 뜻이다.

《그리구 나무모가 생기거들랑 마저 누비게... 이런 빈자리가 없이 인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그말을 들은 림호는 별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방필규아바이가 감자를 심자고 하던 제말을 다 행히도 못들었으니 망정이지 들었더라면 뭐라고 했으랴 하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다....

방필규아바이가 산을 인제하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자네가 관리해야 할 산은 저기 풍류산 낮은 봉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쪽 산양리로 흐르는 지당강하류를 거쳐 저 북쪽 추태산을 넘어간 리경계선까지네. 면적 무려 4,800정보나 되지... 오늘부터 이제 다 자네의 수중에 들어왔네.

그만큼 할일도 많네. 우선 식수를 잘해야 하구 그다음 제초작업, 나무모생산... 그러자니 종자파기, 또 봄가을이면 산불이 일지 않도록 잘 대책 하구 게다가 약초채배, 그다음은 동물들도 잘 보살펴주어야 하네... 그것뿐인줄 아나? 사람들도 잘 교양해야 하네. 이를테면 숲을 사랑하구 숲속의 재부를 귀중히 여기도록...》

방필규아바이는 림호를 이끌고 림반, 소반을 거처 골짜기와 룡선 지어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바위밀까지 찾아다니며 호주머니속의 동전일을 세여주듯이 하나하나 인제했다.

림호는 방필규아바이를 따라 숲속길로 들어가면서 기억이 점점 아리송해짐을 느끼었다.

상표가 붙은 창고안의 물건과는 달리 수자로 셀수 없는 방대한 산림구역안의 재부를 한꺼번에 인제받자니 아름이 찼다. 부지런히 따라다니며 눈에 익히고 머리속에 새겨넣느라고 했지만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은게 분간하기 어려웠다.

(내가 어느 골짜기로 올라왔던가?)

잠간 뒤를 돌아보는 사이에 방필규아바이를 잃어버리었다. 숲속을 두리번두리번 살피었다. 보이지 않는다. 곰의 발자욱만이 들판에 찍혀있을 뿐...

림호는 서둘렀다. 덩굴속을 꿰질러 이쪽 기슭으로 가보았다. 없다. 저쪽 등성으로 올라가보았다. 거기다 없다.

(차, 이것 바라!)

이젠 하는수없이 큰소리로 불러봐야만겠다고 생각한 림호가 입에 손나팔을 가져다대려는 찰나 《쉬! 조용하라구.》 하는 목소리가 벼랑끝에서 들리었다. 올려다보니 방필규아바이가 톱으로 나무아지를 조용조용 베고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림호에게 톱을 넘겨주면서 《두가치만 더 따게.》 하고는 이미 베여놓은 나무가지로 벼랑끝에 저놓은 울타리를 손질했다.

《?》

림호가 의아해하자 방필규아바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길 좀 보게.》 하고 고개짓으로 가리켰다.

《어데말입니까?》

《아, 저기 칙덩굴속을 말이야.》

그제야 알아본 림호는 그만 환성이라라도 지를 번했다. 마른 새초가 두툼히 깔린 칙덩굴속에는 송아지만큼이나 큰 노루가 벌렁 드러누워서 낮잠을 자는데 그 코밑에서는 산토끼란놈이 풀잎을 입에 문채 까닥까닥 조을고있었다.

《저놈들은 본래 성미가 급해놔서 저렇게 태평스레 자다가도 무엇에 놀라기만 하면 아무곳이나 막 내리뛰다네... 그래서 작년에도 새끼난 노루가 이 벼랑에 굴러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일이 있네... 잘 기억해두었다가 매년에두 다시 한번 손질해놓으라구...》

방필규아바이는 림상도에다 그곳을 빨간색 연필로 점찍어놓고나서 자리를 폈다.

림호는 바투 따라섰다. 헛눈을 팔다가 방필규아바이를 잃어버리면 큰 고생을 하게 되리라는 위구가 들었던것이다.

《여보게, 너무 바투 따르지만 말고 서너발 물러나 걸으면서 솔잎을 좀 살펴보라구. 벌레가 끼지 않았다.》

그제야 림호는 방필규아바이가 솔잎을 관찰하고있는것을 보았다. 도수높은 안경을 끼고 확대경까지 손에 든 방필규아바이는 산림보호원이라기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식물학자 같았다.

《음, 아직은 별일이 없군.》

방필규아바이는 림호를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얼마전에 린접 산림안에서 <흑파리>라는 병해충이 발견되었던 일이 있으니 그놈들이 여기까지 침습해오지 않는지 잘 관찰하라고 일러주었다.

림호는 몇발자욱 떨어져 걸으면서 솔잎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서도 눈길은 방필규아바이쪽에만 가있었다. 또 무슨 왕청같은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수 없었기때문이다.

아니나다를가 이번에는 난데없는 동굴속으로 쭉 들어가는것이였다.

림호가 날쌔게 따라들어갔다.

《여기가 자네의 <후보지>네,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거들랑 여기에다 몸을 피하게. 그리구 그 시간엔 이것들을 손질하면 되네...》

자연동굴안에는 참나무토막들이 규모있게 쌓여져있었는데 회한하게도 버섯이 봉긋봉긋 돋았다.

방필규아바이는 버섯 기르는 방법을 한동안 설명해주고나서 유치원애들에게 이걸 먹이면 위가 든든해지고 소화불량병이 싹 없어진다고 하면서 버섯로리를 만드는 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었다.

림호는 어안이 병병했다. 제가 지금 산림보호구를 인제받고있는지 아니면 방필규아바이한테서 무슨 강습을 받고있는지 잘 분간할수 없었다.

림호가 전람관을 보고난듯한 기분으로 동굴밖을 나서니 숲사이로 쏟아져내리는 햇빛이 눈을 쏘프리게 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뜬채 숲을 둘러보았다. 처음엔 푸른 룰락으로만 안겨오던 숲은 점차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까지 숨김없이 비치왔다.

풀과 룰선마다 빼곡이 들어찬 나무숲은 대자연의 위용을 자랑하며 우우 설레이는데 숲속을 걸어가는 방필규아바이의 어깨를 스치는 나무잎사귀들은 마치 단물을 더 달라고 칭얼대며 어리광을 부리는듯했다. 기묘하게 높이 솟은 절벽우에서 서서아래를 굽어보니 지당강의 시작과 끝이 한눈에 다 바라보이는데 발밑엔 무르익은 돌배알이 한삼치나 쏟아져내렸다.

방필규아바이의 성실한 손길에 떠받들리운 숲은 가는곳마다 산과일향기, 송진냄새, 후두둑 도

토리떨어지는 소리로 풍성한데다가 이쪽에서 장평이 귀경! 하고 울면 저쪽 골짜기에서 북작노루가 액! 하고 소리친다.

마치 《너 아바이 봤니?》 《조금전에 봤다》 하고 서로 묻고 대답하는것 같았다.

숲은 정말 이리 보면 파원같고 저리 보면 울타리없는 목장같은 보물의 창고였다. 그림처럼 아름답고 화원처럼 싱그러운 숲향기에 매혹되어 멍청히 서있던 림호는 《자, 이제 한낮이 된것 같으니 점심을 먹고 가세》 하는 방필규아바이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리로 갔다.

방필규아바이는 방안처럼 넉적한 너럭바위우에다 점심밥을 퍼놓았는데 그밑엔 웅달샘물이 있었다.

림호가 들여다보니 개구리입만한 째므로 솟구치는 물줄기는 손으로 막기만 하면 온 땅덩어리를 탕! 하고 터뜨릴것만 같았다. 샘물속엔 수세좋은 참나무숲이 꺼꾸로 비졌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있는 방필규아바이의 얼굴이 우렁치 비껴왔다. 숲을 가꾼 흔적이런듯 얼마 남지 않은 머리총은 하얗게 희어져 젊은 시절의 방필규를 아득히 떠올려보냈건만 오히려 그것으로 해서 더욱 빛나는 눈동자는 물속에 잠겨어놓은 진주같았다.

림호는 샘물에 비친 방필규아바이의 얼굴모습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저 아바이의 가슴속엔 무엇이 들어있을가?)

이슬에 신발 젖고 산길에 더운 땀 흠뻑 흘려도 마음은 그저 숲에만 두고있으니 이런 땀 무슨 말을 골라서 이야기해야 할지...

방필규아바이가 손에 들었던 더덕을 넘겨주며 말했다.

《자, 고추장에다 이걸 꼭꼭 찍어먹으라구. 벌레할절세.》

그야말로 천하진미였다. 림호는 입맛을 돋구는 더덕반찬으로 하여 어느덧 밥그릇을 다 비웠다. 그다음 샘물을 떠서 꿀꺽꿀꺽 마시었다.

《물맛이 어떤가?》

림호는 대꾸하기가 멧적은듯 벌쭉이 웃기만 했다.

《물맛이 왜 그리 좋은지 아나? 보물속에서 나오기때문이야. 풀 한포기 내버릴것 없는 산속엔 온통 보물뿐이니 왜 물맛이 좋지 않겠나. 허허허.》

방필규아바이는 말만 해도 흐뭇하다는듯이 고개를 제끼고 껄껄 웃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은 소리였다. 아니 그보다 방필규아바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때문이라고 림호는 생각했다.

《아바이, 물론 아바이가 처음 이 산에 오셨을 때는 산이 이렇게 울창하지 못했겠지요?》

불쑥 묻는 림호의 말에 방필규아바이의 얼굴이 약간 흐려지는듯했다. 그는 자기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기라도 하듯이 담배를 천천히 불어물고

나서 말했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네. ... 일본놈들이 다 찍어먹은데다가 미국놈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해서 모두 불타버린 산은 해종일가야 짐승의 소리한번 들을수 없었네. 온통 벌거숭이었지...》

《그래서 아바인 배수리할 나무를 찍으러 왔다가 아예 몰러왔었군요.》

《?》자네가 그 일을 어떻게 아느냐는듯이 림호를 쳐다보고난 방필규아바이는 《허어... 우리 로친네가 또 무슨 말을 한게로군...아마 그때 내가 아니구 다른 사람이 왔댔어두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을거네...》 하고 빙긋이 웃었다.

방필규아바이는 림호를 보고 갑자기 산길을 걷다나니 다리가 아프겠으니 좀 쉬라고 이르고는 숲속어데론가 사라졌다.

림호는 정말 다리가 빠근했다. 창고장을 하면서 별로 산길을 걸은 일이 없는 림호였다. 다리를 쭉 펴고 너럭바위우에 벌렁 드러누운채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부리로 나무를 딱딱 두드리는 딱따구리소리를 듣고 깨어난 림호는 아직 방필규아바이가 돌아오지 않은것을 알자 주위를 살펴보았다. 배낭만 덩실할뿐 보이지 않았다.

《아바-이!》

《어-어!》 멀지 않은곳에서 들려왔다. 그쪽으로 찾아갔다. 숲속에 묻힌 방필규아바이의 뒤모습이 드러났다. 림호는 눈을 크게 뜨고 멈춰섰다.

무성하게 자란 참나무숲속에 숨겨졌던 커다란 약초밭이 림호의 눈에 띄었다. 다락밭처럼 이랑을 지은 약초밭에는 크고작은 약초포기들이 아지를 활짝 펼치었는데 가을바람을 맞아 누렇게 황이 든 잎사귀들은 마치도 이젠 제 나이를 다 먹었으니 어서 캐가시오 하는듯했다.

림호는 불현듯 두살잡이 아들생각이 났다. 한 뿌리만 먹여도 감기 한번 앓을것 같지 않았다. 하나 림호는 자기를 제지하며 나무등뒤로 한발 물러나 몸을 숨기였다. 방필규아바이가 등을 구부린채 저쪽 발머리를 파헤치고있는것을 보았던 것이다. 인삼을 몇뿌리 캐는게라는 짐작이 대뜸 났다. 그는 못본체하고 돌아섰다. 술한 재부를 산에다 마련해놓은 방필규아바이가 제 손으로 가꾼 약초 몇포기 캐는것쯤은 너무나도 웅당한 일이라고 여겨졌다. 더우기 인제도 끝나가고있으니 그럴수 있다고...

림호는 방필규아바이의 립장을 딱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너럭바위로 다시 돌아왔다.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방필규아바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모조리 다 캐러나!)

다시 찾아갔다. 순간 림호는 돌처럼 그자리에 굳어졌다. 방필규아바이는 약초를 캐는것이 아니라 물도랑을 치고있었다.

《작년부터 저쪽 웅덩이에 습기가 녹녹히 차오르더니 이젠 제법 물줄기를 이루었어. ... 미리 대책하지 않다가 약초밭을 녹이겠네.》

《...》

림호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거렸으나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저 멍청히 서있기만 했다.

《후에 짬이 생기거든랑 저 웃쪽으로 물도랑을 하나 더 짜주게, 큰비가 내려도 물이 쭉쭉 빠지게스레...》

《예, 알았어요.》

림호의 대답은 똑똑했으나 마음은 별스레 불안하였다. 방필규아바이의 뜻과 림호의 생각은 늘 맞지 않았기때문이다.

상업관리소 창고장을 할 때 있었던 가구문제, 이 산에 처음 온 날 산기슭의 공지를 보고 감자농사할 궁리를 할 때 방필규아바이가 풀숲에서 얻은 한대의 나무모, 그리고 방금 약초밭을 두고 한 자기의 생각. ...

림호의 마음을 넘겨짚은듯이 방필규아바이가 말했다.

《산림보호원은 그저 이런걸 위해 필요하네. 산에 나무한대라도 더 심구 약초 한포기라도 더 자래워서 산에 재산늘이는 재미에 산다네. ... 자네 먹지않구두 배가 부르다는 말이 뭇지 아나? 이제 지내보라구....》

방필규아바이는 약초밭만은 좀 간간히 인제해야겠다며 포기수를 세어서 넘기였다.

문건에 그득히 오른 약초포기수를 들여다보는 방필규아바이의 눈은 한껏 만족한 기쁨으로 빛을 뽐고있었다.

림호는 슬며시 그 눈빛을 외면했다. 과연 내가 상업관리소창고안의 상품을 다룰 때 저런 희열을 눈빛에 담아본적이 있었던가?...

방필규아바이의 눈빛이야말로 성실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에게서만이 찾아볼수 있는 눈빛이었다.

림호는 제가 상업관리소 창고장을 할 때 그 무슨 큰것을 놓쳐버리고 살아온듯했다. 더우기 방필규아바이한테까지 하나를 주겠으니 대신 다른 하나를 달라는 식으로 거래를 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일이 그 무슨 용서받지 못할 죄악처럼 생각되었다.

3

마가울이 다가올수록 산촌의 나무잎은 단풍을 한껏 물들이었다. 풍류산의 높은 봉우리는 붉다 못해 라는듯했다.

산림보호구를 인계받느라고 열흘 남짓이 산길을 걸은 림호는 어느덧 숲에 정이 들기 시작했고 숲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게다가 오솔길 같은건 묻지 않고도 제혼자 찾을줄 알았고 점심밥을 먹던곳도 립상도만 펼치면 제격 알아맞히었다.

《자, 이만하면 인제가 끝난것 같으니 넘겨받게.

... 이제부터 이 산의 주인은 자넬세. 아무쪼록 일을 잘하게...》

방필규아바이가 일체 문건을 림호에게 넘겨주었다.

림호는 문건을 넘겨받으면서 별로 마음이 송구해짐을 어쩔수 없었다.

방필규아바이의 손길에 닿아 보풀이 일고 때가 묻은 문건들. ...

비록 필체는 곱지 못하게 삐뚤삐뚤 씩여졌어도 수자 하나라도 틀릴세라 돋보기너머로 건너다보면서 또박또박 박아쓴 글자들은 그대로 한 인간이 남겨놓은 생의 기록장처럼 보였다.

대림림의 설레이미 거기에 다 있고 나무잎에 매달려 우는 풀벌레소리마저 모두 그 글줄에서 태어난듯했다.

사색에 사색을 구울리며 문건의 갈피를 뒤적이던 림호는 문득 안씨가 속을 파내던 찌그렁바가지 생각이 났다. 방필규아바이가 그 찌그렁바가지와 이 문건을 바꾸어가진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렇게 만든 책임이 자기에게 다 있는듯 했다.

(안된다. 이제라도 무얼 하나 마련해드려야 한다.)

림호는 방필규아바이한테 썩 다가앉으며 말했다.

《아바이,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나무를 좀 몇대 주십시오.》

《그건 뭇하려?》

《그저... 살림살이에 필요해서...》

《음-》 입을 국 다문채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던 방필규아바이가 힘겹게 입을 떼었다.

《음... 새살림살이에 나무가 좀 필요할수도 있지.... 허지만 당장은 안되겠네. 군산림경영소와 토론을 해야지....》

림호는 방필규아바이가 30년동안이나 숲을 가꾼 기념삼아 그리고 또 제가 상업관리소 창고장을 할 때 받은 부탁도 실현할겸 가구를 하나 마련해주리라고 마음먹었다. 생각같아서는 당장 몇대 찍어서 만들고싶었으나 방필규아바이 모르게 나무를 찍을 생각은 없었다. 방필규아바이가 있을 때 다른 핑계를 대고 몇대 얻을 생각을 하고서 말했는데 군의 승인을 받아야겠다는 대답이 나왔다.

《원 아바이두... 나무 서너대 찍는것두 뭐 군에까지 상정시켜야 되나요? 아바이 권한으로 몇대 주십시오.》

방필규아바이의 볼이 약간 실룩했다.

《허어... 모르는 소리. 산림보호원은 가꾸고 보호할 권한밖에 없네. 쓸 때는 다 우의 승인을 받아야 하네.》

림호는 더이상 조르지 않았다. 방필규아바이가 말하면 군에서도 반대 없을것이라는 믿음이 갖기 때문이다.

이튿날,

방필규아바이가 아침일찌기 림호를 찾아 합숙으로 왔다.

《여보게, 어서 산으로 가세. ...군에 전화를 걸었네. 꽤히 승낙하더군.》

《그래요?》

림호는 기뻐다. 톱과 도끼를 가지고 방필규아바이를 따라 산으로 갔다.

방필규아바이가 기뻐하는 림호에게 말했다.

《내 산림보호원 30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사사용무를 들어주니 그런줄이나 알아두게.》

《고마워요, 아바이.》

방필규아바이는 림호를 데리고 숲속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고르기 시작했다.

똑같이 미끈하게 자란 나무들이니 아무것이나 서너대 짊어주었으면 좋으련만 방필규아바이는 온 산판을 다 헤매일 작정이였다. 아마도 더 좋은 나무를 골라주려고 그러는거라고 생각했다. 말없이 따라다녔다. 끝이 없다. 해는 벌써 한낮이다 되었다. 림호는 이러다간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방필규아바이한테서 툭 떨어져나와 혼자서 나무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림호는 한곳에서 환성을 올렸다. 바람 피해를 받아 뿌리가 반쯤 들린 아름드리 피나무가 한대 삐뚤름하게 서있었다.

《아바-이!》 길게 소리쳐 불렀다.

방필규아바이가 웬일이냐는듯이 가까이 왔다.

《아바이, 이 피나무는 아무래도 오래 살것 같지 못한데 찍읍시다.》

나무를 쳐다보고난 방필규아바이의 얼굴엔 일순간 당황한 빛이 어리었다.

《여보게, 일지를 좀 꺼내게....》

산림순시일지를 들여다보던 방필규아바이는 큰 실수를 하고 났을 때처럼 미간을 찌프렸다.

《분명 사흘전에도 이곳을 지나쳤는데 왜 못봤단말인가....》

나무가 넘어간지는 한주일일 뒹눕한데 사흘전에 이곳을 지나치면서도 발견하지 못했었다는 실책이 질게 내비치었다.

《음...》 신음소리가 났다. ...

자기의 실책을 두고 괴롭게 마음을 쓰고난 방필규아바이는 천천히 얼굴을 들더니 림호쪽에 믿음의 눈길을 보냈다.

《자네 정말 눈이 밝구만,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것을 자네가 발견하다니. ... 파시 산림보호원을 할만하네. 응... 정말 장하네. 장해!》

방필규아바이는 림호의 잔등까지 툭툭 두드리주었다.

《자네 이 나무가 어떤 나문지 아나? 이를테면 나와 같은 나이를 먹은 동갑이네.》

림호는 어정쩡해 서있었다.

《...내가 이 산에 처음 온 날이었네.... 난데없는 꿀벌들이 웅웅거리길 않겠나. 살펴보니 아 글썤 파편에 아지를 다 잃은 어린 피나무 한대가 그대두 꽃을 한송이 피웠는데 꿀벌들이 저마끔 꽃을 차지하겠다고 싸움질을 하더라말일세. 난 가슴이 다 몽클하더군. ... 다시 살펴보니 밑이 바위너래가 돼놔서 그냥 두면 구실을 못하겠더군. 그래서 여기에다 옮겨 키웠는데 그만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헛 참 분한 일이로군.》

방필규아바이는 제 살붙이라도 잃은듯이 아수해했다. 그는 나무밑에 어깨를 들이밀고 떠밀어왔다. 바로세우겠다는 뜻이다. 림호도 함께 힘을 썼으나 끄덕하지 않았다.

《안되겠군. 바줄이 있어야지.... 우선 나무부터 먼저 고르고 보세.》

방필규아바이가 등성으로 올라갔다. 림호도 하느수없이 따라갔다. 얼마쯤 올라가던 방필규아바이가 드디어 벨 나무를 지적해주었다.

《자, 이것 두대에 저것 한대까지 합쳐 석대를 가지게.》

림호는 골살이 찌프리졌다.

《아바이두 참... 제왕이면 죽은 나무를...》

《왜 마음에 들지 않나? 이래 보여두 백송이야.》

《그대두 이 술한 나무중에서 하필...》

《허어... 많을수록 아껴야 하네. 아까운걸 모르는 사람한테 흔한게 없는법이네.》

방필규아바이는 소발구도 얻을겸 농장마을에 잠깐 내려갔다올터이니 우선 나무를 베어놓으라고 이른후 마을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던 방필규아바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다시 돌아서더니 넘어진 피나무뿌리에다 락엽을 한아름 안아다 덮어주고야 자리를 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림호의 마음은 야릇하였다.

저렇듯 숲과 생을 함께 나누는 방필규아바이한테야 온 산을 통채로다 안겨준대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림호는 방필규아바이한테 무엇인가 제힘으로 한가지 마련해주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한껏 들떴다. 흥얼흥얼 코노래까지 불렀다.

4

나무를 단숨에 찍어넘길 생각으로 웃웃을 슬슬 벗는 림호의 앞에서는 먹이를 배불리 주어먹은 산새들이 실재없이 재갈거리고있었다.

림호는 도끼를 집어들었다. 허나 정작 나무를 찍자고 하니 기쁨보다도 서운한 생각이 먼저 앞섰다. 웅이가 드문드문 박힌 소나무는 죽은지 오래여서 속이 텅 빈것 같았다. 도끼등으로 나무밑둥을 쿵! 울려봤다. 끝가지에 앓았던 새매가 푸들적

날아간다. 림호는 찍기를 단념했다. 눈길은 자꾸 피나무쪽으로만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갔다. 마치 강한 자석에 끌리기라도 하듯이...

피나무를 쳐다봤다. 아름이 번다. 마음이 흡족하다.

(어쩐다?...)

잠시 생각을 굴리었다. 죽은 소나무는 마음에 없다. 그럼 다른 나무를? ... 그럴바엔 그대두 뿌리가 드러난 피나무를 찍는게 나을것 같다.

(헌데 아바이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나무를?...)

림호는 선뜻 용단을 못내리고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다가 환성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온통 아름드리 피나무천지다.

림호는 드디어 피나무밑그루에 도끼날을 푹 박았다. 이어 쩡! 하는 울림소리와 함께 나무잎을 향해 혈관처럼 뻗어나간 무수한 나무아지들이 부르르 떨었다. 방필규아바이가 있었다라면 아마 상처입은 어린 아이의 신음소리로 들었을것이다.

쨍! 쨍!...

도끼질소리에 산메아리가 울리고 도끼밥이 탁탁 휘어나더니 드디어 뽀뽀뽀하게 섰던 피나무가 바람을 일으키며 넘어갔다.

림호는 이마우에 흐르는 땀방울을 팔소매로 뽀문지르고나서 피나무통을 가로타고 앉아보았다.

마치 큰 황소잔등에 올라앉은듯이 마음이 흡족했다. 그는 기쁨속에 토막을 쳤다. 소발구길까지 굴러 내려놓았다.

이쯤하면 먹어놓은 떡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림호가 담배 한대를 붙여물려는데 소발구를 얻으려 갔던 방필규아바이가 나타났다. 가까이 다가왔다.

우뚝 멈춰섰다. 눈길은 벌써 피나무통에 가있었다. 이어 어깨에 둘러메고온 바줄과 팽이가 툭링하고 땅에 떨어졌다. 방필규아바이의 손이 피나무통에 가닿았다. 손가락마디가 굵은 그의 손은 한생을 숲을 쓸어만지며 살아온 흔적이 력력한데 지금 그 손으로 피나무통을 어루만지고있다. 피나무통은 마치 먹을 따서 강넉에 내던진 물고기처럼 까딱않고 누워있다. 주인이 바뀐탓에 제명을 다 못살았다는듯이...

드디어 방필규아바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림호쪽으로 얼굴을 꺾 돌려었다.

《덜된 녀석같으니 ! 누가 이 나무를 찍으라고 했어! 엉?!》

벽력같은 호통소리에 절벽이 다 찌르릉 울리었다.

《말해봐! 누가 자네한테 이런 권한을 주었어! ... 속이 텅 빈 녀석...》

림호는 안타까웠다. 이런 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궁리가 나지 않았다. 제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사실을 까뽏힐수 없는것이 피로

울뿐이었다.

《...》

대답을 못하는 림호에게 방필규아바이가 더 엄격한 목소리로 웅얼었다.

《내 다 들었다! 뭐 나한테다 가구를 만들어주겠다구!... 내가 그런걸 욕심내는 사람같으면 벌써 해놓은지 오래! 열개라두...》

《?》

찰나 림호는 눈앞이 아찔했다.

(알고있었구나!)

순간 림호에겐 농장목수한테다 가구를 맡기기 위해 관리위원장을 만났던 일이 떠올랐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이 방금 소발구를 얻으러 갔던 방필규아바이의 귀에까지 들어온것이 분명했다.

《물건짜를 가지구 사람을 생각해주는건 장사군한테나 필요해! 나한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없어! 썩 돌아가게!...》

림호는 것처럼 성난 사람의 얼굴은 처음 보았다.

늘 사람좋은 인정기가 그득찼던 눈에선 불이 켜졌고 입술은 부르르 떨리는데다가 높은 숨소리에 따라 가슴은 세차게 들썩이었다.

림호는 깊숙이 머리를 숙이었다.

방필규아바이가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긴숨과 함께 내뿜는 담배연기속엔 피로움이 한껏 실렸는데 돌잡에 끼운 다람쥐가 눈을 울롱하게 뜨고 내다본다.

침묵... 침묵이 흘렀다.

방필규아바이가 마음이 좀 안정된듯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산을 인제하면서도 말하지 않던가. 산에 나무가 좀 자랐다고 해서 저마끔 집안에 끌어들일 내길하면 며칠 못가서 벌거숭이 될거라구... 음... 난 지금도 눈앞에 선하네. 전후 배수리를 할적에 나무가 없어 애를 먹게 되자 우리 직장 세포위원장동무는 딸 시집갈 때 만들어주려고 전쟁 3년동안을 고스란히 보관해두었던 이불장갑까지 들고나왔던 일을... 내가 만류하자 그가 뭐랬는지 아냐? <방동무, 나라도 흥하면 집안살림살이야 거저 퍼지는 법이네. 그런 걱정 말고 어서 배부터 고치세.>...

산속의 풀 한포기 나무 한대가 다 나라의 재산이구 밀천이야.... 내가 몇번이나 당부했나. 산림보호원은 꼭 자물쇠없는 나라의 창고장과 같다구...》

떠엄떠엄 번지는 방필규아바이의 말은 그대로 림호의 살이 되고 뼈가 되는듯했다.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길러오던 나무를 찍은 것도 참을수 없는 일이지만 더 분한건 자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러놓은거야.... 내 마음속에 흙집을 만들어놓으려고 접어들었거든...》

목소리는 낮으나 아직도 노기가 풀리지 않은 방필규아바이의 말이었다.

림호는 당장 방필규아바이앞에 무릎을 꿇고

《아바이, 제가 죽을 죄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싶었지만 왜서인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제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는 사람일수록 말은 더 힘들게 나가는 법인지...

《제가 다룬다고 해서 제 물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돼. ... 내 좀 살아오면서 보니 일부 사람들은 제집 재산을 모아들이는데 급급해서 별 오그랑수를 다 쓰더라말이야. 얼마전에도 그런 사람이 여기 왔댔어. 제 집에 무얼 만들어놓으려고 한다면서 고급담배와 모자를 가지고와서 나무와 바꾸자고 하더라말일세. 헌데 더 기막힌건 그 모자가 스무나문살 먹은 청년들이나 쓸수 있는 새파란 모자였네....

헛참, 재물에 눈이 어두우면 사람도 가려볼줄 모르게 되는건 당연한 일이지...》

림호는 그 말이 꼭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상업관리소 창고장을 할 때 쇠를 잠근 창고안에 있는 물건도 모두 제것처럼 생각하면서 좋은것은 제먼저 가지고 게다가 친척이요 친구요 하면서 낫대기를 하구 지어 다른 물건과 바꾸기까지 한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림호가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돌이켜보는데 방필규아바이가 정통을 찌르는 말을 했다.

《언제인가 내 집에 왔던 한 운전수가 제 동무에게 부탁해서 고급가구류를 마련해주겠다고 흰소릴치기에 그저 속으로 고맙게만 생각했네. ... 헌데 뭐 나무를 한차 내라질 않겠나.... 그래서 아예 다시는 상종 안했네, 침을 뱉구 돌아섰어....》

림호는 가슴이 뜨끔했다.

방필규아바이가 그 당사자가 바로 림호라는것을 뻔히 알고 예돌러 귀뺨을 치는것 같았다.

심한 자책속에 머리를 짓속이고있는 림호를 향해 방필규아바이가 말을 이었다.

《나를 생각해주는거야 고마운 일이지. 내가 그걸 모르지 않아. 허나 내가 바라는건 그게 아니네.... 내 집에다 가구가 아니라 은금보화를 가져다놓았다 한들 그건 어디까지나 물건짜에 불과하거든.

...사람은 그보다 더 중한걸 안고 살아야 해....》

림호는 두눈이 번쩍 떠였다.

은금보화보다 귀중한것!

방필규아바이한테 그것이 있었다.

푸르러 설레이는 조국의 숲을 위해 움트는 나무잎에서 기쁨을 찾고 지저귀는 산새소리에 정을 붙이며 30여년동안을 락엽속에 묵묵히 발목을 묻어 온 방필규아바이에겐 아무나 가질수 없는 마음속의 큰 재부가 있었다.

(마음속에 안고사는 재부! 그렇다! 사람에겐 이것이 있어야 한다.)

림호는 부끄러웠다. 자신의 몸값에 대해 스스로 저울질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제 속이 텅 비어있었다는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한생을 숲과 함께 살아온 방필규아바이나 지어는 머리 흰 대학교수나 박사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겨누고 살아온 자신이 험오스러웠다.

림호는 큰 발견을 했을 때처럼 가슴을 짝 펴고 머리를 높이 쳐들었다.

태양이 한껏 빛나는 하늘가엔 뭉게진 꽃구름이 두둥실 흐르는데 높이 뻗던 산비둘기떼가 숲을 향해 내린다.

림호는 방필규아바이앞에 뜨거운것을 꺼내놓듯이 말했다.

《아바이, 더 큰 욕을 해주십시오. 전 오늘 정말 큰것을 가졌습시다....》

림호는 이것이면 다라고 생각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 부러운것이 없다고...

늦게나마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진리를 가슴속 소중히 받아안은 림호를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방필규아바이가 그의 잔등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큰소릴 쳤다구 노여워 말게.... 가꿀 때는 엉덩이 제것으로 되지만 쓸 때만은 제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네.... 그래서 한 말이니 새겨들으라구. ... 그리구 기왕사 나무를 베어놓은것이니 어찌겠나. 내 걱정은 말고 마을 학교 처녀교원에게 무얼 한가지 마련해주자구.... 학생들을 숲을 사랑하도록 잘 가르치고있는 훌륭한 교원인데 머지않아 시집을 가게 되네....》

림호는 코허리가 쪼그라들었다. 이때 저쪽 산기슭에서 아이들이 왁작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필규아바이를 보자 우르르 몰려왔다.

《할아버지, 우린 오늘 아카시아종자를 댔습시다.》

《그리구 쟁을 덮치려던 수리개도 쫓아버렸어요.》

저마끔 한마디씩 자랑을 했다.

《참 용쿠나. 모두 좋은 일들을 했다.》

방필규아바이가 아이들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어주는데 반장인듯한 아이가 한발 척 나서며 말했다.

《그것뿐인줄 아세요. 우리 선생님은 오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이 산의 나무는 모두 할아버지것이나 다름없다구....》

그러자 아이들속에 서있던 처녀교원의 얼굴이 발갱게 달아올랐다.

림호가 바라보니 처음 왔을 때 방필규아바이네 집까지 길안내를 해주던 그 처녀교원이었다.

림호가 눈인사를 하자 그도 가볍게 고개를 숙이였다. ...

림호는 그들과 함께 숲을 내리였다.

큰것을 안고내리는 림호의 가슴속에서는 보다 더 큰 숲의 설레임소리가 쉼! 쉼! 소리치며 태동하고있었다.

농민의 웃음

김정길

진정 못하는 마음인양
벌에도 다락밭에도
설레이는 강냉이물결

흰 수염발 헤치고
해마주 고개쳐든
아, 그 모습에
마음이 다 후련쿠나

봄에는 새싹이 얼세라
여름엔 풀 한대 쉼일세라
포기마다 기울인
이내 진정이 배여서인가

잠시 고향 떠난 휴가의 날
해수욕장 모래밭에 뒹굴다가도
문득 너의 이랑길이 그리워
고향아, 나의 포전아!
가슴속 진정을 터놓던
그 즉흥시의 숨결이 어려서인가
첫사랑의련인처럼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처럼
해종일 너와 속삭이며
포전에서 흘러간 사시절을 다 안고
어디론가 자꾸만 흘러가는듯
끝없이 설레이는 이삭의 물결이어

별가득 풍년을 가꾸어놓고
평양을 향해가는 우리의 마음인가
아버이수령님께 드리는 기쁨
농민의 기쁨이 한껏 무르익은
고향의 대지

한생 바라는 기쁨이라면
알알이 영근 너를 충충 고여
조국을 부강케 할 탑으로 쌓고싶은
농민의 성실한 마음의 열매

아, 웃음갈아라
대지에 피운 농민의 웃음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들
조국앞에 뗏뗏한 그 한웃음

눈보라치던 날

리수덕

봄날이 얼마나 따스한가 하는것은 가혹한 겨울의 맵짠 추위를 맞본 사람만이 절절하게 느낄수 있는것처럼 우리가 누리고있는 오늘의 행복과 참된 삶의 보람도 수난과 불행에 겨울던 과거와의 비속에서만 그 진가를 더욱 깊이 체감할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리치라 하겠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늘 그런 자각속에서 자신에게 안겨지는 복과 기쁨의 무게를 가늠하며 사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흡사 건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제 가슴속에 심장이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근심걱정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 사회에 해빛처럼 꼭 차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에 대한 생각이 은연중 범연한것으로 굳어진탓일지 모른다.

마치 사람들이 공기 없이는 잠시도 살수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혜택을 무시로 잊고 사는데 습관되어있는것처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착취제도의 반동적본질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적본성,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와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시켜야 하겠습니까.》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가르치심을 생각할 때마다 눈보라 사납던 보통날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을 되새겨보며 마음을 다잡군한다.

...이상기후의 영향탓이었던지 레년에 없이 일찍 닥쳐온 첫 추위의 된맛을 고향길에서 온 가족과 함께 맛보게 된것은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집에 동생잔치가 있어 식술을 다 데리고 찾아갔던 우리 일행은 잔치후 그만 일가친척들과의 작별인사가 길어지는통에 읍으로 가는 아침빠스를 놓쳐버렸던것이다.

고향마을에서 철도역이 있는 읍까지는 30리길이 실했다.

우리 집 온 식구가 다시 신들메를 든든히 하고 대문을 나서자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할머니도 목도리를 두르며 따라나왔다. 덩달아 고향집 검둥개도 꼬리를 저으며 앞섰다. 처와 애들은 날씨

도 추운데 집에 앉아계시라고 기를 쓰고 말렸으나 어머니는 한사코 고개너머 절매골까지 같이 가자는것이였다. 어머니가 부디 그곳까지 바래주겠다고 하는데는 무슨 까닭이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어 나는 더 말리지 않았다.

첫 추위의 맵짠 눈바람은 손발이 곱아들도록 모질었으나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정든 고향땅을 밟은 나의 마음은 류다른 감회로 하여 후더웠다.

내 어린 시절의 갖가지 추억이 깃들어있는 고향길, 어머니의 쓰라린 과거가 숨배여있는 고향길,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 격지격지 스며있는 향촌길은 나의 뇌리에 다감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지금 사람들이야 읍으로 뻔은 이 길을 백리만 큼이나 먼것으로 여기면서 빠스신세를 안지고는 못다닐것으로 생각한다만 내 어렸을 땐 이 길을 하루에도 무시로 복나들듯했단다. 지주놈의 술심부름에다 아침저녁 저자를 보러 다닐래... 어디 그뿐이나? 단 하루도 빌새없이 드나드는 지주놈 친척나부랭이들의 집을 날라오고 날라가야 했으니 정말 이 길의 세모진 모래를 룽모가 되도록 밟았지.》

상념에서 나를 깨우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였다. 내 어렸을때부터 그 이야기를 귀에 길이나도록 들어왔건만 눈보라치는 날에 함께 걸으며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안겨지는 충격이 컸다.

절매골언덕이 가까와오자 내 눈앞엔 금시 여덟살 어린 소녀의 험뻐한 모습이 눈보라속에 아련히 떠오르는것 같았다.

...덕새 무명홀저고리에 겨우 무릎을 가리는 몽당치마를 입고 자빠질세라 엎어질세라 총이 끊어진 짙신발로 매끄러운 눈길을 저거더디며 두 되돌이 술병을 불안은채 걸어오는 소녀, 그는 모진 추위에 오리발처럼 빨강게 얼어든 손을 엇갈아 호호 입김으로 녹이며 걷다가 아뿔싸! 발을 헛딛고 미끄러져 술병을 깨뜨린다.

소녀는 지주놈과 그 녀편네의 못매질을 생각하며 추위와 공포에 질려 울고 또 운다.

허나 허허벌판엔 한가닥의 위안과 온기를 줄 그 무엇도 없다. 오로지 지동치는 눈보라의 아우성뿐, 온몸이 관아드는것을 더는 참을길없어 소

너는 지주집에 당도하나 대문이 굳게 닫혀있어
행랑방에 들어서지 못한다. 생각끝에 소녀는 지
주집을바자 개구멍으로 기어들어가 넓은 마당한
귀에 우뚝 솟은 구새먹은 아름다리 은행나무밑등
에로 들어간다. 거기엔 개우리가 있다. 동태짜같
이 얼어든 손발을 개몸뚱아리에 녹이며 개와 함
께 쪽잡드는 가련한 소녀! 그는 다름아닌 나의
어머니의 어린 시절 모습이였다. ...

나의 깊은 상념은 고향집 검둥이를 앞세우고
멀리까지 앞서 갔다가 우리가 있는쪽으로 되돌아
오며 막내딸 춘화가 웨치는 소리에 깨여졌다.

《할머니! 이것 봐요. 막 땀이 나는거...》

털외투에 달린 모자를 훌렁 벗은 막내딸의 이
마엔 짜장 땀발이 돋았다.

두툼한 털외투에 털신, 털모자까지 갖춘 막대
딸의 모습, 그것은 내가 금시 그려본 혈벗은 소
녀의 모습, 소녀의 그 처지와 얼마나 심한 대조
를 이루는것인가.

드디어 우리 일행은 결매골언덕에 이르렀다.
마을이 굽어보였다. 지주집은 간데없고 주변엔
씨리카트브돌집이 줄지어섰는데 그날의 은행나무
는 오늘도 못잇을 수난의 증견자인듯 여전히 우
뚝 솟아있었다. 추억을 더듬는듯 그 은행나무를
점도록 바라보던 어머니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
다.

《지금 먹고 입고 쓰고살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
는 이 좋은 제도에서 한가지 걱정거리는 자라는
애들이 옛날 우리가 지지리도 못살고 천대받던
일을 잘 모르는거라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말꼭지를 떼신 어머니는 어설픈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나와 처를 바라보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글쎄 너희 애들이 추위를 모르고 자라 그럴수
있지. 하지만 애들을 속대있게 키우자면 그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물사발마저 추위에 얼어터
지는 그런 단간초가에서 손바닥만큼한 아래목에
온 식구가 발을 부채목처럼 모으고 새우잠자며
산 그런 때가 있었다는것두 애들한테 깨우쳐줘야
하느니라.》 바로 이 뜻을 새겨주려고 어머니가 여
기까지 따라나섰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릿해왔
다.

고개길에서 헤어질 때 어머니는 다짐조로 말씀
하였다.

《지난날을 모르는건 오늘의 행복을 절반만 아
는거란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해.》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 그것은 손주들을 잘
키우라는 충고이기전에 내나 며느리가 오늘의 삶
의 보람과 우리 제도가 안겨주는 혜택을 어떻게
감수하고 자각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경중이기도 했다. 하기에 어머니와 작별하고 역
두에 나오면서도 열차에 올라 집으로 향하면서도
나의 귀전엔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노상 사라질
줄 모르는 메아리처럼 울려왔고 결매골의 가지무
성한 은행나무가 눈앞에 서물거렸다.

우리가 집현관에 들어선것은 땅거미진 저녁이
였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 누가 우리를 기
다려 덤혀놓은듯만싶은 온수온돌방은 봄날의 훈
기라도 담긴것 같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기습을 부려도 방안
의 창문유리엔 마치 땀발인양 더운 물방울이 함
합이 맺혀 줄줄이 흐른다.

어제날 개우리에서 불안과 추위에 떨며 새우잠
자던 머슴소녀의 그 자손들이 오늘은 추위를 모
르고 안락한 방에서 세상만복을 다 누리리고있으며
우리 한 가정만이 아닌 온 마을, 온 도시가 한줄
기로 혈맥처럼 잇닿은 온수난방에서 겨울에도 땀
을 흘리며 산다는것을 생각할 때 위대한 수령님
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해주신 한없이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에 짝 차올랐다.

추위를 모르고 사는 행복! 그것은 우리 제도가
주는 혜택이라는 큰 강물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거기엔 얼마나
나 고귀한 은정과 사랑이 비껴있는것인가.

우리 조국 남녘땅과 세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해마다 겨울에 접어들기 바쁘게 얼어죽는 사람들
이 무리로 나는 때에 우리 인민만은 추위를 모르
고사는것이다.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위해 모든것을 복무케 하는 우리 제도의 한없이
은혜로운 혜택이 생활의 구석구석에 봄날의 대기
처럼 충만되어있기때문이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
가! 그런데 나는 지금토록 그것을 범상히 여겨오
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으로 하여 나는 한밤이 깊도록 책상
을 마주하고 일기장을 펼친채 잠들수 없었다.

확실히 나는 아직껏 생활에서 소중한것을 잃고
살아왔다는 자책이 머리를 쳐든다.

지난날을 잊는건 오늘의 행복을 절반만 아는것
이라던 어머니의 그 말씀이 자명종소리마냥 귀전
에 다시 쟁쟁히 울려온다. 은행나무의 설레임소
리가 들려온다. ...

나는 펼쳐놓은 일기장마감에 이렇게 적어놓았
다.

-과거를 잊지 않는 마음이 그대로 준마의 고삐
와도 같이 늘 나자신과 온 가족의 마음을 재촉하
도록 그렇게 살리라! 오늘의 행복에 도취함이 없
이 맡겨진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평양하늘 외편

김성환

하얀 구름숨이 말끔히 씻었는가
맑고 푸른 하늘
내 때없이 바라보는
정갈한 저 하늘엔 새겨져있구나
내 생의 추억
내 삶의 자욱들이

내 어린 시절
을밀대에 뛰어올라
개선하신 장군님 우러러 목청껏 웨치던
그날의 만세소리
포연에 끄는 군복자락 날리며
전승의 광장에서 바라보던 축포의 꽃보라도

화력발전소의 쌍굴뚝을 쌓아올린 그날엔
이 손 다정히 잡아주신 수령님
그리도 기쁘시여 바라보시던 흰 연기도

주체의 봉화탑이 타오르던 봄날
내 건설자의 걱정으로 부풀던
기쁨의 노래소리도...

어느덧 반백의 귀밑머리 쓸어올리며
못잊을 그 나날을 되새기는 이 가슴에
정녕 사무쳐오는 뜨거움이여
긴긴 한생과 삶의 한순간도
량심과 의리로 뒤흔지 않는 마음만이
머리들어 몇몇이 쳐다볼수 있나니

그래서 아, 그래서
눈비오는 날에도 깊은 밤중에도
그 언제나 흐리우지 않을
맑고 푸른 저 하늘이
내 마음속에 구만리로 창창 열려있어라
아, 평양하늘 평양하늘

아침에

새날의 밝은 노을이
밤벌 총총하던 하늘을 들어올리며
건뚫 밝아오는 아침
내 마음속엔 흘러든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절로 송엄해지는 이 마음
내 50평생
아침해발속에 흐르는 저 노래안고
걸어온 삶의 길은 얼마나 보람찼던가
누리는 삶의 환희는 얼마나 차넘쳤던가

총창에 불꽃 튀던 고지...
재무지 털고 일어서던 건설장...
먼 개발지의 우등불...
자동화의 불빛 령롱한 일터...

내 때로 그 나날에
불비속을 헤쳐갈 때
식은 로속에 뛰어들 때

이 몸을 안아일으켜주었나니

조국을 받들고
조국을 수호하고
조국을 빛내이는
성스런 년대들에 저 선들과 함께
밝아온 아침이여

내 오늘도
아침 출근길을 다우친다
애국가의 선율이 안겨주는
그 송엄함과 그 뜨거움을 안고
조국의 아침을 마중간다

...

몸과 맘 다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아, 맑은 아침이여
애국가의 노래속에 빛나는 나라
해와 별 찬란한 이 땅을 받들어
피와 땀과 량심을 바칠줄 아는
성실한 삶을 깨우쳐주는
내 조국의 아침이여!

노을이 피어나는 바다

박서칠

원산에서 자동차를 타고 세계명승 금강산으로 가는 포장도로를 따라서 얼마쯤 달리노라면 우리나라에서 이름있는 호수 동정호가 보인다. 동정호의 돌레를 에돌아 바다쪽으로 뻗은 갈림길에서 내린 우리는 겨울철물고기잡이에서 련일 만선의 개가를 올리고있는 압룡수산협동조합을 향하여 걸음을 떼었다. 푸른 주단을 펼쳐놓은듯한 잔잔한 동정호를 바라보며 걷다가 소나무숲 우거진 자그마한 동산을 넘어서니 압룡단이 안겨왔다. 주먹처럼 툭 뻗어져서간 압룡단끝에는 금강산의 만물상인양 우뚝우뚝 솟아난 바위들이 제 모습을 자랑하고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압룡수산협동조합이 자리잡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면에 바다를 끼고있는 우리 나라는 수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전망이 매우 큼니다. 고기배 생산을 늘이고 고기배들을 만능화, 현대화하며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른아침이였다. 우리는 려장을 풀고나서 초급당비서동무를 찾아갔다.

이 바다기슭에 바투 나앉은 초급당비서실은 갑판이나 선실을 방불케 했다.

우리는 바다를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였다. 바다는 자기의 우아한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냈다. 퍼내고퍼내도 끝이 없을 억만 보물의 창고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고보니 저 바다를 정복해가는 사람들이 거인처럼 돋보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였다. 그러는 우리에게 어서 어장으로 가자고 재촉하는듯이 흰갈기를 일으키며 밀려오던 파도가 처절씩 기슭을 치는데 저기 고기배가 있다고 알려주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창가로 날아들었다.

우리는 당비서동무로부터 이곳 협동조합의 전반적 형편을 듣고나서 부두로 향하였다. 거창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의 큰 생명체인양 굽실거리는 물결을 헤가르며 어장으로 떠나가는 고기배들의 배고동소리가 취주악의 소고소리처럼 들려오는데 온 세상이 다 보라는듯이 만선기를 하늘높이 띄우고 부두로 돌아오는 배머리에는 20대의 청년어로공이 거인처럼 서있었다.

어데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청년들이 부르는 바다에 대한 노래였다.

어쩐지 그 노래소리가 파도소리와 어울리는듯

한 감각을 느꼈다. 청년들이 겨울철물고기잡이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으리라는 기대가 생겼다. 아닌게 아니라 랭동고앞에 서있는 이동속보판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7151호 청년선원 전경칠동무. 새형의 어구창안》 우리는 잇을세라 취재수첩에다 전경칠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적어넣었다.

이때 뒤에서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울리였다. 돌아보니 물고기를 실러 줄지어 들어서는 자동차들의 행렬이 보였다. 잡은 물고기를 제때에 처리하기 위한 정연한 체계가 섰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물고기부림터로 갔다. 물속에 놓아주기만 하면 당장 꼬리를 치며 달아나버릴것 같은 생신한 물고기들을 부두에 부리우고있었다. 동해어장의 물고기는 거기에 다 모아놓은듯하였다. 긴팔을 휘두르는 기증기조차 배에서 금방 들어올린 물고기바가지로 어데에다 내려놓았으면 좋을지 몰라 빙빙 돌아가는데 방금 어장에서 돌아온 고기배가 빨리 부림터를 내놓으라고 봉봉! 고동소리를 높이고있었다.

우리는 이곳 수산사업소에서 잔뼈가 굵어온 로년의 어로공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첫수산협동조합을 무을 때로부터 기둥이 되어 바다를 다스려온 나이지숙한 어로공들의 경험담도 듣고싶었다. 우리는 이미 초급당비서동무를 통하여 간단히 소개를 받은 공훈어부이며 7151호의 탁계순선장을 만나보기로 하였다. 마침 고기배 7151호쪽에서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선장아바이한테 대줄래요. 조타실에 또 들어갔다고...》

그러자 선장실창문으로 머리를 반쯤 내민 청년이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렇게 일러바칠내길 하다가 이담에 내가 선장이 되면 어쩔려구 그래? 아예 쫓겨날려구 그래?...》

《내 걱정 말라요.》

《하긴 철새처럼 머지 않아서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서 훨훨 날아가버릴 동무이니까....》

《뭘요! 철새라구요?》

처녀가 성을 발끈 내었다.

이어 핵 돌아서더니 취사장으로 쑥 들어가버렸다.

《허허허, 이거 굵게 됐는데.》

그들이 무엇때문에 악의없는 다툼질을 하는지 내막은 딱히 알수 없었으나 두 처녀총각사이기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짐작이 갔다. 그러면서도

큰배의 선장실에 필요없이 들어가서 우물거리는 청년이 안심치 않게 생각되었다. 서투른 재간에 무얼 마사프리기라도 한다면 다음번 출항에 지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가 생겼다. 그쪽으로 자꾸만 눈길이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빨리 선장아바이가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마침 취사장에 들어갔던 처녀동무가 밀대를 들고 갑판으로 나왔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서며 처녀를 향하여 물었다.

《동무! 선장아바이가 어데 있소?》

처녀는 낯선 손님앞에서 매우 친절하였다.

《우리 선장아바이를 찾아오셨습니까? 사무실에 지령서를 받으러 가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옵니다.》

처녀의 대답속에는 자기네 배에 찾아온 손님을 반기는 레의가 짙게 풍기였다. 갑판에 걸레질을 몇번 하던 처녀는 우리를 향해 두눈을 반짝하고 빛내이더니 배에서 뽀르르 내려왔다.

《잠깐 기다리세요. 내 얼른 가서 선장아바이를 데리고 올테이니...》

처녀는 사무실쪽으로 바쁜 걸음을 놓았다. 우리는 일하는 처녀에게 괜한 심부름을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배의 청소라도 해주고싶었으나 오히려 손님으로서 주인에게 웅색한감을 줄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선장아바이를 기다리던 우리는 또다시 배의 선원실안에서 들려나오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었다.

《물고기를 많이 잡자면 어군탐지기를 잘 리용할것 알아야 해. 탐지기는 배사람의 눈이라 할수 있거던.》

《옳아, 물고기 탐색이 앞서야 <중층뜨랄>이나 <불빛어로>같은 새로운 어로방법을 마음대로 도입할수 있어. 꼭 해내자구.》

우리는 청년들이 주고받는 이 말만으로도 과학적인 어로방법으로 바다를 정복해가려는 청년들의 진취적인 열망을 읽을수 있었다.

《그런걸 우리가 만들수 있을까?》

《여, 우리 집단이 왜 못만든다구 그래... 전문기관의 방조랑 받아서 해보자우....》

말그대로 현대과학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들의 목소리였다. 우리로서는 아직 잘 이해할수 없는 말이였으나 그들이 물고기잡이를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다고 생각됐다.

처녀가 탁계순선장아바이를 데리고왔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었다. 바다바람에 그슬려져서 얼굴색이 검실한 탁계순아바이는 가공만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던대로 환갑이 지난 로인이였다. 그를 만나는 순간 어쩐지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로동력에는 나이에 따르는 한계가 있는것만큼 인계준비를 해야 할 선장아바이였기때문이다. 그렇지만 젊은이들과 같이 단단한 그의 가슴

과 혈색에서 건강미를 느끼며 우리는 취재수첩을 펼쳐들었다. 우리는 탁계순선장아바이의 안내를 받으며 배에 올랐다. 갑판은 학교의 교실바닥처럼 알른거렸다.

선장아바이가 춘숙동무를 향해 나무람 비슷한 말을 했다.

《이젠 그만하고 좀 쉬거라. 갑판청소야 총각들이 하지 않으리. ...》 춘숙동무가 선장에게 슬쩍 귀뜸을 하였다.

《경찰동문 아직 조타실에...》

《경찰인가?》그들의 대화를 듣던 우리는 방금전에 이동속보판에서 본 전경찰이란 이름이 떠올랐다. 탁계순아바이가 선장실문을 조용히 열었다. 순간 조타손잡이를 잡고 항행런습을 하던 그 청년이 아버지 몰래 못된짓을 하다가 들킨 어린애처럼 흠칫했다. 하지만 탁계순아바이는 년장자답게 너그럽게 대해주었다.

《자, 이젠 그만하구 좀 쉬라구. ... 자네가 이제 조타를 잡아볼날도 멀지 않았네.》

《선장아바이, 정말입니까?》

《허어,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하던가.》

그러자 경찰동무가 선장아바이를 향해 씩긋 웃어보이더니 조타실에서 나갔다.

탁계순아바이가 우리를 향해 말했다.

《바로 저 젊은 친구가 선장기능공학교에 추천 받았는데 학교에 가기전에 아예 기본적인 기술은 다 배우겠다는거지요. 허긴 벌써 기관의 작용원리같은건 통달하였으니까요. ...》

탁계순선장아바이는 자기의 친아들이나 되는듯이 경찰동무의 자랑을 늘어놓았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배치되어오자바람 석달만에 어구수리하는 법을 떼었다느니, 몇달전부터는 기관실에 붙어서 디젤기관의 작용원리를 익혔다느니, 또 요즘은 저렇게 조타운전법과 함께 물결의 흐름이 심한 먼바다어장에서 쓸 새로운 형의 어구까지 연구하였다는것이였다. 그제서야 우리는 방금전에 처녀총각이 다루던 내막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탁계순선장아바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했던 선장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 모두 청년선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작가동무들! 저 동무를 좀 보시구려. 얼마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새로 배치받아 온 동무인데 경찰동무 못지 않지요.》

우리는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배의 맨뒤쪽 갑판에 앉아서 무엇인가 열심히 뜨고있는 애송이 선원이 보였다.

어로공이 될려면 그물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경찰동무의 말을 듣고 어구수리법을 익혀나간다는것이였다.

우리는 어쩐지 취재방향이 달라지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어장에서 돌아와서 부두에 잠깐 정박해

있는 7151호의 고기배에서 보고느낀 일들은 모두 한몫으로 흐르고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배를 다루고 움직이며 물고기잡이를 과학화, 현대화해서 바다를 정복해나갈 믿음직한 새세대청년들을 보았다. 흐뭇한 심정으로 갑판에서 내린 우리의 눈길은 또다시 한곳에 멎었다. 춘숙동무와 경철동무까지 끼여든 배의 휴게실에서 론쟁이 벌어졌다.

저저마다 어로방법의 개선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세우고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보았다. 모두 만만한 투지와 희열에 넘친 대답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전경철동무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크게 감동시켰다.

《...바다는 우리 청년들의것입니다. 바다야말로 우리 청년들의 활무대입니다. 천리마대고조시기

청년들을 바다에로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용약 바다로 진출하여나섰던 우리 선장아바이와 같은분들이 이젠 환갑나이를 바라보지만 걱정할것 없습니다. 우리 새세대 청년들은 바다를 인계받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

그렇다! 가없이 푸른 바다와 그것을 인계받을 준비가 되어있는 새세대 청년들!

우리는 시의 발견이라도 한듯한 심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은 이렇듯 세대와 세대를 이어 빛나게 관철되어가고있거늘!

창창한 바다, 조국의 미래는 의심할바없이 영원토록 무궁번영할것이다.

어느덧 불타는 노을이 바다와 청년들의 얼굴을 금빛으로 물들어주었다.

기적소리 들으며

김중실

남녘에서
고향방문단이 온다던 그날처럼
은은한 기적소리만 들어도
마음은 역으로만 풀리어라

혹시 오시지나 않을가
못오실줄 알면서도
마음은 그날처럼 설레이고
끊을수 없는 정은 넘치여라

어머니 꾸려주는 감알 몇알 지고
의용군으로 떠났던 이 아들의 머리에도
이제는 흰서리 내리기 시작하고
어머니 생신날 못잊어
정히 마련한 생일웃은 장안에 걸려있는데
어찌하여 오시지 못하셨던가

누구에게 물어도 알길없는 어머니
치마폭에 감기던 이 아들도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지니
모자간의 정도 저절로 멀어졌던가요
아니면
평양의 아들집이 몇만리로 멀어선가요

깊은 밤 기적소리만 들어도
허리마저 굽었을 어머니 생각
생사여부 알고싶은 소원
아 그 소원 세월과 함께 더욱 깊어져
꿈결에도 그려보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언제면 오시려나요

네 자식을 키워도 먹을 걱정 모르고
눈비내려도 집걱정 모르는 아들네 집에
겨레의 념원안고 총잡은 전사의 집에

허나 나는 압니다
우리 모자 만나는 그날이
겨레가 상봉하는 그날이
자연의 계절처럼 저절로 오는것이 아님을
침략자와 역적놈들 두고서는
절대로 올수 없다는것을

그때문에 그때문에
내 일을 해도 뭇을 더 하고
깊은 땅속에도 《통일역》, 《영광역》 세워놓고
어릴적 호박따던 그 지붕 보일듯싶어
층높은 건물에도 한두층 더 올리는 아들의 마음

아슬한 벼랑에도 교각을 세우고
험한 산엔 끈은 굴 뚫어
온 나라에 수만리 철길도 이어놓고
그 궤도우에 올리는 기적소리 들으며
통일의 그날을 당겨가는게 아닙니까

어머니, 어머니
항쟁의 거리에 나섰을 어머니
이제 더는 어머니의 손자들에게까지
쌓이고쌓인 분렬의 고통 넘겨주지 않으려
싸우겠어요
겨레의 념원 더 굳게 이어주는 기적소리 들으며
통일의 한길로
우리 함께 불러주는 저 기적소리 들으며

우리 당이 광복거리에 짓는 집

리 광

광복거리 살림집 건설장
손자의 일터 찾아온 할아버지
덩지 큰 30층 살림집
희한한 전경도 바라보며 말했네

-크기도 이만저만 크지 않고
높기도 이만저만 높지 않으니
오백세대는 실히 될것 같구나

속구구 밝은 할아버지
스스로 기분좋아 턱을 쓸어 만질 때
완공된 30층 살림집 다 돌아본듯
손자는 단마디로 대답했네

-덩지도 높이도
산처럼 크고 높아도
도무지 백세대밖에 안돼요

손자의 당돌한 그 말에
아연해진 할아버지
믿을래야 도무지 믿을수 없어
손자에게 꾸짖듯 하는 말

-에끼 너석두
내 아무리 늙었기로서니
할아버지와 통담하자고 접어들어?

진짜 룡담은 할아버지 하는게 아닌가고
웃으며 손자는 가슴펴고 말했네
그 높은 집 세우는 건설자의 자격으로
행복에 넘쳐 말했네

-우리 당이 여기에 짓는 집은
한 세대가 보통 네 다섯간
세대마다 100평방메터가 넘어요!

손자의 그 말에 놀란 할아버지
헛기침하며 속구구해보네
그리고 모든걸 알겠다는듯
눈시울 젖어 습벅이며 말했네

-그렇다면 그 말부터 했어야지
여기 광복거리에 일떠서는 집들은
정말이지 이 세상 으뜸가는 집이로구나!

희한한 전경도 그대로
광복거리에 솟아오르는 살림집들은
할아버지에게도 손자에게도
그저 집으로만 보이지 않았네

아, 우리 당이 광복거리에 짓는 집
그것은 인간사랑의 봉우리위에
해빛안고 펼쳐지는 인민의 요람이여라

포구의 기쁨

허린정

정다운 나의 포구
겨울철이면 더욱 들끓어 좋구나
부두가의 기증기는
드바빠 긴 팔을 휘두르고
어류뽑프는 칼칼 물고기를 쏜는다

꼬리물고 들어오는 고기배들
갈매기도 반가웁다 무리져 나래치는가
물고기폭포는 쉬임없이 쏟아지고
반이장에 차넘치는 흐뭇한 고기사태!

종구나 이런 때면
비릿한 해풍을 한껏 들이키며
수채우에 굽이치는 은빛흐름 바라봄이

구레나룻선장아바이에게
담배를 권하며 주고받는 룡담도

종구나 이런 때면
민요처럼 정다워진
내 고향 너인들의 투박한 사투리도
파도우에 구울러가는
가공반쳐너들의 맑은 웃음소리도

맵짠 바람은 기승을 부려도
가슴속엔 샘처럼 솟구치는 기쁨
일손마다 저절로 번개가 일고
하얗게 서리는 입김에도 웃음피어나

휘뿌리는 파도 살얼음지는 갑판에서
방수복에 맺히는 고드름 털며
어장이 넘쳐도 한기만 더 끝 때
적동색 얼굴들에 피던 뜨거운 미소

아, 바다면 산간마을에도
생선국 훌훌 불며 모여앉을
단란한 식탁을 그려보는 마음들
포구의 뜨거운 그 마음을 실었는가

랭동차도 길게 기적소리 뿜누나

당의 은혜로운 사랑
온 나라에 웃음꽃으로 활짝 피우며
겨울이면 더더욱 들끓는 포구여!
가슴속 행복의 노래인양
물고기폭포는 쉬임없이 굽이친다
조국의 기쁨이 파도쳐흐른다!

붉은별 외 1 편

리정술

그들이라고
남들처럼 바라지 않았으랴
금빛 훈장 앞가슴에 주련이 달고
고향집 찾아 돌아갈 그날을...

그들이라고
남들처럼 꿈꾸지 않았으랴
한번밖에 없는 귀중한 인생
행복을 누리며 오래 살기를...

허나 이름도 남기지 않고
분묘도 없이 떠나간 이들

무명고지를 지켜 싸우다가
무명전사로 떠나간 이들

칠쭉쭉 곱게 핀 산기슭에
이름도 못새긴 비석 하나
그우엔
붉은 별 하나만이 그려져있구나

문득 내 머리 쳐드니
그대들이 두손 모아 높이 받든 별
1211고지산상우에 휘날리는
저 공화국기발에 새겨져 빛나고있구나

어머니에게

-병사의 수첩에서-

어린 시절
강가에서 뛰놀다가
온몸이 흠뻑 젖어 돌아오면
어머니는 새 옷을 갈아입혀주면서
나를 꾸짖었지요.
막내자식이 되어 장난도 별차다고...

배움의 나날
선생님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아
학습장 한복판에
큰 오리를 그려가지고 돌아오면
어머니는 꾸짖었지요
언제면 제 구실을 하겠는가고...

어머니여, 고향의 어머니여
무던히도 속태운 이 아들들
그래도 자식이라 사랑하며

육과 매로 키우셨지요
모든 잘못을 다 일깨워주시며...

허나 만약
내가 지켜선 관문을 지나
원쑤의 어지러운 손이
조국의 꽃 한송이라도 꺾는다면
어머니는 말하겠지요
나는 그런 자식을 낳지 않았다고...

그리고 어머니는
육도 하지 않고
매도 들지 않고
티끌만한 양보도 없이
우리 가문에서
영원히 내 이름을 지워버리겠지요...

시의 산문화를 극복하고 운률을 살리기 위한 몇가지 문제

현종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언어작업에서는 시어를 잘 골라내는것과 함께 음악적흐름에 맞는 시문장을 잘 짓는것이 중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훌륭한 시작품이란 인민들의 사랑속에 노래로 되어 불리워졌다고 하시면서 시문장의 고유한 음악적 속성에 대하여 깊은 해명을 주시였다.

시가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거기에 음악적 톨조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시문장을 음악적 흐름에 맞게 짓는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시에서의 운률이란 바로 이런 시문장이 지니고 있는 외형적인 음악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은 엄연히 시작품의 형식의 요소로 된다.

시의 운률이 정서의 기복이나 파동 그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물질적으로 나타내어 시문장에 음악적 톨조가 표현되게 한 성음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응당 시작품의 표현형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주체의 작시법은 시의 운률을 살릴데 대하여 가르치면서 그것을 정서적 기복이나 흐름 그자체가 아니라 그런것을 토대로 하여 나타나는 시문장의 고유한 음악적 흐름에 관한 문제로 제기하였으며 시의 운률을 살리기 위하여 그 문장에 서술식문장을 끌어들이지 말데 대한 문제로 밝혀주었다. 이 리론은 시문장의 음악적 톨조가 시형상 창조에서 내용적 요소로 되거나 또 그런 내용적 창조만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라 형식의 요소로 되며 그런 형식의 측면까지 잘 해결해야 물질적으로 담보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시의 운률을 그의 정서적 기복이나 감정의 파동과의 불가분리적 통일속에서 고찰하는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시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분석평가하는데서 응당 취해야 할 과학적 방법이다.

시는 자기의 사상정서를 음악적인 시문장속에서 표현하는 고유한 서정의 문학형태이다. 시에서의 운률은 바로 이런 서정의 고유한 존재방식이다. 음악에서의 음률이나 시에서의 운률은 인간의 사상감정의 충동을 물질적으로 표현해주는 수단이고 형식이며 존재방식이므로 운률이 없는 시는 사실상 시로 존재하지 못한다. 그만큼 운률적 규범과 그 수단들에 대한 깊은 탐구는 시창작가들의 중요한 기술실무적 과제로 나선다.

아직도 우리의 일부 시인들은 시대와 생활에 대한 풍부한 정서적 체험만 있으면 좋은 서정시를 창작할수 있다고 일면적으로 생각하면서 운률에 대하여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않고있다.

건설장의 《사령관》-대형 기증기선은
정통뭍음 품 안아 추켜올린채
서서히 침강구역으로 미끄러져가고
수풀처럼 진을 친 크고작은 배들은
런속조립의 기발 날리누나
조명등 환히환히 밝히누나
서정시 《위훈의 새벽》중에서

시인은 본일도 없고 상상도 할수 없는 서해갑 문건설장의 영웅적 기상을 보는 순간 실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으며 더없이 흥분하였다. 정통뭍음을 끌어올리는 대형기증기선, 수풀같이 진을 친 크고작은 배들, 대낮같은 불빛속에 휘날리는 런속조립의 신호기발! 이 모든것으로 하여 시인의 가슴은 감동되었다. 그러나 《위훈의 새벽》이 운률이 있는 시작품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운률이란 감정의 고조때문에 초보적으로 무엇인가 비슷한 시어형상이 비슷하게 반복되는데서 나타나는 일종의 예술적 조화미이다. 그러나 이 서정시에는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는 개소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어떤 측면에서는 산문문장보다도 읽기가 더 까다로운 느낌을 받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본래 우리 인민은 숨가쁘게 까불거리거나 맥빠지게 느린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평이하고 순탄하고 자연스러운것을 좋아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 우리 인민의 민족적인 이런 관습이 민족시가운률의 력사에 일관하게 흐른것이 바로 우리 시가의 운률적 기초원리이다.

우리 인민은 노래하거나 시를 지어 읊는데서 까다롭거나 번덕스러운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시문장이 순탄하고 평이하며 자연스럽고 고르로운것을 좋아하는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런 특성에 바탕을 둔 조선시가의 운률적 기초원리는 2, 3, 4, 5음절수의 시어들을 성음상 내외시구로 쌍을 지어 고르롭게 대응시켜 쓰는데서 나타난다. 그것은 정형시에서나 현대자유시에서나 마찬가지이다.

락원의/ 강산에// 행복의/ 꽃들이/ 피여도//
마음속에/ 내리는// 백두의/ 눈송이/
이 땅의/ 끝까지// 사랑의/ 열매/ 주렁저도//
목메여/ 더듬는// 그/ 자욱자욱//

아./ 찬비속에// 안고 오신/ 사랑이여서//
받아안은/ 사랑이// 이렇듯/ 뜨거웁고//

찬눈을/ 맞으시며// 안겨주신/ 행복이여서//
우리는/ 행복이// 이렇듯/ 눈물겨운가//

그래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 수령님/ 생각//
행복한/ 순간이면//
행복에/ 겨워// 수령님/ 생각//
서정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중에
서

이 서정시의 운물에는 순탄하고 고르로운 우리
민족시가의 운물적 기초원리가 잘 구현되어있다.
그러나 그런 성과는 손쉽게 얻어진것이 아니
다.

시인은 무엇보다 잘 흐르는 예술적 시어를 고
르고 적지 않은 반복법과 뒤바꿈법, 느낌법들을
리용하여 시문장의 음절들이 쌍을 이루고 유순하
게 흐를수 있도록 하는데 각별한 힘을 돌리었다.

운물적 기초원리에서의 기본은 자기 나라 민족
어의 어음론적 특징에 의거하여 운물조성의 최저
운물단위를 어떻게 민족적 운물관습에 맞게 조직
하고 배열하는가 하는데 귀착된다.

최저운물단위란 그것이 한번 반복되면 운물적
미감이 확연히 발생하는 단위이다.

그래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 수령님/ 생각//
행복한/ 순간이면//
행복에/ 겨워/ 수령님/ 생각//

여기서 《날이 좋아》, 《수령님 생각》, 《행복
한 순간이면》 등은 각각 한개의 최저운물단위를
이다.

조선시가는 시문장의 최저운물단위를 내외음절
군(2/2, 3/2, 3/3 등) 다시말하여 내구와 외구로
쌍을 지어 엮는 방법에 의거하여 구현하고있다.

시행이나 시구를 엮는 유형에는 실로 민족마다
많은것들이 있을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 쌍을 이
룬 내외시구를 대응시킨 목적은 사람들의 호흡률
에 시가의 운물적 기초원리를 융합시키려고 한것
이다. 그것은 시는 소리내어 읊을것을 전제로 한
문학형태이기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의 호흡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며 그것이 미감에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민족시가의 톨조이름에 본래 334조
나 345조 또는 445조 등과 같은 세개 음절군으
로 된 이름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6/5조, 7/5조,
3/3조, 3/4조, 4/4조, 4/5조 등 두개 음절군으로 그
톨조이름이 이루어진것이나 우리 국어시가의 구
수체의 이름에도 기수체는 없고 모두 우수인 2구
체, 4구체, 6구체, 8구체, 10구체로만 되어 내려온
것은 시운물의 민족적인 기본원리가 사람의 두박
자 호흡률과 관련되어있다는것을 뚜렷이 말해준
다.

그러므로 쌍을 이룬 내외시구의 조화로운 대응
관계에 그 기본원리가 있는 우리 민족시가의 운
물적 기초원리는 뿌리깊은 연원을 가지고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왜냐 하면 그 톨조와 구수체의
우수형명칭들은 벌써 옛날부터 흘러내려온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민족적인 운물적 관습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우리 시창작에서는 그 시문
장이 어딘가 짝이 빠지고 슬개가 빠져 사람의 두
박자호흡률에 거슬리고 부정맥을 조성시키면 그
것은 기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것으로 하
여 운물적소양이 약간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비
예술적인것으로 안겨지는것이다.

이런 우리 시가의 운물적 기초원리는 소박하고
단순한데서 사물의 진리나 방도를 찾아내는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기질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있
다.

그것은 시의 운물조성방법에 제아무리 복잡하
고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
약 사람의 두박자 호흡률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면 결국 그는 사람의 숨결에 저해를 주어 정서적
으로 불쾌감을 주고 미학적으로 거친감을 주며
생리적으로는 피로움까지 주기때문이다.

내외 두 부분의 균형적 대응관계에 자신의 운
물적 기초원리를 둔 우리 민족시가의 특징은 역
시 조선시가작시법에만 고유한 《세번반복법》의
운물수법에 집약되어 나타나고있다. 《세번반복
법》이란 비슷한 음향가의 음절군 또는 시구, 시
행(때로는 시련)이 《- - ? -》의 형식으로 반복되
는 운물조성수법을 의미한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 ·

새야 새야 파랑새야

· ·

이 실례는 시행속에서의 같은 음절군이나 비슷
한 최저운물단위의 《세번반복법》이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날바다 한복판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다바람 일던곳에

벼바람이 인다

... ..

... ..

... ..

... ..

... ..

... ..

오 바람이 분다

날바다 한복판 20리 언제우에

사랑의 바람이 분다

비바람이 분다

서정시 《날바다 한복판에 비바람 분다》중에서
이 특이한 실례는 시련속에서와 시전체속에서

《세번반복법》의 원리를 확대하여 구현한것이다.

이상의 시행, 시련, 시편들에는 누구에게도 감득되는 탄력적인 운율이 흐르고있다. 그러나 이것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키면 같은 시어의 반복 비율은 높아졌어도 그 운율은 도리어 약화되는 경향을 볼수 있다.

달아/ 달아// 달아/ 달아//
새야/ 새야// 새야/ 새야//

같은 시어를 더 많이 반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율의 수준이 높아지는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은 세번째 음절군 다시말하여 둘째 최저운율단위의 첫 음절어를 앞 음절어와 똑같은것으로 바꾸어놓음으로써 내외시구 또는 두개 최저운율단위가 두박자로 부딪치게 하는 맛을 감소시키고 호흡률에서 대칭되는 탄력성을 약화시켰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행들에서의 《밝은》, 《파랑》 등 음절어들은 조선민족시가에 고유한 운율수법인 《세번반복법》을 형성시키는데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수 있다. 세번째의 색다른 음절어를 읽을 때 성음의 고저장단의 강도가 더 커지는것은 조선사람의 문장장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민족적 특징이다.

현대자유시에도 누구에게나 운율이 좋다고 인정되는 작품에는 이상과 같은 조선시가의 고유한 운율적 기초원리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있다.

물로 사흘/ 배 사흘//

① ②
(1)

먼 삼천리

③

(2)

더더구나/ 걸어넘는//

① ②

(1)

먼 삼천리

③

(2)

서정시 《삭주구성》 중에서

서정시 《삭주구성》의 민족적 운율조성원리와 《가는 길》이나 《진달래》의 그것은 모두가 일맥 공통한 점이 있으며 그 바탕에는 쌍을 이룬 내외시구나 두개 최저운율단위들의 성음상 조화로운 대응이 놓여있으며 《세번반복법》의 원리가 작용하고있다.

그렵다/

①

말을 할가/

②

(1)

하니/ 그리워//

③

(2)

그냥 갈가/

①

그래도//

②

(1)

다시/더 한번

③

(2)

서정시 《가는 길》 중에서

가시는/ 걸음걸음//

① ②

(1)

놓인 그 꽃을/

③

(2)

사뿐히/ 지레 밟고// 가시/ 읊서서//

① ②

(1)

나 보기가/ 쉬겨워//

① ②

(1)

가실 때에는

③

(2)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 우리다//

① ②

(1)

서정시 《진달래》 중에서

(2)

김소월의 이 서정시들은 보는 바와 같이 그 사상정서적 내용에서 일련의 긍정정면을 아울러 가지고있는 작품이지만 운율조성의 기초원리에 있어서는 그 당시 부르조아주지주의시론가들과 창작가들이 민족시가의 운율적 기초원리를 심히 무시하면서 현대자유시의 산문화의 악폐를 산생시키고 있을 때 민족고유의 운율조성원리를 개성적으로 개척하고 살려나간 긍정적인 시가유산이었다.

《--·-》세번 반복의 원리는 그후 우리 나라의 우수한 현대자유시들에 의하여 보다 더 넓고 다양한 길로 확대발전하여갔다.

조국이여/ 너는// 무엇/ 이기에//

① ②

(1)

저/ 눈덮인// 이.국의/ 광야//

③

(2)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서면//

③

두고 온/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러//

③

살아서/ 너를// 떠나간/ 이들//

③

죽어도/ 돌아오길// 소원/했드냐//

서정시 《나의 조국》 중에서

이 현대자유시의 고르롭고 순탄하고 류창한 운
률도 본질적으로는 조선민족시가의 일관된 운률
적기초원리인 쌍을 이룬 내외구 음절군과 그 복
합체인 최저운률단위들의 음향적인 균형적 대응
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그의
운률적 흐름도 《--?-》 다시말하여 《세번 반복
법》의 원리에 기초한것이다. 왜냐 하면 이 시행
들의 운률조성에서 《무엇》, 《이국의》, 《부두
에》, 《그리도》, 《떠나간》, 《소원》의 음절군은
시행내의 대외 최저운률단위의 탄력적 대응을
조성하는데 힘있게 작용하고있으며 그가운데서도
《무엇》과 《소원》의

달힌소리마디 《엇》, 《원》과 같은 음절은 의
미상 문법적인 하나의 음절군을 성음상의 운률적
인 두개 운각으로 분할시켜 룰조를 고르로우면서
도 부딪치게 하는데 크게 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현대자유시에서의
민족시가의 운률적 기초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그
시행, 시련 속에서의 최저운률단위의 배열방식은
시인의 사상정서적 의도에 따라 무한히 다양하
다.

그것은 현대자유시의 합법칙적 현상이다. 그러
나 다음과 같은 시작품의 운률은 그런 다양성과
는 별로 인연이 없다.

흰눈 소북이 들쓰고
땅도 단꿈을 꾸는
2월의 이 아침
들길로 프락포르 물고 달리네
나는 더 뜨겁게 느끼여라

해빛에 실려
해빛보다 찬란히
서기어린 벌 가득
이 가슴 가득히
비쳐드는 농촌테제의 빛발을
서정시 《농촌테제의 찬란한 빛발아래》 중에

서

우리의 일부 이런 시작품들은 작시법적 견지에서
볼 때 운문도 아니고 산문도 아닌 약점을 가
지고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선 읽기가 까다롭
고 힘들다. 이 시문장에는 조선시가의 운률적 기
초원리가 잘 구현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거기에
는

내외구나 그의 복합체인 내외 최저운률단위를
어떻게 구획지어야 할지 알수 없을뿐더러 시련에
서 기본음조를 감득하기 힘들다.

시의 산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률조성의
보조적 수단들의 적극적인 리용문제에 대해서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그것은 한 시작품의 운률이 결코 운률적 기초
원리의 구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운률적 기초원리는 운률의 기본흐름을
기초지어줄뿐 그의 완성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기초와 벽체만 조립해놓은
것으로 완공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영웅적인 우리 현실은 시작품에 운률조성의 다
양한 보조적 수단들이 구현될것을 요구한다. 그
러나 일부 우리 서정시들에는 운률조성의 보조적
수단들이 적극 리용되지 않고있다.

혁명하는 시대에 맞는 기백있고 고상하며 발랄
한 새로운 운률을 시작품마다 다양하게 창조해가
기 위해서도 이 보조적 운률수단들을 적극 탐구
리용하는것은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운률도 민
족적일뿐아니라 시대적인것으로서 거기서 운률조
성의 보조적 수단들이 민족고유의 운률적 기초원
리보다 시대에 더욱 민감하며 더 다양하고 더 가
변적으로 발전한다고 할 때 그의 적극적 리용문
제는 더욱 절실하다.

현대자유시에서 운률조성의 보조적 수단들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려면 현대시문학운동에서 그
의 시체, 시풍을 더욱 다채롭게 하는것이 필요하
다.

우리의 현대자유시는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
정을 철학적으로 깊이 사색하고 운률적으로 감명
깊게 노래한 《나의 조국》이나 《어머니》 등과 같
은 시양식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와 아울러 다
양한 시체, 시풍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사실주의시창작에서 사색의 심오성과 높은 지
성도는 필수적 요구이지만 깊은 사상에로 도달하
는 시형상의 길은 다양하다. 시는 원래 노래와
한뿌리에서 나왔기때문에 《시가》라고 불러온것
과 같이 읊어져야 자기의 사상미학적 기능을 제
대로 수행할수 있다. 시에서도 핵은 사상이지만
그것은 운률의 도움으로 정서화되지 않고서는 자
기의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원래 좋은 시일수록 사색적이고 철학적이지만
거기에 운률이 풍부하게 흐르는것은 필연적이다.

때문에 외우고싶고 노래부르고싶은 짧고 다양
한 작품들일수록 운률이 더 잘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당이 밝혀준 시창작리론이 있고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현대자유시의 사상
예술적 수준을 높이는 사업에서도 반드시 더 큰
성과가 있을것을 확신한다.

고향의 미래를 두고

문명학

우리 나라 서부지구에 자리잡고있는 굴지의 대 석탄기지-안주!

여가 바로 나의 고향이다.

여기서 내 생의 첫 고고성이 울렸고 동요시절의 꿈을 키웠으며 청춘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다.

고향!

이 말은 얼마나 그윽하고 따뜻하며 애뜻한 정서를 안겨주는가.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시작되고 고향이 모여 이루어진 조국이란 말도 그렇듯 숭엄하고 정결게 안겨오는것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심은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토와 역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의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되는것입니다.》

나의 고향은 옛날옛적에 《록죽부인》의 아름다운 전설이 생겨난 그때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났었다. 여북하면 《흰쌀밥에 조기를 석탄불에 구워먹는 고장》이라고 하면 팔도강산에 모르는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겠는가.

나의 고향은 설움도 많았던 고장이다.

악착한 왜놈의 시절, 울음 많고 욕설 많고 파부 많은 이곳에서 우리네 아버지들은 오소리굴같은 갱안에서 엉치걸음으로 탄짐을 지고 다니느라 무릎에 썩살이 박혔고 꺼먼 탄부스러기가 입묵처럼 온몸에 새겨져있었다. 그래서 《앵쟁이탄광》이라 기막히게도 불리웠었다.

착취제도가 남긴 후파로 오랜 세월 사람 못살 고장으로 불리우던 내 고향이 찬란한 해빛을 받아 다시 세상에 알려진것은 조국이 해방된 그날부터였다.

력사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삼복의 피약별을 받으시며 이곳을 찾아주신 그대부터 안주의 자랑스러운 연혁이 펼쳐졌다.

그때는 너무도 몰랐었다. 즐거운 배움의 나날, 지리교과서가 새로 나올적마다 자꾸만 늘어나는 우리 탄광의 표식을 보고 야영 온 못지방애들에게 고향을 뽐내던 나였건만 나는 그 표식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너무도 몰랐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고 조상들은 어느 시절에 소박한 이 말을 생각해냈지만 우리 고향 탄부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

람은 정녕코 그 무엇에도 비길수가 없다.

열두삼천리 넓은 별에서 황금벼알이 한껏 여무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탄부들이 사는 집을 몸소 찾아주시어 탄광마을의 살림살이를 세상에서 으뜸가게 꾸려주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실 때 동발처럼 억센 심장들이 소리없이 흐느끼였다...

의리란 무엇인가? 값을줄 알고 보답할줄 아는 것도 그 뜻의 한가닥 지맥이 아닐가.

수난을 겪었기에, 인간의 값높은 존엄을 받아 안았기에 내 고향 탄부들은 누구보다 의리의 참 뜻을 알고있다.

하여 안주는 지금 날마다 시각마다 위훈에 기적을 덧쌓으며 채취공업의 첨단에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고있는것이다.

많이도 변했고 빨리도 내닫는곳이 오늘의 내 고향이다.

열혈의 심장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처음 뵈옵던 부모들을 이어 이제는 내포래, 우리 세대가 이 거창한 탄전의 기둥으로 되었다. 그래서 나는 고향의 어느 길가, 어느 통근차칸에서건 나의 심정과 똑같은 친구들을 무수히 만나군한다.

우리 공장대학에는 한쌍의 약혼한 학생이 있다. 청년은 제대군인채탄공, 처녀는 전차운전공, 어느 일터나 항용 있을수 있는 현상이지만 처녀가 기막히게 아름답다. 마치도 하늘의 선녀라고 할가. 처음 보는 사람인 경우에는 잔뜩 호기심이 동할 것이다.

(배우감으로 딱 소리가 날 인물인데 기술대학에 다닌다? 그것도 채굴학부에...)

물론 그 처녀는 탄광적으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문이 자자한 《안주의 피꿀새》이다. 얼마 전에는 《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서 수많은 텔레비전시청자들의 호평을 독차지했었다.

그런데도 전차공에 채굴학부학생이라? 심분 호기심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리해한다.

그럼 이번엔 한생을 성실하게 탄광에 바쳐온 처녀의 아버지가 딸에게 한 말을 들어보자.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때부터 이 탄광에 뿌리를 박고 살아왔다. 말하자면 석탄산을 고인 동발목처럼 드림이 없이말이다. 그러니 너도 탄부가문의 딸답게 우리 가풍을 귀중하게 지켜야 한다. ... 그것이 우리 가정을 뜨르르하게 빛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다.》

처녀는 아버지의 말을 단순히 세속적인것으로가 아니라 탄광의 앞날을 책임진 주인으로 받아

들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랴!...

청춘의 두 심장이 하나의 마음으로 굳게 포옹되던 날 청년은 처녀에게 던지시 물었다.

《내가 어떻게 동무의 눈에 들었는지 모르겠어, 나야 채탄공인데...》

《그런데 어쨌어요. 동문 여기에 뿌리를 내렸구 과학탐구에 비상한 정열을 바치고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앞날에는 과학과 기술의 힘이 없이는 탄을 쉽고도 많이 캐낼수 없어요. 동문 이걸 알고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야...호호.》

청년은 정말로 여기에 무쇠동발처럼 뿌리를 내린 탄전의 주인이었다. 제대배낭을 벗자 맨 먼저 발걸음을 옮긴곳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이었다.

《내 여기서 당의 뜻 꽃피우리라!》

사랑하는 처녀는 청년이 심장으로 다진 맹세도 미래에 대한 포부도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있었고 거기에 자기의 희망도 서슴없이 합쳤던것이다.

이것은 비단 두 청춘남녀들에 한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세대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이런 심정을 고이 간직할 수많은 탄전의 새세대들이 시대의 첨단에 서서 인민경제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곡괱이로 캐던 조상들의 원시적 탄캐기법은 옛말로 되었고 화약을 터뜨려 탄벽을 허물던것도 구식으로 밀려난지 오래다. 막장마다에서는 현대식 채탄기가 폭포처럼 석탄을 캐내고있다.

하나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마저 탐탁치 않다.

하나의 채탄장을 혼자서 캐내자. 땅속에서 캐던것도 땅우에서 캐내자... 꿈이라고 할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러한 목표는 우리를 손저어 부른다.

아!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높은령마루에 남먼저 올라설 우리 고향의 미래는 얼마나 휘황찬란할것인가. 신기루가 아니라 확연한 현실로 내 고향의 미래를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열정으로 일을 하고 열정을 안고 과학탐구의 길을 걸어간다.

안식을 잃은 밤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 도시에서-

김창근

밤은 고요히

안식에 잠드는 시간이건만

내 지금 바라보는 황금만능의 이 도시는

온밤 잠못들고 몸부림친다

바라보니

사람들의 주머니에 남아있는 몇푼마저

모조리 이밤에 털어내려고

요염한 녀인의 눈동자인양

섬없이 껌벅이는

파란 불, 노란 불

바라보니

너를 죽여야 내가 살기에

속이고속으며

빼앗고빼앗기며

붐비는 이 거리

눈앞이 어지러워 눈을 감으니

갑자기 웬 사나이의 비명소리

그러자 그 소리 비웃는듯

료정가에 자지러진 녀인의 웃음소리

거리에서 미친듯이 달리던 자동차

부딪쳐 깨져 튕구는 소리

짓밟히고 타락한 허우적임

나락속에서 몸부림치는 사회의 비명소리

아, 내 잠시 떠나왔건만

그립구나, 나의 조국

조국에도 지금은 밤이 깃들어

락원의 창가마다 행복한 꿈이 깃들고

희망찬 아침노을은 밝아오련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여기는 아비규환

내 지금 바라보는 황금만능의 이 도시는

밤을 잃었다

안식을 잃고 몰락의 어둠속에서

아침이 없는 밤속으로 깊어가고있다

출항전 아침시간

최정기

정깊은 배고동의 메아리가
집집의 창문을 두드린듯
일시에 부두를 향해
거리의 창문들이 열리는
출항전 아침시간

서두르는 사람들의 물결속에서
꽃을 안은 처녀들 어로공총각들 찾아
바빠 뛰며 부르며
수집음도 잇는 시간

남편의 입맞
안해들만이 아는 그 살뜰함으로
정히 싸고싼 작은 보집까지
조국이 실어주는 사랑의 큰집 우에
웃음속에 덧놓이는 이 시간

만선기 달고 입항하는 때만

부두가 끓는것은 아니여라
웃음소리 발걸음소리
힘을 주는 취주악소리, 뚝뚝 북소리
바다도 진정 못하는 이 시간

누구나 가슴들먹이며
말없던 사람들도 말 많아지는 이 시간은
부두가의 뜨거운 마음들이
어로공의 가슴가득 채워지는 시간
그 마음이 배보다 먼저
바다로 바다로 흘러나가는 시간

아, 분주한 아침시간엔
어로공들 가슴만은 뜨거워 뜨거워
조국의 크나큰 사랑앞에
만선을 기약하는 그 마음만을
어장 한복판에 잇대놓는 시간이라

병사의 땀

전병구

전투훈련의 장구류를 갖추고
강물을 뛰어 건느던 때보다
병사의 땀방울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여기 와서 알았네

묵직한 배낭을 등에 지고
산악을 날아넘던 그때보다
병사의 땀방울이 얼마나 값높은지
우리는 여기 와서 더 잘 알았네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이름도 뜻깊은 광복거리 건설장에
조국의 수호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이 크기에...

군복을 흠뻑 적시는 땀방울
서늘러운 그늘속에 잠시 식혀도 좋으련만
그 땀방울 창조의 섬광속에 빛내이며
건설의 장엄한 음향속에

뜨거운 숨결을 합치는 병사들

하늘에 치솟는 총계우에도
새겨진 땀방울
진주보석으로 박아넣었던가
곧추 뻗은 큰 길에도
구슬처럼 빛나는 땀방울

전쟁의 광신자 미제가
평화를 교살하려 화약내를 풍겨와도
여기에 뿌리는 전사들의 구슬땀
자주, 친선, 평화의 역센 보루를 다지거니

아, 완공의 그날에
꽃보라로 뿌려질
병사들의 땀방울 땀방울
이는 미제 원썬들의 가슴팍을 겨냥한
탄알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라

《조선문학》과 독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문헌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와 《주체 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높이 받들고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온 해이다.

따라서 잡지 《조선문학》에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소설, 시, 평론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 산문들이 편집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국의 각지에서 수많은 독자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편집부는 날마다 보내오는 독자편지들속에서 그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훌륭한 생활의 교과서

아들딸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아들딸이 큰다음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똑같은 책임감을 안고 미래를 대하는것은 아닙니다. 하다면 어떤 자세로 대하는 사람이 미래앞에 진정 성실하다고 할수 있을것인가?

《조선문학》 1987년 7호에 실린 단편소설 《미래》(문명학 작)는 바로 이 문제를 감명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올바른 해답을 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보고 난 다음부터 독자인 제머리속에는 드문드문 작품의 주인공들이 잊혀지지 않고 떠오르군합니다. 어린 시절 담임선생이였으며 오늘날의 1고등중학교 교장인 고세림과 다과목소조지도교원인 4촌누이 선영이의 안면으로 1고등중학교에 자기 아들 재남이를 보내려고 선을 놓는 경리과장 학천이의 어리석은 모습이 생동하게 련상되는가 하면 엄정한 시험성적으로 입학대상을 결정짓는 고세림과 선영의 값높은 모

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미래에 바치는 성실성, 책임감은 어떤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갓 인민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소설의 재남이처럼 스승에게 성의를 고인답시고 참가재미 바께쓰나 들고다니게 키우는것은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고세림이나 선영이처럼 조국의 미래앞에 엄정해야 하며 성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문자답하며 나는 아들의 학습과 일과에 관심을 돌리군합니다.

이처럼 최근 잡지 《조선문학》에 생활의 교과서로 길동무로서 친근하고 훌륭한 단편소설들이 편집됨으로써 우리 독자들을 기쁘게 해주고있습니다.

류인섭

짧고 인상깊은 시를!

최근 《조선문학》에는 짧고 인상깊은 시들이 많이 실려 독자들을 기쁘게 해주고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시들중에는 1987년 6호에 실린 《구룡연》, 《진주담》(유영하 작)을 들수 있습니다.

이 두편의 시들은 금강산에 대하여 노래한 시입니다. 아직까지 구룡연과 진주담에 대하여 많이 노래하였지만 이전의 시들과는 어긋비슷하지 않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 《구룡연》에서는 쇠물뽑는 사나이는 저 폭포가 그대로 쇠물이 되었으면, 또 비단짜는 처녀는 저 폭포가 그대로 비단이 되었으면 하는 진실한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시를 끝맺고있습니다.

아, 구룡연, 구룡연
다가서는 천만의 가슴에
보여오는 모습은 달라도
내 나라 빛내갈 생각은 하나로 합쳐
금강엔 마음의 폭포가 쏟아져라

보다싶이 시에서는 그 어떤 꾸밈도 억지도 없습니다. 시를 보면 내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구룡연앞에 서있는 얼굴들이 보입니다.

시 《진주담》도 이채로운 양상으로 해서 특색이 있고 참신한 서정적 발견으로서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준

...

우리에게 필요한 시

참 좋은 시를 읽었습니다.

잡지 《조선문학》 1987년 3호에 실린 편시 《푸른 언덕에서》(김철민 작)는 조국의 품에서 시련을 모르고 고이 자란 오늘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조국을 위해 바친 청춘은 이 땅위에 어떻게 영생하는가 하는것을 시형상으로 보여준 의의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시의 모든 시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시 《아직은 내 할일 남아있지 않는가!》는 나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

그렇다 사람들이여

설악에 전우를 안장해보지 못하고

피흐르는 강하를 헤쳐보지 못한 세대

절반을 피에 잠근 이 땅위에 자라거니

아직은 내 할일 남아있지 않는가

...

락동강을 건너본 불굴의 병사- 서정적 주인공의 이 불같은 웨침은 그야말로 우리 세대에게 넘겨주는 앞서간 선렬들의 정신적 재부이고 우리가 받아 지녀야 할 애국의 푸른 녀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 세대는 나팔바지가랭이를 펄럭거리며 유보도나 한가히 거닐 세대가 아니며 조국의 옷자락에 매달려 어리광을 부릴 세대가 아닌것입니다.

전화의 불비도 모르고 전후의 재가루맛도 모르는 우리, 하지만 해야 할 일은 곱으로 많은 우리에게 조국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주고 그것을 지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이 시야말로 반드시 우리 세대에 필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편집부에서 세세대들의 조국애교양에 이바지하는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이 실어주길 바랍니다.

김석천

바쁘게 살자

읽으면 읽을수록 문학을 알기에 앞서 참된 생활을 배우게 되는것이 잡지 《조선문학》에 실린 작품들입니다.

단편소설로부터 가장 짧은 형식인 벽시와 단상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저에게 있어서 창작과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습니다.

잡지 《조선문학》 1981년 1호에 실린 단상 《바쁜 걸음》(리수웅 작)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건설장으로 달려가는 지원자들의 걸음을 놓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높은 사상정신적 풍모를 보여주는 단상 《바쁜 걸음》은 비록 내용과 형식이 짧고 단순한것이이지만 저의 생활을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발걸음, 이 발걸음에 발을 맞추어야 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있는가? 하루, 한시간, 아니 단 한순간이라도 한가한적은 없었는가?

바쁘게 살자! 더 바쁘게... 도달해야 할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멀고 아득한것이기에 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낼수 있단말인가.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참된 삶의 목표에로 생활을 끊임없이 지향시켜나가게 되는것입니다.

짧은 형식의 예술산문이라도 이런 좋은 작품들은 나뿐이 아니라 잡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여 그들을 아름다운 삶의 봉우리로 힘차게 이끌어갈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이 편집해주십시오.

조상호

단숨에 읽은 평론

평론이 소설이나 시처럼 독자들에게 단숨에 읽히우기는 힘들것입니다. 평론의 문학적 특성으로부터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평론을 마치 몇몇 창작전문가들을 위한 지엽적인 글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평론도 어디까지나 독자들을 위한 글인라는것만은 명백합니다. 독자들을 옹은 문학세계에로 이끄는 글이면서도 창작가들의 예리한 관심속에 읽히우는 글이 평론인것입니다. 따라서 평론은 독자대중과 창작가 어느

한쪽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기간 많은 평론들이 이런 립장에 똑바로 서서 썩여지지 않은데로부터 독자들의 《애독권》 밖의 글로 의연히 남아있었습니다. 제아무리 평론가의 논리적 주장이 명백하고 호소가 강한 평론이라 하더라도 읽히우지 않는 글은 하나의 공리공담에 불과합니다. 다른 종류의 문학작품들이 모두 발전하는 시대의 미학정서적 요구에 맞게 도식과 유형을 극복하고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창작의 불을 절고있는 현실은 평론이라고 제외가 될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문예리론적 범주들을 라렬하는 논리화된 긴 설명, 예리하지 못한 절충주의적 분석, 실무적인 문장들, 독자대중의 객관에 서지 않고 주관적인 강요가 우세한 작품평, 박력없는 문제들... 이것이 읽히우지 않는 평론들의 구태의연한 서술방식입니다. 때문에 혁신적인 면모를 가진 새로운 평론을 읽고싶은것은 독자들이나 창작가들의 일치한 심정일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잡지 《조선문학》 1987년 6호에 실린 단평 《대담한 시도, 응답한 결실》(윤상현 작)은 독자들과 창작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평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여 평론을 단숨에 읽어보기는 처음입니다. 길지 않은 단평인 이 평론에서는 예술영화 《보증》이 거둔 사상예술적 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있습니다. 이 영화가 거둔 사상예술적 성과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많은 글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단평에서는 확실히 남들과는 다른 평론가의 뚜렷한 얼굴이 있으며 소설이나 시작품처

럼 글줄을 따라 독자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데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성공의 비결은 대상작품에 대한 논리적 평가를 위한 실무적인 글이 아니라 작가의 창작적 심장의 무게와 대담성 문제들이 작품 창작에서 작가가 성공한 비결로 명백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논리적 해제가 없이 작품분석에 직접 들어간것은 지난 기간 평론들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것입니다. 한편 작품분석의 경우에도 창작가들이 당정책문제 해결의 번두리가 아니라 중심어로 어떻게 뚫고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도식과 유형의 극복문제, 창작가들이 보신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자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이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썩여진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필자는 이 단평에서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이 나오게 하는데서와 새세대작가들의 창작적 담을 키우는데서 창작지도일군들

과 편집원들이 놀아야 할 역할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서도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것으로 하여 더욱 이채로운것입니다. 길지 않은 이 단평은 문장의 통속성과 명료성, 간결성과 속도감으로 하여서도 종래의 평론들과는 다른 새로운 맛을 줍니다.

이와 같은 모든것으로 하여 잘 썩여진 시나 소설처럼 단숨에 읽히는 평론, 독자들도 창작가들도 이런 평론을 기다립니다.

현상무

판문점, 여기서는

로진용

꽃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를 찾으면
두눈에서 불길이 일어
꽃들을 모조리 불볼게 하리

노래와 함께 사는 사람
여기에 서면
그 입에서 서리를 뿜어
날으는 새들을 얼कु게 하리

여기서는 파스한 말
없어진지 벌써 오래고
여기서는 오로지
평화와 전쟁이 판가리할뿐

강물도 숨죽여 흐르는곳
꽃들도 증오에 치를 떠는곳
오, 판문점
세계의 랑심이 분노하는곳

여기에서 뻗은 군사분계선
그것은 도화선과 같은것
허리짚고 서있는 기다리 저놈
인류를 쪼먹는 저놈은 암세포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노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여
나와 같이 서슴없이 칼을 들어라
정의의 칼 들어 미제를 도려내자!

(문예동 호교지부 총무부장)

고향의 하늘가에서 외 1 편

림공식

종이비행기 창너머 띄우며
어린 꿈이 비끼던 희망의 하늘가에
비행기 물고물아 날으는 이런 때면

아, 팔 벌리면 한가슴에 다 안길듯
한눈에 비껴오는 고향
고향은 한없이 아름답구나

내 어릴적 비행사가 된다고
어머니 마음을 그리도 태우며
하루에도 그 몇번 오르던 미루나무도
학창시절 등산길 자주 오르던
그 높은 다래령도
한걸음에 내짚을듯
발밑에 굽어보는 장쾌함이어

하늘높이 오르고오를수록
펼쳐든 책에서 바라보는 그림처럼
한눈에 다 안겨오는 고향이어서
사랑속에 걸어온 행복한 추억의 길도

이 한순간에 다 걸어보는 마음이어

땅우에서야
그 어이 한눈에 다 볼수 있으랴
시름없이 오고가던 학교길이며
수령님 마중하여 꽃을 안고 달려가던
읍으로 뻗은 그 먼 큰길까지

양떼 풀뜯는 산기슭 굽이돌아
마을앞을 감도는 맑은 시내가
어머니 손길에 정히 씻고씻긴
하얀 빨래돌마저

아, 소중히
한없이 소중히 깃드는 정깊은 향토
마치도 이 한가슴에 소중히 껴안은듯
하늘 멀리 오르면오를수록
너만은 한눈에 다 비쳐드누나
너만은 멀리 보이지 않는구나
내 고향이어!

하늘이여 너는 무엇이던가

은빛 날개를 펼치고
나의 정든 비행기와 함께
내 언제나 날으는
하늘이여

날아오르면
망망한 구름의 바다
너에겐 설레는 푸른 숲과
한줄기 맑은 시내물
조용히 사색하며 거닐을
산책의 길조차 없건만

하늘이여, 너는 무엇이길래
태를 끊고 태어난 고향처럼
내 첫사랑을 고백한 처녀처럼
그리도 정답고 살뜰해
잠시라도 떠나있으면
그리움이 가슴속에 북받치는것이냐

오, 시창너머 바라보면
가없이 넓은 하늘아래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내 조국의 모든것이
한눈에 다 안겨와서인가

붉은 화광이 솟구치는
거창한 철의 기지
오곡이 익어 물결치는 들판이며
수려한 금수강산
삶의 행복이 꽃처럼 피어나는
해빛밝은 락원의 창문들
바다가 하얀 모래불에
야영의 즐거운 발자국을 찍는
아이들의 기쁨 어린 별빛 눈동자들이
좋아라 나를 반겨 웃거니

언제던가
재가루 날리는 폐허속에서
귀여운 어린애의 불탄 꽃신을
오래도록 손에 드시고
아, 우리 수령님
다시는 이런 참상을 당하지 않게

결연히 말씀하시던 그날은

다시는 그런 참상

이 땅에 없도록

위대한 믿음의 한뫼에

조국의 하늘을 지킬 매들을 키우시며

수령님 걸으신 길 그 얼마

수령님 지새신 밤 그 얼마

하늘이여,

너는 정녕

이 땅의 풀 한포기 꽃 한송이 소중해

행복의 창문들을 떠이고 솟은 거리들이 귀중해

수령님 펼쳐주신

내 조국의 지붕이 아니더냐

내 너를 떠나신 못살아

흄냄새 구수한 들길을 걸어도

내 마음은 네 품에 두고

푸른 하늘을 날으는것 아니냐

영원히 물구름이 비끼지 못하도록

내 운명과 일찌기 약속한 하늘이여

너는 나의 청춘!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위훈의 무대!

아, 네가 없인 비행사인 나도 없어

정다운 비행기와 함께

너를 지켜 내 살리라

영원한 사랑의 품

푸른 하늘이여!

농민의 금지

조창선

세상에

이보다 더한 친절

이보다 더한 환대

없는줄 아오

흥치며 설레이는 벼이삭들이

두렁길에 들어선 내 발목

칭칭 휘감아 끌어안으며

한발자욱도 옮기지 못하게 하오

속깊은 내 진정을

열매로 맺어주었다고

습습한 흄냄새를

난알향기로 날려줬다고

금빛 이삭이 내 옷자락을 부여잡고

고개를 수그리며 수그리는

그 친절이

그 살뜰함이

대륙만리 먼 나라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발 휘날리며

체육인이 오른 시상대도 좋겠지만

이 두렁길이 나는 종소

만사람을 놀래우는 새 발명으로

그 이를 세상이 다 알아

아낌없이 받는 찬사도 좋겠지만

난알의 인사 내 가슴 더 설레게 하오

두렁길을 걸으며

하루도 아닌 가을 한철 내내

내가 받는 인사는 가장 수수해도

인사중에 가장 열렬한 인사

농민만이 받는게 아니겠소